



6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6호

(루계 536)



◆◆◆◆◆◆◆◆◆◆

## 차 례

◆◆◆◆◆◆◆◆◆◆

|                                     |    |
|-------------------------------------|----|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있는  |    |
| 인간전형을 그리자 .....                     | 4  |
| 아버지에 대한 추억 .....                    | 6  |
| 효성은 조선의 가풍 .....                    | 6  |
| 나는 <b>김정일</b> 장군의 전사 .....          | 7  |
| 탄전의 별무리 .....                       | 7  |
|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그이는 주체의 타수..... | 8  |
| 그이는 강철의 령장 .....                    | 8  |
| 금보다 값있는 혁명소설들 .....                 | 9  |
| 새 장수의 예언 .....                      | 11 |
| 해빛아래 별빛아래 .....                     | 14 |
| 명제해설 .....                          | 15 |
| 이 샘물 마시면.....                       | 16 |
| 높이솟는 탑 .....                        | 17 |
| 출장을 마치고 오며 .....                    | 25 |
| 우산 .....                            | 26 |
| 빛나는 별 .....                         | 28 |
| 총은 나에게 무엇이었던가 .....                 | 31 |

|                                 |    |
|---------------------------------|----|
| 당정책적안목의 예리성과 분석적묘사와 철학적깊이 ..... | 32 |
| 류다른 일과 .....                    | 40 |
| 굴진중대장의 초상 .....                 | 41 |
| 우정 .....                        | 44 |
| 언제나 그날처럼 .....                  | 45 |
| 성미, 개성과 관련된 속담.....             | 51 |
| 삶의 노래 .....                     | 52 |
| 배낭을 메여라 .....                   | 55 |
| 력사의 심판장에서 .....                 | 56 |
| 《눈물받이》 .....                    | 57 |
| 통일지향과 우리 시문학 .....              | 68 |
| 하나가 좋아 .....                    | 73 |
| 피더운 땅에 부치며 .....                | 74 |
| 아들에게 .....                      | 76 |
| 조국떠나 멀리에서 .....                 | 77 |
| 고향 풍경 (외 1 편).....              | 78 |
| 사둔재의 새 전설.....                  | 78 |
| 숲속의 아침 (외 1 편) .....            | 79 |
| 처녀의 바구니 .....                   | 80 |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있는 인간전형을 그리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적신념으로 되는 동시에 도덕적의리로 되여야 진실하고 열렬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사회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우리 문학이 이 숭고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작품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을 품위있게 형상한 사실에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있는 참다운 충신, 공산주의적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전형을 창조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 하고있는 참다운 충신의 전형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창조하여 대중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수천, 수만의 새로운 공산주의적인간들을 키워내는데 이바지할것이며 명실공히 당의 문학으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의무를 궁지높이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 충신의 전형을 형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념화된 충실성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승리를 굳게 믿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실천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고결한 공산주의적품목이라고 하시였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주체형의 인간형상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신념화되여야 변심이 없는 영원한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념화된 충실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야

혁명이 승리하고 자신과 인민들의 운명이 개척될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것과 충성의 신념은 수령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자각과 각오를 높여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드팀없이 받들어나가는 강의한 의지를 낳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이 지니고있는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량심화된 충실성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충실성을 량심화한다는것은 수령을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심으로 높이 모시려는 깨끗한 마음을 깊이 간직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식과 사심이 없는 진실하고 순결한것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절해고도에 홀로 남는대도 수령을 우러르며 수령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 비록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수령을 끝까지 옹호보위하며 충성을 다하는 혁명적량심을 지닌 숭고한 공산주의적전형들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당과 수령, 나라와 민족, 사회와 집단을 위해 량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정직한 사람들은 며칠을 굶고 잠을 못자도 몇몇이 살수 있지만 량심을 저버린 인간은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량심은 사리와 공명으로부터가 아니라 높은 자각으로부터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살며 일하려는 진실한 마음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량심에서 핵은 수령을 받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느끼는 자각된 혁명적량심이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량심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 기초하고있는 충실성은 그 바탕에 명예와 보수를 바라는 공명과 사심이 깔릴수 있다는것, 따라서 이러한 순결치 못한 충실성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쉽게 변할수 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확증한 예술적화폭들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 어온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쳐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영생하는 참다운

삶의 길을 걸어간 항일혁명투사들, 조국해방전쟁 시기의 영웅전사들, 남조선의 수많은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빛나는 예술적화폭들을 창조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적혁명가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무로 여기는 동시에 혁명적량심으로 빛내어나가야 한다는것을 감동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 지니고있는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도덕화된 충실성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충실성을 도덕화한다는것은 수령을 자기 운명의 은인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은덕에 기여이 보답하려는 숭고한 의리심을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량심만 가지고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변함없이 발휘할수 없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량심에 의거하여 도덕화되어야 누가 보건말건 언제 어디서나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가 될수 있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수령에 대한 도덕화된 충실성이 수령을 친어버이로 존경하고 흠모하며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길 때 가장 고결한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생활화된 충실성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충실성은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할뿐아니라 생활화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활화한다는것은 충실성을 일상생활속에서 공고화하고 실천활동에 구현한다는것을 말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체질화되고 공고화된다. 그것은 생활을 떠난 인간이란 있을수 없으며 생활속에서 사람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풍모가 형성되며 습성화되고 보편화되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충실성이 꽃피나고 습성화되며 보편화되고 체질화되는 과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묘사한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생활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실천으로 꽃피우는 화원이며 신념과 량심, 도덕적품성을 튼튼히 키워주는 터전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활화할 때에라야 그 어떤광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흔들림없는 굳건한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진가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로서 자체의 고유한 내용과 특징을 가지면서도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고 사람들의 성격과 풍모에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된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신념이 없이는 량심과 도덕을 지킬수 없고 량심과 도덕을 떠나서는 신념이 고수될수 없으며 신념과 량심, 도덕을 떠나 참다운 생활이 이루어질수 없고 생활속에서 신념과 량심, 도덕적품성이 공고화된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수령에 대한 참다운 충실성은 신념에 의해 발현되고 량심에 의해 지켜지고 도덕에 의해 굳어지며 생활로서 체질화된다는것을 깊이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사회성원들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량심, 도덕으로 간직하고 생활속에서 체질화해나가는 참다운 충신, 효자로 키울 때 그 어떤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와도 우리 당,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은 끄떡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전진할것이며 남먼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 문어구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이 바로 이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데 있는것만큼 우리 작가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나가는 과정을 밀접히 결부시켜 생동한 화폭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신념으로 간직되고 량심으로 정화되며 도덕의리적인것으로 되어 생활의 매순간마다에서 발휘되는 공산주의적인간, 충신, 효자들의 내면심리세계를 깊이있게 파헤쳐야 사람들을 무한히 공감시키고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줄수 있다.

공산주의적인간의 충실성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려면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풍부하고 정서질은 다양한 생활속에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속에서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되는 가식없고 진실한 참다운 충실성, 그 어떤 오염구역에 던져져도 변색을 모르는 순금파도 같은 순결한 충실성을 지닌 진정한 충신, 지극한 효자의 전형을 창조하는 여기에 주체문학발전의 새로운 길이 있다.

우리 모든 작가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체질화한 주체형의 새로운 인간전형, 공산주의적인간의 새로운 모습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아버지에 대한 추억

리복선

아버지의 사랑이란  
어떤것인지  
나는 몰랐다  
앵두씨가 널려진 우리 집 토방에  
수령님 나를 안고 앉아계실 때

복슬강아지 꼬리 저으며  
부러운듯 킁킁거릴 때  
나는 들메나무우에 올라 바라보던  
하늘의 흰구름을 탄것만 같아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소식 시름겹게 들으시며  
수령님 나를 두고 이야기하실 때에도  
그이의 무릎에서 발장난만 하고  
탄피를 쥐고 놀던 때물은 손으로  
수령님 옷자락의 단추를 만지며  
그 품에 더벅머리 자꾸 기댔 때  
어머니는 송구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그때  
나라형편이 그처럼 어려웠던 그때  
수령님은 친아버지가 되시여  
학원에까지 몸소 데려다주셨나니

정말이지 나는 몰랐다  
아버지사랑이란 어떤것인지  
돌발이라 부르던 등메골 어구에서

내 어머니 희생된 아버지소식 듣고도  
치마허리 질끈 동이고 눈물없이  
소를 몰아 억척스레 밭을 갈았나니...

아, 믿던 남편을 잃고도 슬픔을 참고  
눈물을 삼키며 견디던 사람들  
그처럼 강의하고 굳세던 너인들이  
수령님 앞에선 눈물을 감추지 못했거니

추억이여, 다 자라 찾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여  
그것은  
우리 집 토방에 앉아계시던  
수령님 영상  
그것은  
내가 이애의 학부형이라고  
교장선생님께 말씀하시던  
귀익은 음성!

그래서 강직한 어머니는  
수령님 앞에서만 흐느껴 울었는가  
그래서 어머니는 시름놓고  
수령님께만 나를 맡겨보냈던가

아버지!  
아버지!  
때없이 찾는 나의 추억은  
언제나 눈시울 뜨거이 그리는  
어버이수령님 인자한 모습속에 있어라

가사

## 효성은 조선의 가풍

김영철

만경대 고향집의 화목한 가풍은  
내 나라 효성의 뿌리되었네  
푸르른 남산의 소나무처럼  
온 나라 가정에 무성하였네  
아 효성은 조선의 가풍

백두의 고향집에 빛나던 가풍은  
내 나라 효성의 즐기되었네  
전선길에 새겨진 축복의 노래

오늘도 대를 이어 울려 퍼지네  
아 효성은 조선의 가풍

만경대 백두산에 뿌리둔 가풍은  
락원의 이 강산에 꽃으로 폈네  
해와 별 따르는 인민의 마음  
불타는 충성으로 빛내여가리  
아 효성은 조선의 가풍

# 나는 김정일장군의 전사

리소영

다박술 푸르른 초소의 전호가에서

높뛰는 가슴에 총을 안고

내 뜨겁게 불러본다

**김정일**장군

위대한 그이의 존함 새기면새길수록

용암처럼 분출하는 격정의 환희

내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던 소원이던가

내 얼마나 불러보고싶던 념원이던가

해빛처럼 눈부신 그이모습 우러르니

위대한 령장을 모신

전사의 행복 끝이 없어라

군모의 채양에 손을 얹고

전사인 내가 경례를 드리면

허물없이 나의 인사도 받아주시리

다정히 나의 손목도 잡아주시리

오, 그이의 안광에 넘치는 예지의 빛발

환희로운 2월의 그 아침에 솟았던

백두광명성 그 별빛인가

정일봉마루에 솟던 해돋이의 그 빛발인가

찬란한 그 빛발을 받아

폭풍이 불어도 전사의 눈빛 흐릴줄 모르리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전사는

세상에 무서운것이 없어라

두려운것이 없어라

명장의 술하에 약줄이 없듯이

위대한 명장 그이를 모시어

평범한 전사도 장수가 된듯

천만대적도 내 발밑에 굽어보나니

오, 넓어진 전사의 가슴

크나큰 담력에 넘쳐나는 슬기와 용맹떨쳐

그 어떤 간악한 대적도

달려들면 무자비하게 족쳐버리리라

아, 나는 **김정일**장군 그이의 전사

받들어가리라

천년을 만년을

그이 부르시는 길 하늘땅 끝이라 해도

따르는 마음 하늘땅 끝에 닿아있어

전사는 가리라 폭풍천만리 물길천만리를!

## 가사

## 탄전의 별무리

리용

정다운 별들이 어깨를 겨룰 때

미더운 탄부들 막장길 가내

안전등 불빛으로 은하를 펼치어

아, 탄전엔 별무리 끝없이 흐르네

별 하나 나 하나 세이던 그밤엔

하늘의 별들이 부러웠건만

천만길 땅속에서 밝은 빛 뿌리는

아, 지하의 별되여 이밤을 비치네

석수가 내려도 꺼지지 않는 별

눈보라 사나워도 더 아름답게

람홍색기발을 받들어 빛나는

아, 충성의 별무리 탄전에 흐르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그이는 주체의 타수

엘 싸이드 아브델 카위 무싸

애급의 널강 류역에서

우리 삼가 축원하노라

주체의 위인이시며

예술의 대가이신

**김정일** 동지의 만수무강을

에서 조선은 멀고멀어도

기쁨의 환호소리 력력히 들려오네

위대한 주체의 타수 만세

그이 업적 세세년년 빛나라

산천초목도 기쁨에 설레이네

우리모두 조선인민과 함께

그이를 주체의 타수로 칭송하며

조선의 소리높은 웨침 듣노라

오늘도 래일도 우리의 목표는

주체를 향하여 전진하는것

(필자는 애급 까히라에 있는

조선문화회관 관장)

## 그이는 강철의 령장

원스톤 오릴료

패기와 열정

풍부한 경험을 지니시고

주석의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탄생 50돐을 맞으시여라

조선은 알고있다네

인민의 령수로 되신 그이

조국통일의 숭고한 위업 위해

인민을 령도하시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백배로 강해지셨음을

조선은 잊지 못하네

반세기에 걸친

생의 력사 빛내오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

**김정일** 동지의 업적을

전투의 불길속에서 탄생하시여

투쟁속에서 성장하신

그이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조선을 이끄시며

21세기의 입구에서

거창한 투쟁을 벌려나가시네

강철의 령장 **김정일**

그이께서는

불패의 신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주석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을 확신성있게 이끄시네

드림없는 승리로

금강산노을처럼 빛나는 그 최후승리로

(필자는 베루 리마 썬 마르꼬스 국립종합대학

교수이며 시인임)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반세기가 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더 잘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 금보다 값있는 혁명소설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장편소설들치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란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자애로운 사랑속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도 총서작품의 성과작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초판을 친히 보아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선을 생활적으로 일관성있게 보여주지 못하고 작품의 종자를 심화시키지 못한 부족점들을 일일이 깨우쳐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안산아동단원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와 《민생단》 보파리를 불태워버리신 이야기들이 후날 것처럼 생활적인 진실성과 철학적인 심오성, 품격적인 감화력을 가진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부각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작품의 행에 맞게 수령님의 령도선을 생활적으로 그리도록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지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총서창작을 지도하시면서 작가들로 하여금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충실할것을 거듭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작가들이 목격하지도 체험할수도 없었던 당대의 력사적사실을 생동하게 형상할 방도를 빛나는 예지로 밝혀주시였다.

비록 목격하지 못한 사실이지만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감동되어 형상적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이 환상을 통하여 그 력사적사실을 실지있는 일처럼 진실하게 그릴수 있다고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

그이의 가르치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작가들은 장편소설 《백두산기슭》 창작실천을 통하여 온심장으로 깨닫게 되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님께 커다란 만족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아주 잘 썼다고, 제일 잘 썼다고 분에 넘치게 치하해주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대통령감도 나오는데 그는 실재한 인물이라고 하시며 소설을 사실에 기초하여 쓰니 내용이 명백하고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편소설에 쓴것처럼 무송에서의 혁명투쟁이 제일 어려웠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우리는 얼마되지 않는 무장대오를 가지고 일제놈들과 싸워야 했다고 하시면서 가슴아픈 일도 많이 겪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사실에 기초하여 썼기때문에 소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쓴 작가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전달하고 소설을 아주 잘 썼다고 칭찬하여주어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인 대작인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세상에 나온것은 우리의 혁명문학발전에서 일대 경사였다.

소설은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전례없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관련하여 주신 교시가 계신 얼마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좋은 소설을 쓴 작가들을 다시금 치하해주시였다.

한없이 겸허하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이 당의 방침을 받들고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하시

면서 이번에 위대한 수령님의 감사와 치하를 받은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을 표창하여야 하겠다고 따듯이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작가들이 사회적의의가 있는 소설을 많이 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작가들이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데서 제기되는 진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들고나와야 하며 그에 옳바른 대답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혁명화과정, 혁명적세계관이 서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 창조문제에 대하여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을 형상하려면 의의있게 감동적으로 잘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문학작품의 예술적형상성을 높이는 문제에 계속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혁명문학전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가져오기 위한 창작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얼마후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나타나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높은 치하를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82년 1월 당중앙위원회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지도하시면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눈물없이 읽을수가 없다고 하시며 소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어제밤에도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마저 읽느라고 잠을 얼마 자지 못했다고 감명깊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준엄한 전구》가 거둔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준엄한 전구》에는 혁명적동지애, 명령에 대한 무조건성, 고난을 극복하는 정신, 군민일치, 반제민족통일전선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술적으로 형상되었기때문에 인민군인들이 그것을 읽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들이 장편소설 《백두산기슭》과 《준엄한 전구》를 읽으면 혁명의 량식을 풍부히 하고 혁명을 하겠다는 신심을 더욱 가지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보다 못한 소설들을 보시고서도 자신께서는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처럼 좋은 소설들을 보면 누구나 혁명을 할 굳은 신심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설책을 많이 출판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이 이 책들을 더욱 광범히 읽을 대책을 세워주시면서 혁명적인 소설책들은 금보다 훨씬 값있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혁명소설이 금보다도 더 값있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

신임이면 이보다 더 큰 신임, 영광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데 있겠는가.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접하여 솟구치는 감격과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 행복하고도 감격에 넘친 시각 작가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이 영광과 행복을 마련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로 달리였다.

오늘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이 어찌 그것을 쓴 작가들의 공로에 한한 일이겠는가.

작가들이 쓴 작품들은 머리속에서 생각해낸것도, 꾸며낸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혁명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헤치시며 걸어오신 빛나는 혁명력사와 그 길에 쌓아올리신 만대에 길이 빛날 혁명업적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혁명소설에 최상의 높이에서 정중히 모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세심한 지도가 있기때문이었다.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후에도 총서《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 《봄우뢰》, 《잊지 못할 겨울》 등 수많은 장편소설들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창작해낼수 있었다.

## 새 장수의 예언

전라남도 고흥반도의 천등산기슭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여기서는 늙은 량친을 모시고 만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있었다.

아홉형제의 막내로 태어난 만식이는 수두룩하던 형들이 모두 《징병》이나 《징용》에 끌려가다나니 그가 운신 못하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요새는 만식이마저 늙은 부모님들만 남기고 천등산 수림속에 몸을 숨기고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때는 1945년 초봄이라 망하여가는 일제는 조금이라도 제 목숨을 더 부지해보려고 마지막 발악을 다하고있었다.

조선의 남녀청년들을 모두 전쟁터로 끌어내다 못해 이제는 학생들과 녀성들까지 《학도병》이요, 《녀자정신대》요 하는 명목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그때 만식이한테도 《징병》령장이 왔던것이다. 형들덕에 산골에 살면서도 멀리에 있는 신식학교에 다녀서 글을 깨친 만식이는 남들보다 좀 세상일에 눈이 뻗었다.

한때 그는 가슴속에 청운의 뜻을 품고 무슨 《운동》인지 하느라고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밀려다니기도 했었다.

그런 만식이가 왜놈들의 대포밥으로 순순히 끌려갈수는 없었다. 그는 천등산속에 숨어있으면서 밤이면 내려와 잠깐 부모님들을 돌보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 마을에 반가운 소문이 돌았다.

백두산에 새 장수별이 솟아올라 삼천리를 밝게 비친다는것이였다.

이어 또 소문이 나기를 하늘에서 새 장수가 백두산에 내렸는데 그 장수는 세상만사를 다 통달하고 술법이 능하다고 하였다.

《백두산에 새별이 솟더니 또 장수가 내렸구나.》

《그 장수를 어떻게 하면 만나볼수 있을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들은 장수를 만나면 악착한 왜놈들이 언제 망하는지 그걸 알고싶었던것이다.

이 소문을 들은 만식이는 가슴에 불이 당겼다.

그는 날이 어둡자 집에 내려와 부모님들에게 새장수를 만나러 백두산에 가볼 의향을 터놓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굳은 결심을 듣고 꽤히 허락하였다.

《자고로 의기남아들은 나라를 위해 제 한목숨을 초개처럼 버렸거늘 네 이번 걸음은 젊은 시절 한때의 호기심으로 가는 길이 아니니라. 나라의 존망이 존각에 놓여있는 지금 언제 왜놈들이 망하는지 그걸 알아올 중임을 자진 맡고 떠나는 길

이니 어련하련마는 조금도 먼는 팔지 말고 곧장 갔다오도록 해라.》

《예!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만식은 부모님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그길로 백두산을 향해 떠났다.

만식의 앞길엔 처음부터 곤난이 막아섰다.

갑신년이 열구어놓은 대지에 을유년의 봄이 찾아왔으나 그에겐 언제 그 봄을 즐길 겨를이 없었다. 마을을 벗어난 그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길이 없는 산밭을 타고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두방산에 몸을 숨겼다가 백운산줄기를 타고 험한 숲속을 헤쳐가던 만식은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섰다.

걸음보다 마음이 앞선 그는 높은 산이건, 깊은 강이건, 낭떠러지건, 골짜기건 할것 없이 곧추 가서 조금이라도 길을 지르려고 무진 애를 썼다.

처음엔 쉬지 않고 뛰다싶이하였으나 얼마만에는 숨이 턱에 닿아 걸음발이 점점 떠지기 시작했었다.

만식은 골짜기를 뛰어내리는 벽계수에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고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머리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물을 흠칠넘도 하지 않고 또 걸음을 다그쳤다.

령서고원을 지나 험한 태백산줄기에 들어서니 어느덧 벌써 떠난지 열흘이 지났다.

그는 머리가 아프고 몸이 지쳤으나 묵묵히 산밭을 타고 걸었다. 무엇보다도 체혼자 깊은 산속을 걸어가자니 외롭고 적적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먼는 한번 팔지 않고 오로지 백두산을 향해 걸기만 하였다.

싱그러운 풀향기, 산새들의 우짖음, 산골물의 줄기찬 흐름, 울창한 숲속에 비쳐드는 햇빛, 나무가지사이로 바라보이는 달...

이 모든것은 그의 말없는 벗이였다.

태백산의 깊은 골짜기에 이른 만식은 가파로운 벼랑을 뚫아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짚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말았다.

《앗!》

깊은 나락속에 떨어진 그는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비몽사몽간에 무시무시한 어둠속에서 험상궂게 생긴 황천의 사자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 환각이 일어났다.

이어 희희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깨비들과 귀신딱지들이 달려들어 악착스럽게 살점을 마구 물어뜯으며 좋다고 떠들어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물! 물!》

안타깝게 물을 찾았으나 외진 산속에서 그에게 물을 떠다줄 사람은 없었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소슬바람이 불어오더니 만식의 얼굴우에 있는 나무가지를 흔들며 맑은 이슬방울을 후두둑 떨어뜨렸다. 그 이슬로 입술을 추긴 그는 간신히 정신이 좀 들자 몸을 움직여보았다. 별로 심하게 다친데는 없었다. 안간힘을 쓰며 일어나니 비칠거리기는 하지만 약간씩 걸을수가 있었다.

그가 몇발자국 걸으니 앞에는 가지마다에 싯누런 배가 주렁주렁 달린 큰 배나무가 보였다.

만식이 그 배를 따서 먹으니 꿀처럼 달고 시원한것이 허까지 넘어갈지경이었다. 그 배 한알을 다 먹으니 지친 몸에 힘이 점점 생겨났다. 조금있더니 온몸이 거뜨해졌다.

부지중 그는 지금이 봄인데 어떻게 익은 배가 열렸을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 배나무만이 아니라 다른 과일나무에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기 이 태백산골안엔 분명히 가을이었던것이다.

어리둥절해진 만식은 배가 고팠던지라 산열매들을 실컷 따먹었다. 그리고 피나리보짐에 배와 머루, 다래를 힘에 부칠 정도로 따넣고는 또 길을 떠났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태백산꿀짜기를 떠나 반나절도 채 못갔는데 단풍이 울긋불긋하고 열매가 주렁지던 가을풍경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산천엔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는 봄체절이 한창이었다.

꼭 무슨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피나리보짐안에 따넣은 배와 머루, 다래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걸 보면 꿈이 아닌것은 사실이였다. 만식은 북을 향하여 걷고 또 걸었다. 백두산이 가까와오면 울수록 산세는 점점 더 험하여졌다.

어느덧 그는 마식령을 넘어 북대봉산줄기에 이르렀다. 보짐에 따넣었던 배와 머루, 다래는 이미 떨어진지 오래 되었고 몸은 지칠대로 지쳤다.

그는 북대봉의 동굴속에서 하루밤 쉬어가려고 안에 자리를 잡았다. 원시인들처럼 동굴안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안에 마주 앉으니 일시에 피곤이 물러들어 그를 인차 잠에 폴아떨어지게 했다.

다음날 아침 오면서 얻은 묵은 강냉이이삭을 불에 구워 그것으로 대충 아침을 에우고난 만식은 또 길떠날 차비를 하고 동굴밖으로 나왔다.

어느쪽으로 갈가? 하고 그는 뜨는 해를 보고 방향을 가늠하였다.

그러던 만식은 갑자기 눈을 슴벅거렸다.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둘러보는 그의 얼굴엔 점점 놀라운 빛이 짙어갔다.

웬일인지 바람 한점 불지 않는데 나무들이 이

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하며 흔들거리는 것이였다. 마치도 어떤 거인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손으로 숲을 쓸어주는것 같았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얼없이 바라보던 만식은 언제까지나 이러고만 있을수 없어 또 걸음을 재촉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강을 건너 만식은 걷고 또 걸었다.

대덕산을 지나고 후치령을 넘어 퍼그나 시일이 걸려 그는 드디어 백두산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리명수근처에 가닿을수 있었다.

그가 리명수의 깊은 수림속을 걸어가는데 또 눈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릅드리 천년고목이 쓰러져 진대가 되었는데 바로 거기서 갑자기 향기를 풍기는것이였다. 그 진대나무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쓰러져있는 고목들에서 일시에 잎이 피고 꽃이 피어나는것이였다.

그것은 만식이 제눈으로 직접 보는동안에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 옛글에 있기를 천기에 변화가 생기고 자연리치에 기적이 생기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하였으니 아마 그럴 일이 있긴 있는가부다. 현대 그제 길할 일인지 중할 일인지 어이 알랴.)

그는 집을 떠나 여기까지 오면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보았다.

태백산의 이상한 가을, 북대봉의 저절로 누웠다 일어서는 수림, 리명수의 잎이 피는 천년고목... 우연한 일일까? 아서라, 자연의 기이한 변화는 다 천지조화의 탓이니 아마도 그것은 우리 백두산에 길한 별이 솟은데서 비롯된것이리라.

왜나라의 부사산에 흉한 별인 살별이 내려 기세등등하던 일본이 풍랑만난 쪽배신세가 되었으니 그것 또한 천지조화탓이 아니라고 뉘라서 말하랴.

만식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백두산쪽 하늘에서 장군별과 함께 새로 솟은 장수별이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저 별이 새로 솟은 다음부터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이 심상치 않은 일이지만 그 일들이 다 좋은일인즉 길한 일이 있으면 있었지 절대로 다른 일은 없으리라고 만식은 생각하였다.

백두산을 향하여 걷던 만식은 소백수가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호용한 룡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만식은 룡마를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장수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나 애써 찾고 찾았던가! 불철주야 삼천리를 걷고 또 걸은 지난날의 일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이 순간을 바라고 한생을 기다린듯싶었다.

만식은 롱마가 날아오른 장수봉으로 달려올라 갔다. 장수봉에서 내려다보니 아늑한 골짜기가 안겨왔다. 거기엔 자그마한 귀틀집이 몇채 보였는데 그것들은 별을 쌓아놓은 무지처럼 광휘로운 빛을 뿌리고있었다.

바다속의 롱궁인가? 하늘나라의 옥경인가?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집은 있을상싶지 않았다.

장수봉에서 얼없이 골안을 내려다보던 만식은 롱마울음소리에 펄쩍 정신이 들어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장수는 롱마를 타고 백두산을 넘나들며 무술과 도술을 익히고있었다.

장수의 왼손에는 팔척장검이 들려있고 오른손에는 십삼척장창이 쥐여져있었는데 그가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니 산천이 다 무너지는듯하였다.

장수가 어찌나 날쌔게 번개처럼 움직이는지 동서남북 그 어디에나 장수가 보이지 않는곳이 없었다.

이윽고 롱마가 봉우리에 내려 나래를 접자 장수가 말에서 뛰어내렸다.

만식이 있는곳에서 불과 몇십보 앞이었다.

그는 장수앞으로 황황히 달려가 땅에 넋적 꿇어엎디어 말씀을 올렸다.

《장수님! 신성한 성지에 함부로 발길을 들여놓은 이 미련하고 무례한놈을 용서하옵소서. 저는 남해바다가 고흥반도의 천등산기슭에 사는 젊은이인데...》

장수는 꿇어엎던 만식을 일으켜세웠다.

《이러지 마시고 찾아온 연유나 말씀하십시오.》

그는 장수께 찾아온 사연을 자상히 말씀드렸다.

만식의 말을 끝까지 들은 장수는 웃으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올해 여름엔 반드시 나라가 독립될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만식은 기쁘기도 하고 놀람기도 하였다.

기세등등하여 돌아치는 저 왜놈들이 이제 몇달 후에 망한다니 기쁨이 너무 커서 잘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아무렴, 백두산에 장군벌 하나 났을 때도 왜놈들이 당황망조하였는데 새 장수벌이 또 솟았으니 그럴법한 일이다. 압, 응당하구말구.)

이렇게 생각한 만식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마을로 되돌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장수가

《모처럼 먼길을 오셨는데 며칠 쉬면서려독이나 풀고 가십시오.》 하고 만류하시였다.

그렇지 않아도 호기심이 가득하고 아직 의문이 채 풀리지 않았는지라 만식은 별로 사양하지 않고 남아있겠다고 하였다.

그는 장수가 안내하는대로 어느 한 귀틀집에

자리를 잡았다.

만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의문이 점점 커지기만 하였다.

장수봉아래 소백수골안은 언제나 꽃향기가 가득했다. 자세히 보니 마가목나무에만 꽃이 핀것이 아니라 분비, 가문비나무에도 함박꽃같은 큰 꽃들이 피어있었다.

그런가 하면 봄과 여름, 가을 풍경이 한꺼번에 펼쳐져있었다. 그러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봄에 피는 꽃들도 피어있고 여름에 피는 꽃들도 피어있는가 하면 가을에 열리는 열매도 무르익어있었다.

만식은 어느날 저녁 장수가 들어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또 한번 깜짝 놀랐다.

장수가 책상위에 쪽무이지도를 놓고 무슨 작전을 하시는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만식이 가까이 간것도 모르고있었다.

열세쪽으로 된 쪽무이지도를 헤쳐놓기도 하고 그것을 한데 모아 다시 웅근 지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장수는 지도에 자기의 사랑을 다 쏟는것 같았다. 지도쪽을 하나하나 쥐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호- 입김을 불기도 하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만식은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옳지, 장수님이 저 쪽무이지도를 가지고 조화를 부리시는가!)

더우기 장수가 백두산이 있는 함북도지도쪽을 쥐시고 거기에 입김을 불자 더운 바람이 소백수골안에 불어오는것을 느낀 만식은 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태백산의 때아닌 가을, 북대봉의 누웠다 일어서는 수림, 리명수의 일이 피어나는 천년고목... 이 모든 조화는 분명 장수가 일으키는 천지조화로 여겼다.

이때 어둠던 소백수골안이 갑자기 대낮처럼 밝아졌다. 보매 장수가 밝은 등불을 쪽무이지도에 가까이 가져다대었던것이다.

등불을 지도가까이 가져다대면 온 나라가 밝아지고 멀리하면 다시 어두워지곤하였다. 장수의 재주는 참으로 변화무궁하였다. 장수가 지도쪽을 어루만지면 숲이 누웠다 일어서고 장수가 입김을 불면 계절이 바뀌는것이였다.

만식은 다시한번 장수를 우러러보았다.

옛사람들이 위인의 관상을 볼 때 《룡안호두》(룡의 얼굴에 범의 머리)라 하였으나 백두산의 새 장수는 태양과 같이 환하신 얼굴에 온 우주를 다 안을듯한 그윽하고도 영채도는 눈길만 봐도 거기에는 비할바가 아니였다.

만식은 더 지체할수가 없었다.

어서빨리 민족의 대경사요, 나라의 대통운인 이소식을 마을사람들에게 전하고싶었다.

만식은 장수를 찾아갔다.

《장수님, 이제는 마을로 돌아갈가 합니다.》

《아니 좀더 쉬시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돌아가느라면 또 두달은 넘어 걸릴터인데 그러다가 왜놈들이 망한 다음에야 마을에 소식을 전할가봐 걱정이 되어 그러니다.》

《그렇다면 가보십시오.》

만식은 장수의 바래움을 받으며 길을 떠났다.

웬일인지 돌아올 때는 날개가 돋친듯 쉼쉼 몇 곱절이나 빨리 걸어왔다.

백두산으로 찾아갈 때는 그렇게도 높던 산들이 돌아올 때는 키를 낮추었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져있었다.

(장수님이 천지조화를 부리시여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만식은 갈수록 장수님이 고마와 목이 메었다.

만식은 백두산을 떠난지 아흐레만에 벌써 지리산에 와닿았다.

이제 산을 내리면 고향마을이 얼마 멀지 않았다. 그래 좀 쉬었다 가려고 어느 바위크령에 걸터앉았다. 이때 어디선가 진한 향기가 풍겨왔다.

만식은 어디서 풍겨오는 향기인가 하여 일어서서 사방에 대고 코를 벌름거렸다. 향기는 어느 한쪽에서 풍겨오는것이 아니고 골짜기가 온통 향기로 가득찼다.

만식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골짜기를 둘러보았다.

바야흐로 여름이 시작된 때여서 여기저기에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그렇다고 그 꽃들에서 풍기는 향기는 아니였다.

향기를 폐부속으로 깊숙이 들이키니 온몸에 새힘이 부쩍부쩍 솟구쳤다.

(또 장수님이 쪽무이지도로 조화를 부리시구나.)

만식은 이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다그쳤다.

꼭 열흘만에 고향마을에 돌아온 만식은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온 마을은 기쁜 소식을 가져온 만식을 떠받들고 다녔다. 이제는 왜놈도 무섭지 않았다.

《웁거니, 천지조화는 속일수 없는걸세. 백두산에 새 장수별이 뜨더니 나라에 대통운이 텃네그려.》

만식이 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앉았다. 아니 앓던 사람같지 않게 씩씩 씩씩 걸어다녔다.

만식은 이내 마을 젊은이들 몇을 데리고 다시 백두산으로 떠나갔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을 뜨겁게 바래주었다.

그후 그들은 모두 백두산에 내린 새 장수의 부하가 되었다고 한다.

그해 여름 8월, 새 장수의 예언대로 우리 나라는 해방되었다.

정리 김우경

## 해빛아래 별빛아래

반생이 넘도록 조국을 잃고  
글쓰는 연필조차 모르던 내가 시를 쓰누나

언제든 붓을 들면 이 붓이 바로  
우리 수령님 해방된 조국의 첫 의정에 올려주신  
이 붓이 아니었으면  
나는 시를 쓸줄도 몰랐으리

새 조선의 첫 연필 난생 처음 손에 들고  
꿈만같아 랑불을 적시던 그 눈물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에 북받쳐  
사랑의 붓 가볍게 들수 없구나

뜻깊은 종자 알뜰히 골라 가슴 불태우느라던  
우리 지도자동지 나라일에 아무리 바쁘시여도  
연필도 모르던 내가 시를 쓴다고  
한술한술 기쁘게 읽어주실것만 같은 마음

그리고 붓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당의 은덕에  
머리우에 백발을 무겁게 얹은 오늘도

나는 나이를 잊고 시를 쓰노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시 한구절 한구절  
내 심장의 고동파도 같아  
잠을 자도 시를 안고 꿈을 꾸건만  
인정깊은 집사람에겐 오히려 걱정을 주었던가

웅큼한 손자녀석 부추겨  
긴 낡시대 손에 들려주며 내 손목 이끈들  
어찌 순간인들 손에서 붓을 놓으랴

그리고 붓을 믿어주시는 우리 수령님  
한자루의 붓에 만복을 다 담아주시고  
수령님의 높은 뜻 빛내이시는 지도자동지  
붓을 든 우리를 영원한 동행자로 믿어주시거니

진정 그 믿음이 있어  
연필조차 모르던 나의 운명이  
꿈을 안고 시를 안고 이렇듯 빛나누나!  
해빛아래 별빛아래!

신국봉

# 명제해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문예관은 주체의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문학예술을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주체의 문예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문예관이라고 할 때 문학예술을 어떤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어떤 입장에서 보고 대하는가 하는것을 말한다.

주체의 문예관은 사람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실로 사실주의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문예관이다.

주체의 문예관이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문예관으로 되는것은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체현하고있기때문이다.

력사발전의 매 시대는 문학예술앞에 그 시대에 상응한 요구를 제기한다. 따라서 력사적시대를 옳게 평가하는것과 함께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시대를 대표하는 계급의 문예관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 시대의 요구는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요구이다. 자주시대앞에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이룩하고 세계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할 력사적과제가 전면에 나서고있다.

오늘의 문학예술이 현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요구에 옳바른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창작가들이 주체의 문예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주체의 문예관을 튼튼히 세워야 수천년을 두고 착취계급에 의하여 부식된 온갖 반동적인 문학예술과 그 잔재를 말끔히 가셔내고 진실로 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문학예술을 건설할수 있으며 지난시기의 문학예술이 창조해본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인간전형,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여 사람들에게 인간의 참된 가치를 깨우쳐줄수 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혁명적신념과 용기를 안겨줄수 있다.

주체의 문예관은 또한 문학예술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서 로동계급적성격을 체현하고있다.

로동계급의 문예관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데 문학예술의 참다운 본성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르조아 문예관은 착취와 억압, 예속과 지배의 낡은 사회관계를 유지하려는 착취계급의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만큼 문학예술의 본성을 외곡하고 문학예술을 부르조아계급의 향락과 리윤추구의 수단으로 본다. 부르조아문예관은 문학예술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일신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극단한 개인주의와 패륜패덕을 고취함으로써 사람들을 황금의 노예로 전락시키며 인민대중의 혁명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 반동적작용을 한다.

주체의 문예관은 또한 문학예술에서 민족적특성을 구현할것을 요구하는 문예관이다.

매개 민족에게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족성과 그에 따르는 고유한 미감과 정서가 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거나 있어도 서로 독특하게 구별되는 민족성은 매개 나라 인민의 생활양식과 언어, 관습, 세태풍속 같은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민족성은 사람의 문화정서생활에서의 차이를 낳게 하며 자기 민족의 특성에 맞는 미관을 형성하게 한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그 나라 인민의 민족성과 민족생활을 옳게 반영하였는가, 형상에 민족적인 맛이 있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된다고 볼수있다.

우리 인민에게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이 있다. 아무리 종자가 좋고 사회적문제성이 있는 작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게 형상되지 못한것이라면 쓸모가 없다.

주체의 문예관에서 근본핵을 이루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주체의 문예관에서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

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본다.

주체의 문예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름다운것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주체의 문예관의 견지에서 볼 때 아름다운것이란 자주적인간의 생활과 투쟁이다. 사회적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인것만큼 그것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자주적인간의 생활보다 더 아름다운것은 없다.

주체의 문예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창작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주체의 문예관은 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 사색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의 문예관을 바로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적문예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면 창작에서 주체를 세우고 문학에서 인간학적본성을 옳게 구현해나갈수 있으며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사상성과 예술성을 조화롭게 결합시켜나갈수 있다.

주체의 문예관을 바로세우기 위하여서는 주체적문예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으로 무장하여야 창작에서 종래의 낡은 틀과 기성관념에서 벗어나 자주시대 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실천적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주체의 문예관을 바로세우기 위하여서는 주체적문예활동방법의 본질과 요구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사업하고 창작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적문예활동방법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문학예술 창작과 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건설하자면 문학예술에 대한 사상과 리론을 가져야 하며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지도리론과 방법론을 세워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도 당의 지도를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지도를 성실히 받아야만 문학예술을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이 구현된 주체적인 문학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시킬수 있다.

주체의 문예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은 붓을 놓는 마지막순간까지 한생을 두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의 문예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임으로써 시대의 기수, 인간정신의 기사답게 자신을 열렬한 애국자,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 이 샘물 마시면...

박인식

더위를 막자고 마시는것 아니라네  
갈증을 덜자고 마시는것 아니라네  
백두밀영고향집을 찾아온 답사자들  
저저마다 마셔보는 이 샘물

마시면

물위에 비낀 정일봉의 기상으로  
온몸에 새힘이 뻗칠것만 같아

정녕 이 샘물 마시면

우리 당을 받드는 전사의 량심

티한점 낄세라 씻어줄것 같아

너도 한고뿌

나도 한고뿌

생각깊이 마셔보는 이 샘물

아, 백두밀영고향집의 맑은 샘물은

당을 따라 천만리에 지치지 말라고

우리 가슴 적셔주는 생명수라네

그 길우에 우리 심장의 고동을 높여주는

혁명의 줄기찬 피줄기라네



## 높이솟는 탑

최성진

주위는 조용하다. 이상하게 조용하다. 여기가 어데인가? 내가 왜 이르고있는가? 하면서도 몸을 움직이고 싶지는 않다. 마음은 평온하다. 따스한 기운이 심신에 스며들어 온몸이 녹작지근하다.

주옥섬은 이 고요가 좋았다. 고요는 오래전부터 습관된것이런듯싶었다. 그런데 사실상 세찬 바람과 번잡한 소음속에서 흘러가는 설비조립련 합기업소 지배인의 드바쁜 생활에 이런 고요의 순간이란 좀해서 차례지지 않는것이였다. 깃털마냥 피부에 부드럽게 와닿는 고요, 해별, 따스한 가을날의 들우에 누워 한가로이 동상에 잠겨보는 듯한 상쾌한 안정감... 심신을 끝없이 말기고만싶은 이런 고요의 순간이 언제 있었던가?

옥섬의 눈앞에는 산촌의 자그마한 호수가 떠올랐다. 기슭의 화려한 단풍숲과 명상에 잠기다가 조으는듯한 잔잔한 수면도 그리고 검푸른 물마루 위에 떠있는 수증기덩어리들도 온통 정지상태에 있는 산촌이다.

그것은 어느 미술가의 환상화도 아니였다. 옥섬이 한창 피가 뛰던 로동청년시절에 큰아버지가 사는 먼 산골에 가서 본 호수가였다. 큰아버지는 사철 고요속에 묻혀있는 호수가의 회색 기와를 올린 아담한 독채에서 살며 풍성한 숲을 지켜오는 산림보호원이였다. 말하자면 자연의 성실한 《수호신》이였다.

그때 주옥섬은 평양의 이름난 인민예술가까지 내려와 목으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갔다는 산촌 풍경이며 계곡에서 캐온 더덕타래같은것들이 처마에 걸려있는 그 인정 후더분한 큰아버지네 집에 인차 싫증을 느껴버렸다. 고독때문이였다. 고독은 젊은 그의 마음을 무한정 쓸쓸하게 만들었던것이다.

옥섬은 그곳에서 열흘을 보내기로 했던 휴가기 일을 닷새도 채우지 못한채 건설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다정한 로동친구들의 익살이 있고 투박한 동주전자며 주물소재로 깎아만든 채털이조차도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작업반의 휴게실에 휴가배낭을 내려놓자 적막한 산촌의 고요는 그의머리속에서 연기마냥 홀 날려가버렸다.

후날 주옥섬에게 그 호수가의 고요가 투명한 연보라빛으로 채색되어 떠오른적이 있었다. 그것은 옥섬이 로동생활과 작별하고 인민경제대학을 나온후 과장이라는 인생궤도의 《간이역》을 지나 건설의 한개 《군단》을 책임진 《사령관》이 되어서이다.

건설기업소 지배인의 일이란 얼마나 번잡한것

이라. 한순간도 맘편히 사색할 여가가 차례지지 않는다. 온종일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지시를 주어야 하며 많은 회의들에 참가해야 하며 일을 두고 걱정을 해야 한다. 수표 하나라도 생각없이 건성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배인이기때문이다.

사람단련에 지치고 일에 들볶이우다가 밤늦게 자리에 누우면 어떤날에는 인차 잠들수 없다. 산같이 밀려있는 일감들을 두고 걱정도 하며 다음날의 계획도 세워봐야 하는것이다.

바로 그럴 때마다 큰아버지가 사는 먼 산촌의 호수가가 잠깐씩 생각나군했다. 다문 몇시간이라도 그 고요한 기슭에 누워 따뜻한 상념의 세계에 잠겨봤으면 하는 공상비슷한 생각이 일어나군했다.

그런데 이 고요-정말이지 부드럽고 기분상쾌한 이 고요가 어떻게 되어 나한테 찾아왔는가? 어떻게 되어 나는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것인가? 폭풍이 지나간뒤의 따스한 별발에 알몸뚱이를 쪼이는 듯한 이 맘편함은 어찌된 일인가? 마음조이던 불안은 어디로 갔는가?

가까운곳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조용 조용 속삭이는 말소리다. 귀에 익은 목소리이다. 진액이 새여버린듯 김빠진 저 목소리, 그것때문인지 마음에 들지 않던 저 목소리... 문득 한 인간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사과를 한입 으썹 베어물고 와삭와삭 씹는 모습이다.

그가 사과를 씹는 모양이란 우습다. 도무지 사과의 향기로운 맛을 감각하지 못하는듯한 성급한 동작이다. 그저 습관적으로 사과를 씹을뿐 정신은 일에만 가있는듯하다. 사과를 씹을 때마다 보철을 한 가운데 이발하나가 유표하게 드러난다. 광대뼈가 약간 두드러진 그의 커다란 얼굴이 어찌보면 그 부러진 이발자리로 하여 사나울사해보인다.

그는 강웅기이다. 일년전에 작업반장이 된 3조립직장의 젊은이이다. 그가 지금 가까이에서 누구와 이야기하고있다. 저 투박하고 김빠진 목소리가 누구를 위해 저렇듯 살뜰해졌는가. 영웅적이라구? 희생적이라? 저 사람이 저런 요란한 말들을 좋아하는가. 하긴 젊었으니까. 젊었을 때는 누구나 요란해지기를 좋아하지.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지 않는다.

무아몽중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위급한 순간에 한몸을 내대여 그 어떤 막대한 재부

를 지켜낸 위훈의 창조자였다. 강웅기청년은 그 사람의 영웅성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주옥섭은 정신이 맑아지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탑》이며 《태풍》이며 《지배인동지》며 하는 말들이 차츰 주옥섭을 놀라게 했다. 저 강웅기반장이 다름아닌 이 지배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지 않는가! 내가 무슨 영웅적위훈을 세웠단말인가?

옥섭은 의식을 잃은채 망각하고있던 일들이 하나둘 뇌리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울부짖던 무시무시한 바람소리, 황급히 부르짖는 당황한 사람들의 웨침소리, 천방지축 달려가는 사람들의 형체... 그런속에서 본 강웅기의 모습이 생각났다. 태풍에 날려가지 않으려고 강철사다리의 란간을 꼭 그럭지고있던 그의 모습이였다. 그를 잃는것만 같아 가슴조이던 생각을 하면 지금도 속이 얼어드는것 같다. 그 강웅기가 오히려 이 지배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지 않는가.

그것은 지난밤의 일이었다.

×

옥섭은 평양에서 진행되는 정무원회의에 참가하고있었다. 나라의 중요건설대상들을 맡은 단위책임자들과 기간공업부문의 적지 않은 지배인들이 방청으로 참가한 회의였다. 중요한 경제문제들이 토의되고있었다.

회의에 참가해보니 옥섭은 어깨가 더욱 무거워왔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고 해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태가 주옥섭이네 기업소가 맡은 xx화학공장 확장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낼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전국도처에서 차판으로 실타래와 쌓이는 설비들이 옥섭의 눈앞에서 얼른거리였다. 그것들을 제날자에 속속 조립해야 완공기일을 보장할수 있는것이였다.

휴식이 선포된 다음에도 옥섭은 이런 생각에 자리를 뜰념을 못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는 즉시로 내려가 소집해야 할 단위책임자들의 협의회내용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것은 직장장들과 작업반장들, 돌격대대장들과 오랜 기능공들까지 참가할 류례없는 규모의 협의회로 될것이였다. 협의회에선 일을 늦잡는 단위들에 된 추궁도 하고... 아니, 지금 일부러 늦잡는 단위들이야 없지. 대책을 세워야지. 걸린 고리들을 놓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보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해. 현실성이 중요한것이다.

옥섭은 어느새 휴식이 끝나고 회의장이 정돈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에 옥섭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옥섭은 조금전에 출연한 사회자가 좌중에게 무

슨 심상치 않은 말을 했다는것을 느끼였다. 그가 《태풍》이 어쩐다는 소리를 한것 같은데 옥섭은 자기 생각중에 그만 스쳐버린것이였다.

《이자 사회자가 뭐라고 했소?》

옥섭은 옆사람을 돌아보며 슬그머니 물었다.

《태풍이 온다요.》

《태풍이?》

옥섭이네 이웃인 화학건설련합에서 온 다혈질의 얼굴 너부죽한 지배인이 이상한 눈길로 마주 바라보더니 로인처럼 중얼중얼 말했다.

《기상수문국에서 중앙예보연구소 소장이란 사람이 직접 통보해왔다고. 오늘밤 우리 나라 공해상으로 강한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영향이 서해안내륙지대에도 미칠수 있으니 공장, 기업소들이나 농촌들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말이요. 고마운사람들이지. 그저 바람이 한줄기만 지나가도 걱정들을 해준단말이요.》 그래서 사회자가 서부지구에서 온 단위책임자들은 태풍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먼저 자리를 떠도 된다고 했다는것이였다.

옥섭은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규칙적으로 명멸하는 장식등의 불빛이 퍼져가군하는 뽕안 하늘을 바라보며 두고온 건설장을 생각했다. 석포벌에 널려있는 건설장의 요소요소를 손금보다도 더 환하게 꿰뚫고있는 옥섭이였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작업대상들에서 태풍피해를 입을만한것이란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해왔다. 무엇때문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초초했다. 누군가 불안의 조짐을 귀띔하는것만 같았다.

회의가 끝나기 바쁘게 빠져나온 그는 급히 전화로 기업소를 찾았다. 중간교환대들을 거쳐 인차기업소가 나왔다. 귀에 익은 처녀교환수의 목소리가 수화구에서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내 지배인이요. 수고하누만!》

《어마나! 지배인동지예요?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어떻게...》

《동무, 이제 곧 3조립에 대라구.》

(어째서 3조립을 찾았담.) 옥섭은 생각했다.

《3조립, 3조립...》 바빠 찾는 교환수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앵앵거리였다. 차츰 처녀의 목소리에는 야릇한 애원기가 섞이기 시작했다.

옥섭은 얼굴에 손목시계를 보고나서 곧 실망해버렸다. (이런 밤에 현장사무실에 누가 있을라구.) 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는데 마침 교환수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쾅-울리였다. 녀교환수에게 누구든지 불러내는 신비의 비결이 있는듯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현장사무실이 나온것이다.

《여보십시오.》 3조립의 어정쩡한 대답소리.

《밤에 수고합니다. 동문 누구요?》

《나 영힙니다.》

이런, 직무를 말해야지. 흔한 이름이 영희인데 어느 영희란말인가? 옥섭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3 조립직장에 배치되어간 애송이 처녀패를 생각하고 혼자 빙긋이 웃었다. 그는 너그러워졌다.

《영희, 내 말을 들으라구. 거기 사무실에서 탑구역이 보이지?》

(탑이라구? 내가 왜 하필 탑구역을? 그래, 거기 강웅기와 아침에 무슨 일이... 그래, 그래, 그런 일이... 그러니 내가 그럴때문에...)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생각에 골몰하는 그의 특이한 모습이...

영희라는 처녀의 애어린 목소리가 수화기 안에서 앵앵거리었다. 강웅기의 모습은 사라졌다.

《보여요. 지배인동지, 왜 그러나요? 가열탑두보이구 변성탑, 정류탑두요.》

《동무, 그건 말구 가운데 늑혀놓은거 있지? 새로 세우려고 조립해놓은거말이요.》

《탄산가스흡수탑말이요? - 지금 세우려고 그래요.》 처녀는 흔연히 말했다.

《뭐요?!》 옥섭은 놀라며 부르짖다싶이했다.

《왜 그러나요, 지배인동지. 거기선 지금 준비작업 이 한창이예요...》

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여전히 태연한 그 목소리에 옥섭은 화가 났다. 애송이처녀가 자기를 조롱하는듯한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속에선 한순간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그는 창황중에 송수화기를 짝 부르짖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공연히, 그래 공연히 가능성따위소리를 했지. 강웅기 그 사람을 모험할 생각을 못하게 그때 놀러왔어야 했지. 지배인이란게 젊은이들과 한동아리가 되어 놀아났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영희, 지금 당장...》

(중지하라고 말해야지. 아니, 중지한다? 지금은 건설장이 그 탑을 지켜보고있을테지. 그런데 정말 태풍이 들이닥친다면!)

《지배인동지, 왜 그러나요? 지배인동지...》

《이제 지배인이 내려가지, 동무, 그전에 작업을 다그쳐야 한다고 전하라구. 태풍이 지나가!》

《뭐라구요? 지배인동지... 지배인...》

쾅쾅한 목소리가 다급히 진동판을 울리었다. 젠장, 태풍소리를 공연히 해가지고 처녀를 놀래웠다니까. 처녀동무, 놀라지 말라구. 일은 다 잘돼. 처녀도 탑이 빨리 일어서길 바라지? 그러니 탑은 일어서게 된다니까.

옥섭은 작업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릴수 없는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다른 때라면 무조건 중지시켰을것이였다.

승용차는 어둠에 휩싸인 수도의 교외를 최속으로 달리고있었다. 배여놓은 강냉이무지들과 버가

한창 영어가는 논판들이 전조등의 강렬한 불빛에 드러났다가 사라지곤했다. 차안은 한증칸처럼 달아올랐다. 유리를 내리운 차문으로는 무더운 공기가 확확 쓸어들어왔다.

대지는 고요속에 묻혀 아직은 기척이 없다.

파아란 계기등의 불빛아래에서 속도계의 바늘이 100을 넘어서며 떨고있다.

승용차는 이제 뒤시간 남짓이 달리면 석포땅에 가닿을것이다. 더 빨리 갔으면! 정말 태풍이 우리한테까지 미칠까? 이밤을 무난히 넘길수 있다면...

눈앞에는 용을 쓰며 돌아가는 대형권양기며 골머리가 서서히 들리는 탑의 동체가 떠오른다. 뽕뽕하게 행거진 쇠바줄의 째새기들에서 기름이 타는 뿌지직소리가 들리는듯하다. 옥섭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생각은 또 강웅기에게 미치였다.

(내가 저 강웅기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던가?)

어느해 설날을 앞둔 밤에 건설장의 기증기운전공으로 일하는 누이동생 옥선이가 뜻밖에도 고주망태가 되어버린 한 젊은 친구를 부축해가지고 옥섭의 방에 들리었다. 젊은 친구란 옥섭이 설비조립장에서 꽃났이나 익힌 청년이였다.

《너 정신있니? 밤중에 그따위 술망태기너석을 어따 끌어들여?》

금시 사무실에서 나와 자리에 누우려던참인 옥섭은 화가 나서 온통 땀에 젖어 초체해진 누이동생을 밖으로 끌어내다가 꾸짖었다. 옥선은 그에 아랑곳없이 알맞은 소리를 했다.

《그럼 술취한 사람 얼어죽으라고 밖에 놔둬야 좋겠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다 자란 처녀가 그게 뭐냐?》

《어째서요?》

《남들의 눈에 띄면 어찌겠나말이야. 이 넓은 건설장에 총각이 그런 술망태기밖에 없다면?》

《호호... 술망태기가 뭐예요. 그동문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흠.》

화나는 일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어쨌던 옥섭은 술에 곤드라진녀석을 침대에 재워서 깡다움에야 보내야 했다. 그날밤 맹랑한 일로 잡자리를 빼앗긴 옥섭은 사무실에 나가 새날을 맞았다. 물론 그 친구가 술에서 깨어나면 단단히 비판을 해야겠다고 별려두었다. 아침에 자기의 방으로 올라간 옥섭은 그를 만나지 못했다. 청년은 새벽에 달아났던것이다. 옥섭은 인차 그 일을 잊어버렸다.

옥섭은 후날 그 청년이 연공반장으로 된 다음에야 그가 그때 《고주망태》가 되었던 사연을 알았다. 옥섭이 잘 아는 한 오랜 로동자가 작업장에서 만나 새로 반장이 된 강웅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던끝에 지나간 일화를 들려주는것이였다.

《망년회에 모여앉아 모두 기분이 흥했는데 한 친구가말이지요. 구석타리에 떨어져앉아 사과만 먹는 그에게 <술식잔도 못하는 친구니 건설판에서 영웅이 되긴 틀렸지.> 하고 객담을 했지요. 그걸 강웅기 그 사람이 모욕으로 받아들였는지 국사발에 대평술 한병을 말짱 부어선 단술에 벌컥 벌컥 마셔버렸지요. 그리구선 <마신다면 마시는 거야! 하지만 술이 영웅을 만드는데 아니란말이요!> 하질 않았습니까. 그바람에 그 친구 주량이 커가지고도 우정 안한게라고 알았는데 웬걸요. 허, 글썄 다음날 보니 가운데 이발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출근하질 않았겠습니까.》...

승용차는 여전히 최속으로 달리였다. 구룡진 포장도로가 마주 다가오고 길옆의 키높은 방울나무들이 휙휙 지나갔다.

자그마한 다리를 넘어서자 리정표가 또 하나 나타났다. 이제 한시간만 달리면 기업소에 가닿을것이다. 좀더 빨리 갔으면! 옥섭은 생각했다. 그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던가?

...따스한 가을날, 옥섭은 갈아엎은 논판처럼 울퉁불퉁한 건설장의 구내길을 좀 정리해야겠다고 관할구역의 한 일군을 만나 책망을 하고나서 탐구역쪽으로 향했다. 작업장을 얼마쯤 두고 옥섭은 걸음을 멈추었다.

대형설비들을 들어올리려고 설치한 권양기의 권양고리에 사과배낭 하나가 매달려 뚱뚱 떠오르고있었다. 아스라한 철골우에서 하얀 안전띠를 멘두 청년이 사과배낭을 받아내리려고 위태롭게 몸을 내밀며 뭐라고 소리쳤다. 지원물자로 들어오는 사과를 저런 방법으로 올려다 먹는모양이다. 하긴 사과를 먹으려고 그 높은곳에서 내려올수도 없는일이다. 그러고보니 설비조립공들이란 높고 위태로운곳에 생활을 두고있는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느닷없이 가슴이 찢듯해왔다.

옥섭은 별안간 깃드는 생각에 두눈을 습벅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가다가 다시금 걸음을 멈추었다. 왕왕거리며 돌아가는 권양기결에서 제동간을 꼭잡은 누이동생 옥선이 고개를 들고 철골우의 한 점을 응시하는것이였다.

《기계를 운전하다말고 뭘하느냐?》

옥선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돌아다보았다. 몹쓸짓이라도 하다가 들켜난듯 옥선은 얼굴이 붉게 피어났다. 시원스레 큰 두눈에는 까닭모를 물기가 고여 반짝이였다.

옥섭은 누이동생의 눈길이 닿아있던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청아한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오르는 황갈색의 용접연기, 그쪽에서 들려오는 호각소리...한 젊은이가 철골모서리에 서서 방금 올려놓은 가스탱크의 조립을 지휘하고있었다. 청년은 어마어마하게 큰 가스탱크에 위압되어 형편없이 작아보이였다. 이따금 청년은 손에 쥔 불은 사과를

입으로 가져갔다. 사과를 씹으면서 탱크의 고정작업을 주시하고있었다. 방금전에 권양고리에 매달려 《비행》한 사과일것이다.

청년의 모습은 파아란 하늘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원, 사과를 달게 먹을 참도 없담.)

옥섭은 그 청년이 누구라는것을 알았다. 《대평술사건》이 떠올랐다. 그는 새로 임명된 강웅기반장인것이다.

그날저녁 옥섭은 누이동생을 만나 그를 사랑하느냐고, 서로 약속이라도 있었는가고 물었다.

옥선은 굳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았다.

그한테서 뭘보고 사랑하느냐? 평범한 로동청년이지, 대평술 한병에 꼬꾸라지는 약골이지... 더우기 건설자의 안해란 일생동안 새고장으로 이사를 해야 하며 또 남편을 두고 때없이 마음을 써야 한다. 네가 그걸 알고 일생을 그와 함께 걸어갈 약속을 했느냐? 하고 물었다.

옥선의 풍만한 얼굴이 온통 잉결불처럼 타올랐다. 그것은 반발의 색조였다. 벌ча고 강렬한 누이동생은 이런 때에 그 성격이 용명되는 조각마냥 선명하게 드러난다.

옥선은 항변하듯 말했다. 물론 그 동무는 평범한 로동자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결함도 많아요. 하지만 오빠는 뭐 형님을 처음 사랑할 때 백프로가 다 좋아서 사랑한건 아니겠지요. 그것 보란말이예요. 모든 사람들에게겐 결점들이 제나름으로 있지만 사람마다 아름다움도 있는거예요. 그때문에 사람이란 아름다운 존재이고 서로 사랑하는것이예요. 그동무한테 결점이 많지만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점이 있어요 하고.

그것은 아마도 어느 소설책에서 뵈어낸 《생활철학》일것이다. 하지만 옥섭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중요한것은 누이동생이 한 로동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것이였다.

(누구에게나 결함이 있지만 아름다움도 있단말이지. 그게 중요한말이지. 강웅기에게도...)

그런데 그 강웅기가 지배인의 가슴속에 태풍을 휘몰아올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아침에 강웅기가 지배인을 찾아왔다. 사업상의 무슨 제기를 하려나했는데 전혀 왕청같은 용무를 말했다. 기업소본토배기인 오랜 연공출신으로서의 주옥섭동지의 고견을 들을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말했다.

(오랜 연공출신인 이 주옥섭의 의견?)

옥섭은 천천히 지갑을 더듬어 담배한대를 꺼내 물었다. 감회깊은 추억들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정말이지 젊은 연공시절엔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을 내 손으로 일떠세웠던가. 전후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일떠선 나라의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주옥섭의 로동의 땀과 지혜도 배여있다.

옥섭은 가슴이 달아올랐다. 고마운 눈길로 강

웅기의 번쩍이는 두눈을 마주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의견을 달라는지 말해보요.》

《지배인동지, 저 흡수탑말입니다. 통채로 조립 해서 세우자고 하는...》

그가 말하는 흡수탑이란 높이 90 메터에 자체 중량이 180 톤이나 되는 대형이다. 오전중으로 동체조립이 끝나는 그 거물을 일떠세우는 문제가 며칠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이미 일떠세운 탑들과 정류직장의 관들과 탱크들이 복잡하게 얹힌 비좁은 새잡에 무쇠거물을 일떠세워야 하기때문이었다. 자리가 협소해서 종래에 써먹던 주보식기중기를 들여앉힐수 없었다.

《음, 무슨 방법이 생겼소?》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탑은 세워야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강웅기의 말대로 방법은 간단했다. 비교적 넓은 공지에 위치한 탑의 끝부분에 자동차기중기 두대를 맞세워놓고 한쪽을, 다시 말해서 탑의 윗부분을 일정한 높이에까지 들어올린다음 별줄을 여러가닥 늘여서 넘어지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막으면서 현재 설치되어있는 권양기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

가능성은 있는 방법이였다. 현실성이 문제였다. 권양기의 능력이 딸려서 추락하거나 별줄조절을 잘못해서 탑이 권양중에 기울어지면서 방금 조립이 끝난 정류직장의 탱크들과 관들을 들이치는 사태를 빚어낼수 있는 것이였다. 그럴수 있는 일이었다. 더우기 이미 세워놓은 탑들과 정류직장 사이의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는가. 정류직장의 관들과 탱크들도 모두 그러하지만 그 대형흡수탑하나만도 얼마나 귀중한 설비인가. 거기에 들어간 귀중한 특수자재와 로력은 얼마인가!

《계산은 다 해보았습니다. 지배인동지.》 강웅기는 지배인의 속마음을 헤아려본듯 말했다. 《별줄은 동탈이 없게 예비선을 치면 되는거구요. 다만 권양기능력이 제한되어있는게 문제인데...》

《권양기능력이?》

《그렇지만 자동차기중기로 25 도까지 들어준 상태에서는 권양기의 힘으로 들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점을 극복할 때까지 권양기를 세우지 않으면 됩니다. 권양제동기가 견디여내기 바쁘니까요.》

《음.》 옥섭은 잠시 생각을 더듬다가 강웅기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보라구 반장, 자동차운전사들은 령길을 올라갈 때 예비출력이란 것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 예비출력이 있어야 뜻밖의 정황에 부딪치더라도 안전하게 처리할수 있기때문이요. 그 예비출력이 문제갈소. 도중에 무슨일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권양제동기도 그렇지 않소. 가령 일이 생겨 권양할 때 정전이 될수도

있거든.》

강웅기의 얼굴에 피기가 사라졌다. 동요하는가? 그렇게 쉽사리? 그러한 반장을 보느라니 옥섭은 짜증이 났다.

가능성! 하고 옥섭은 생각했다. 그렇다. 가능성은 있는 방법이다. 다만 그 《예비출력》이 정말이지 주옥섭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였다.

《너무 낙심하진 마오. 넌장, 동무가 생각은 바로했소. 원리적으로도 맞고 또 실지 우리도 그 비슷한 방법으로 해본적이 있소. 전후시기에는 물론이고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말이요.》

《그렇다면...》 강웅기는 하려던 말을 중단해버리고 고개를 돌려 지배인을 외면했다. 목대가 별절게 달아오르고 성난듯 씩씩거렸다. 그렇다면 지배인동지는 왜 우려합니까 하고 말하려 했을 것이다. 지금은 사색이 중요하지 않는가. 뽕뽕철한 리성이 필요한 것이다.

《반장, 가능성은 있소! 하지만 결심은 서두르지 말아야 해. 가능성이 그대로 현실성은 아니거든. 문제는 탑을 안전하게 세우는거요. 사소한 고리가 튀어서 엄청난 실패를 날을수 있소.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하오. 가능성 하나만 믿고 현실성을 무시하면 그건 모험이요.》

《아닙니다, 지배인동지!》 강웅기는 주먹을 들어 올리더니 책상을 힘껏 내리치며 재차 부르짖었다.

《아니란말입니다!!》

자기 지배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강웅기의 성난 모습을 옥섭은 침착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말하오.》

《수자는 파확인데 계산수치를 믿어야지요. 더구나 지배인동지자신이 그런 방법으로 해보기까지한 일인데 뭘 더 시간을 끌면서 타산해본단말입니다. 모두들 그런단말입니다. <될수 있다>, <대담하다>, <가능성이 있긴 한데 심중해야 한다>... 이런단말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결심을 못합니다. 결심을 하더라도 늦어지지요. 책임적으로 사고해야지요.》

《책임적으로 사고한다.》

《지금은 세계가 미증유의 속도로 발전하고있지 않습니다. 일꾼들이 똑바로 사고하지 않고 구태의연성에 빠져 국가의 리익을 외면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발전의 초속도에 편승할수 있단말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현실성은 우리한테 달려있는거지요. 그거라구 뭘 하늘에서 똑 떨어집니까. 우리가 한초라도 늦잡을 권리가 있는가말입니다. 그렇게들 사고하면 탑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지배인동지 !》

주옥섭은 자기가 이 젊은 반장을 너무나도 모르고있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물었다.

《무슨 학교를 나왔소?》

강웅기는 한순간 어정쩡한 기색이더니 약간 짜

증이 섞인 소리로 말했다.

《무슨 학교랄게 있습니까. 군대에서 제대되어 곧장 여기로 왔는데요. 공장대학엔 다닙니다.》

《제대군인이라... 하긴 그렇지.》

《제가 버릇없이 말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지배인동지.》

《아니, 말을 잘했소. 이 지배인을 정신이 들게 냅다 답새겼거든. 제대군인출신이 달라. 그래야지. 책임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소. 국가의 이익을 외면하면 그건 일군의 본색이 아니지. 우리 나라가 저 탐처럼 우뚝 솟아오르자면 매 개인들이 책임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해야해! 대담하게 해보소. 대담하게 말이요! 그리고 말이요. 이것도 잊어선 안되지. 우린 단순한 건설자가 아니라 인민앞에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요. 우리때문에 준공날자가 늦어지면 안되지.》

《알았습니다 지배인동지. 그거야 뭐...》

강웅기는 나갔다. 그가 사라져간 문밖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었다. 옥선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두 젊은것들이 공모하여 왔으며 옥선은 문밖에서 안의 동정을 엿보았던 모양이었다. 《흠.》 주옥섬은 기쁨인지 비난인지 자기로서도 모를 소리를 입밖에 냈다.

그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정적, 찌는듯한 더위, 어둠, 그속으로 달리는 승용차, 불안과 초조어린 두눈에 얼핏 나타났다가 사라지곤하는 푸른 리정표! 일이 이렇게 벌어지다니. 강웅기가 그렇게도 빨리 결심을 하고 일관을 벌려놓았던말인가! 태풍이, 그놈의 태풍만 덮쳐들지 않는다면!

초조할대로 초조해진 주옥섬은 승용차의 속도가 점점 굼퍼지는듯이 생각되었다.

×

...한계점을 넘기느라고 권양기가 아츠러운 소리를 질러대고있을 때 태풍이 들이덮쳤다. 무시무시한 굉음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태풍은 금시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솟구기 시작한 탑의 동체를 쳤다. 누군가의 우뢰치는듯한 함성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일시에 일어났다. 거대하고 묵중한탑의 동체가 태풍에 밀리면서 정류탑이며 가스탱크들이며 그물처럼 얽힌 관망을 답새겨 놓았다.

터져나간 가스런결관에서 시험중에 있던 수백기압의 탄산가스가 뿜어져나온다. 굼주린 악마의 혀바닥같은 파아란 불길이며, 사람의 손을 대면 거센압력에 구멍이 펴 뚫어질 소슬한 불빛이 보인다. 그래도 태풍은 탑체를 무자비하게 흔들어 놓는다. 드디어 가장 위구하던 순간이 닥쳐왔다. 권양기가 끝내 한계점을 넘기지 못하여 역회전을 시작한것이다. 탑이 가속도로 떨어져내린다.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어떤 힘으로도 탑의 추락을 막아내지 못한다. 한순간에 탑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광포한 태풍이 그우를 휩쓸어간다. ...

승용차가 갑자기 아츠러운 비명을 지르며 급정거를 하는바람에 옥섬은 악몽파도 같은 환각에서

벗어났다.

그는 언제 승용차가 석포천다리를 건넌으며 별관을 지나왔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옥섬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비슷한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들었다.

승용차는 탐구역 어구에 서있었다. 뿌연 불빛속에 마구 타래쳐오르는 먼지구름이 시야에 안겨들었다. 미친 승냥이무리마냥 향방을 대중할수 없게 돌아치는 먼지바람은 거대한 룡권현상을 방불케 했다. 그런속에서 벌줄군들의 고탍소리가 들리고 호각소리, 기계소리가 울려나왔다.

먼지타래가 꿈틀거리는 허공에 탑의 형체가 얼핏 나타났다. 그것은 흡사 우주세계에 군림한 미지의 적들을 향하여 발사준비를 하고있는 전대미문의 포신처럼 보이었다.

멈춰섰는가? 아니었다. 옥섬은 오랜 연공출신의 감각으로 무죄거물의 미세한 류동을 느끼고있었다. 36 미터 쇠바줄은 여러개의 복합차를 타고 사람의 육안에 알리지 않을 정도로 느릿느릿 감기고있을것이다. 탑신의 위치며 용을 쓰는 권양전동기소리로 봐서 아직은 최대부하상태에서 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울려오는듯한 저 호각소리는 어찌된것인가?

(젠장!)

옥섬은 한순간 굳어져버린 자신에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렸다. 세찬 바람이 입안으로 쓸어들어오고 몸이 휘청거려었다. 바람속을 헤엄치듯 허우적거리며 걸어가던 옥섬은 하마트면 쇠바줄에 걸려나 덩굴번했다.

가까이에서 권양기가 왕왕거리며 돌아가고있었다.

권양기의 제동간을 꼭 잡고선 옥선이 이발을 사려물고 탐조등의 불빛이 비쳐가는 자욱한 먼지의 공간속을 주시하고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누이동생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자 옥섬은 다시금 화가 났다. 반장이란 사람이 얼마나 미옥하면 연약한 처녀한테 권양기를 맡긴단말인가! 이게 뭐 사과배낭이나 올리는것과 같은 장난인줄로 아는가. 대평술 한병쯤 사발들이하는 그런따위 모험인줄로 아는가 하는 옥설이 속에서 게발끓듯했다.

《그사람이 어디 있냐?》

옥선은 듣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온 옥섬의 존재조차 못느끼는듯했다. 먼지로 가득찬 허공을 향하고있는 옥선의 눈에는 이슬이, 언젠가 정류직장의 철골우에 서있는 강웅기를 바라보던 그때처럼 이슬이 고여있었다. 엿비쳐가는 투광등의 하얀 빛발에 반짝이는 이슬을 보는 순간 옥섬은 가슴이 서늘했다.

《그사람이 어디 있냐말이다. 반장 그사람이!》

그제야 옥선이 고개를 획 돌리었다. 오빠의 시꺼먼 얼굴을 한순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던 옥선은 이윽하여 고개를 돌려 먼지가 타래쳐오르는 레의 그 공간속을 말없이 가리켰다. 한참만에야 그의 파리기레한 입술이 열리면서 애처로운 음절이 흘러나왔다.

《저기... 저기...》

《뭐라구?!》

성난 목소리가 옥섭의 입안에서 돌맹이처럼 날아왔다.

(그런 결심을 하다니! 태풍이 오는데 저기가 어디라구 올라간단말인가!)

옥섭은 허공을 올라다보았다. 더 묻지 않고도 모든것을 알수 있었다. 강웅기는 타래쳐오르는 먼지때문에 가까이 있는 정류탑과 이미 조립해 놓은 관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권양중에 있는 탑 위로 올라간것이다. 거기서 약속된 호각신호로 별줄군들을 지휘하고있는것이다.

먼지의 장막이 너울치는데 따라 거뭇한 탑의 형체가 아리송하게 나타나군했다. 강웅기의 모습은 알아볼수 없었다. 이제라도 권양기를 멈춰세울수만 있다면! 아니, 이 무슨 한심한 생각을 한담. 이 주옥섭이가 그런 결심을 한단말인가. 전후 천리마를 타고 수많은 강철기둥들과 탑들을 일떠세운 이 주옥섭이가 아닌가.

옥섭은 마치 표본한듯 꼼짝않고 서있는 누이동생을 향하여 《권양기를 바로 지켜!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말이다!》 하고 청높이 웨치고나서 탑쪽으로 달려갔다. 옥섭이 뒤에서 뭐라고 말했으나 바람때문에 한마디도 가려듣지 못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쳐들리고있는 탑머리를 향하여 사다리를 뚫아오르기 시작했다. 바람에 숨이 격격 막히었다. 옥섭은 자기가 도무지 탑의 어느 좁은 이르렀는지 알수 없었다. 철사다리의 디디개를 뚫아오르는 주옥섭은 숨이 가빠지고 발이 이따금 허공에서 허둥거리었다. 그는 안전란간에 의지하며 자기도 모르게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심연처럼 보이는 뿌옇한 빛의 나락속에서 먼지구름이 타래쳐오르고 그밑으로 바빠 내달리는 사람들의 형체가 자그마한 개미처럼 보이였다.

옥섭은 눈을 꼭 감았다. 그래도 주위가 산만무질서하게 빙글빙글 돌아가는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이제는 이 주옥섭이도 늙었는가? 다시는 위훈속에 살던 그 시절의 심리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조금만 더 올라가자. 이사람 옥섭이! 정신을 차리고 사다리의 칸살을 단단히 붙들라구. 그렇게 하지 않다간 태풍이란 날짐승이 자네를 덮쳐가네. 기운을 내라구. 저우에 강웅기가 있지 않나. 그사람을 도와야지. 그사람은 아직 어리단말이야. 그런데 임자는 경험많은 오랜 연공출신이구 더우기 지배인이 아닌가. 저우에는 강웅기와 함께 임자 지배인이 있어야 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탑머리에는 강웅기가 해낼수 없는, 지배인인 자기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것처럼 주옥섭에게는 생각되는것이였다.

주옥섭은 (조금만 더 올라가자! 더! 더!) 하고 속으로 부르짖었다.

갑자기 귀가 왕왕거리었다. 너방송원의 격동에 찬 목소리가 노호하는 바람에 실려 불덩이마냥 날아올랐다.》

《…태풍이 … 온다… 동요하라… 겁먹지 말라…이 시각… 주저하면 탑은… 탑은…》 걱정예 떨리던 목소리는 한순간 똑 끊어졌다. 바람소리, 고함소리… 흐느끼는가? 원, 방송원도 울다니. 그래,

겁을 먹지 말아야지. 이시각을 놓치면 탑은 영영 일어서지 못하구말구. 결사의 각오로 이 순간을 견디여내야지. 견디여내야 하구말구. 방송원, 걱정말라구. 탑은 일어서게 된다니까. 끊어졌던 방송원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진다. 가라앉은 목소리다. 하지만 황황 타번지는 불덩어리같은 목소리다 《… 어머니 …조국이…지켜본다!…》

옥섭은 가슴이 확 달아올랐다. 방송원처녀가 무엇때문에 흐느꼈는지를 깨닫자 목이 꼭 메여왔다. 어머니조국이 우리들을, 우리가 세우는 이 탑을 지켜본단말이지. 고맙다, 방송원동무! 그런데 팔다리가 왜 자꾸 떨리는가! 힘을 내야지. 기운을!

머리우에서 별안간 떨어져내리는 벼락치듯하는 소리에 주옥섭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지배인동지, 위험합니다! 발브! 발브가!》

강웅기의 목소리였다.

옥섭은 절망적인 사태를 예감하며 머리우를 올라다보았다. 투광등의 희미한 빛발속에 비죽이 드러난 앙상한 물체가 옥섭을 향해 가까와오고있었다. 정류직장의 철골사이로 빠져져나온 관망의 한끝에 고정나사를 채우지 않은채 걸어놓은 특수 발브의 돌리개였다. 조립이 끝난 고압관들의 액체통과시험을 해보느라고 립시로 걸어놓은 모양이였다.

옥섭은 인간의 목숨을 조롱하는듯 심술궂게도 천천히 육박해오는 거뭇한 쇠불이를 피발이 서는 눈으로 쏘보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말할너석들!》 옥섭은 발브돌리개를 걸어놓은것이 엄청난 잘못이거나 한듯 조립공녀석들에게 귀면 육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였다. 발브돌리개는 작업공정에 따라 거기에 걸려있을 따름이였다. 그것을 깨닫자 옥섭은 또 누구에게라 없이 화가 치밀어오르는것이였다.

6 단활차를 타고 엇사귀는 쇠바줄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것 같았다. 탑과 함께 상승하는 권양기쇠바줄이 저 발브돌리개에 걸리면 배관들을 들고일어날것이다. 파랑고 빨강고 노란 색칠을 한 관들이 모조리 부서지거나 휘어져버리고 파부하를 받은 권양기가 왕왕거리며 공회전을 하는 광경이 눈앞에 떠올라 옥섭은 다시금 살을 떨었다.

이제 1 분후에,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이 지나면 그 무서운 일이 저 보잘것없이 작고 투박스러운 쇠불이때문에 일어날것이다. 쟁쟁, 저놈의 물건짜는 꼭 저기에 붙어있어야만 한담, 설계쟁이들이 위치를 다른데 정하던가 하다못해 제작에서 오산을 하여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경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을, 아니 무슨 얼토당토않은 생각을 하는거야. 바람이, 이놈의 바람만 아니라면! 이제라도 바람만 잦아든다면 기적이 일어날수도 있겠는데! 원참, 한심도 하다. 하늘의 조화를 기대하는가. 이 주옥섭이 언제 그렇게 되였는가. 이름난 연공이였던 이 주옥섭이가 아닌가. 고난과 시련의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던 전후복구 건설의 나날에도 이 주옥섭이 하늘의 조화를 바라고 탑들을 세운것은 아니지 않았는가. 순간이,

한초한초가 웅근 한생과도 같이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또 지나간다. 옥섭은 그 한초한초의 흐름을 선명한 색조를 보듯이 의식하며 강웅기의 모습을 찾았다.

약 다섯미터우에서 탑의 안전란간을 쥐고있는 강웅기의 모습이 보이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탄 그가 마주치는 투광등의 빛발을 피하느라 애쓰며 발브돌리개를 원망에 가까운 눈길로 집요하게 붙들고있었다.

《지배… 인…동지 …》

《떨지 말라, 반장. 참새새끼같이. 용기를 내!》

《권양기… 권양기를 세우…》

《무슨 소리!》 옥섭은 그가 무슨 결심을 내리려 하는지를 알자 무섭게 소리질렀다. 《권양기를 세워선 안돼! 신호를 보내라! 좌측 벌줄을 당기게 해야지! 벌줄, 벌줄에!》

강웅기는 목에 건 호각을 손더듬하며 발브돌리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광풍의 무서운 소음에 짓눌린 예린 호각소리가 먼지의 회오리속에 휘말려든 대지를 향해 날아내려갔다. 탑의 무거운 류동이 감속되어온다. 벌줄을 당기는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밑에서 울려왔다. 그소리는 아득히 먼 다른 세계에서 날아오는것 같이 생각되었다. 옥섭은 초인간적인 긴장감으로 하여 굳어진채 애라는 목소리로 떠들거렸다.

《좀더!… 신호하라구!… 조금만…더!》

이제 10 초가 남았을게다. 아니 5 초후엔… 왜 탑이 이동하지 않을가. 안되겠다. 젠장! 이제 발브는 손을 뻗치면 손끝에 닿을만큼 가까이에 있다. 정류직장의 철골도 관들과 가스탱크들도 기껏해야 한메터나짓한 거리안에 있다. 그 한메터 사이에는 바람과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찬 까마득한 심연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도 뭇도 영원한 어둠의 자락으로 감싸버리려는 암흑의 나락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숙명적인 심연은 아닐것이다. 숙명적인 심연일수는 없어. 지금이야말로 누구든지 태풍을 맞받아 저 심연속에 뛰어들것을 시대가, 혁명이 요구하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일은 이 주옥섭이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저 광풍의 회오리속에는 주옥섭이만이, 이 지배인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 여보게 지배인, 자넨 명령만을 내릴줄아는 단순한 지휘관이기전에 나라의 번영과 당의 위력을 위해서라면 한목숨 두렵없이 태풍속에라도 뛰어드는 투사가 되고 충신이 되어야 하는거야. 자네 한목숨이 두려워 이 순간을 놓친다면 탑은 영영 일어설수 없게 되네.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우리 혁명이 한발자국 뒤걸음치게 되지. 자넨 붉은기를 들고나가는 기수가 되어야지. 자넨 지휘관이 아닌가. 자네가 태풍앞에서 겁을 먹으면 자네

위 《전사》들이 주저앉게 되네. 그러니 자, 뛰어들라구!

옥섭은 그 순간 비상한 결심을 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온 건너편 정류직장의 앙상한 철골을 향해 몸을 날리었다. 허공에 몸이 뜨는 선풍한 전율이 심신을 훑어내리는순간 주옥섭은 철골사

이로 빠져나온 철관을 그러안으며 발브돌리개를 발로 힘껏 걷어찼다. 특골형으로 생긴 그 등글고 판판한 쇠불이가 어딘가에 부딪쳐 쟁강 소리를 내며 먼지가 타래쳐오르는 아득한 심연속으로 떨어져내리었다.

머리우에서 강웅기의 다급한 웨침소리가 날아 내려왔다. 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발브손잡이가 걸려있던 빠죽나온 부위를 스치며 쇠바줄이 지나올라가는 순간 주옥섭은 온몸이 끝모를 미궁속으로 떨어져내리는듯한감을 느끼며 눈을 감아버렸다. 인간이란 얼마나 거대한 일을할수 있는것인가. 한순간에도 한생에 못지 않는 사업을 할수있는것이다. 주옥섭은 탑이 여전히 순조롭게 일어서고있음을 의식하는 순간에야 방금전에 겪었던 위험한 일들을 그리고 지금도 바람은 멎지 않았고 자신은 아스라한 철골무에 있다는것을 생각했다. 그는 가스관을 역세게 그러안은채 정신을 잃었다.

×

옥섭은 언제 광풍이 멎었고 언제 탑이 일어섰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철골무에서 자기를 안아내려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고요, 지금은, 부드럽고 포근한 고요만이 온몸을 감싸고있는것이다. 개울물이 조심조심 흘러가는듯한 저 속삭임, 고요를 깨치기 저어하는듯한 저 다정한 말소리는 조금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청춘남녀의 속삭임이 아닌가.

《동문 아직도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뭐 일없어. 그저 조금… 일없어.》

《동무가 거기 올라갔을 때 난 정말 속이 조마구만했어요. 탑이 쿵하고 제자리에 설 땐 그제 꼭 넘어지는것만 같아 눈을 감아버렸어요. 내가 언제 권양기의 스위치를 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

무가 탑꼭대기에서 내려오고 그래가지군 정신을 잃더군요. 난 그저 속이 조마구만 했다니까요. 거기 탑꼭대기에 올라가니 어드래요? 바람이 막세요? 막 아찔해요?》

《응.》

《어쩔 그런데 올라갈 결심을 다…》

《그게 뭐 요란한게라구. 그런데 지배인동지가 일없을가?》

침묵.

다시금 흘러가는 조심스런 개울물소리.

《일없어요. 오빠 곧 정신이 들거예요. 동문 너무 걱정하지 말라요. 제몸은 생각지 않구. 참. 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원 저게!)

옥섭은 흐뭇한 시기심이 생기었다. 그는 정다운 개울물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일이에요.》 옥섭의 목소리는 정회에 젖어들었다. 《그때 오빠 유능한 연공이였어요. 높은곳에서 찬바람에 얼며 하루종일 일하다가 돌아오면 늪으신 어머니는 오빠의 잠을 지켜주곤해답니다. 창문을 모조리 꼭꼭 닫아놓고



바깥의 소음이 새어들세라 고요를 지켜주면 오히려 인차 단잠에 들고 아침이면 거뿔한 모으로 또 일하러 나가곤 했어요...》

그랬다. 고요는 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고난 많고 궁지 뒹뒹 그 시절의 추억이었다. 바람세찬 골조우에서 로동의 땀을 흠뻑 흘린 뒤에 어머니가 지켜주는 요속에 심신을 맡기고 단꿈을 꾸던 그 시절! 위훈 많은 그 시절은 지나가버렸는가. 아니다. 흘러가버리지 않았다. 맨주먹으로 위훈의 탑들을 일떠세우던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정신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결심하며 일해야 한다. 필요하면 태풍도 맞받아 나아가야 한다. 그런 심장앞에 현실성이 없는 가능성이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조국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심어준 달라질 수 없는 혁명의 철리가 아닌가. 뛰어들어야 한다. 이 사람 옥쇄이 자네도, 뛰어들어야 해!

《쉬, 조용해요, 조용! 조용...》

누이동생이 갑자기 속삭인다. 방안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들어온다. 누군가 또 지배인을 찾아오는 것인가? 그런데 저에는 내가 아직도 정신을 잃고있는 줄 아는 모양이지. 잠을 자는 줄로 아는 모양이지. 반장이 엉큼하거던. 지배인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을 빼앗아가겠단 말이지. 일밖에 모르는 사람. 괜찮아! 이제 일어나 일해야지. 일해야 해! 또 탑들을 세워야 할게 아닌가. 탑들을!

옥쇄는 푸른 창공을 향해 높이 솟아오른 번쩍이는 탑의 숲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 출장을 마치고 오며

황금낭

그사이에도 그림던 곳  
출장을 마치고 역에 내리니  
나를 반겨주는 눈빛들처럼  
집마다 초저녁 불이 밝구나

어느 작은 골목길 하나도  
모두 아는 거리  
형광등이 밝은 저 어느 문을 열어도  
반기며 손목들 이끌며  
들가방도 받아주려니  
어서 들어오라고  
이제 오는 길이나고

하지만 어느 문 하나 두드려볼 없이  
곧장 걷게 되는구나  
그래도 마음은 서둘러져  
내 집으로 가는 길에 줄지어선  
정다운 불빛들을 바라보며

누가 말했던가  
먼 대륙에 가본이들도  
거기에 나라는 있고  
거기에 집들은 많지만  
늘 어서 떠나오고 싶다가  
울 때에는 울 때조차 마음 서둔다고

이 시각의 내 마음도 다름바 아니니  
집이란 무엇이기에 한생에 잠깐 떠나도  
그처럼 그리워지는 것인가

자기를 키워준 부모가 있고  
음성만 들어도 반겨줄  
자식들이 기다리는 곳이어서인가

아니리 그런 것만은  
흘러간 세월  
그때도 부모와 자식은 있었지만  
그때는 가난과 설움 속에  
떠나면 제집이여도 찾아오기 주저했고  
떠나면 제 조국이여도 찾아오지 않았거니

이 저녁 나를 반겨주는  
저 창가의 불빛들처럼  
머리우에서도 반겨주는  
저 무수한 별빛들  
저것들은 모두 나에게서  
오늘의 귀중하고 행복한 것들을  
마음껏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 어버이수령님 품에서  
정깊은 모든 것들이 갈수록 더해지니  
순간을 헤어진들 만리를 떨어진들  
어찌 그리움에 서들지 않으랴

이가 시린 샘물결에서 일해보면  
삼복더위에도 목마름을 모르듯이  
누구나 헤여지고 떨어져보지 않았을 뻔  
미처 다 알수 없으리라  
늘 어떤 즐거움이 자기 집에 있는지  
늘 어떤 행복함이 내 조국에 있는지

# 우산

장수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조하는 진정한 동지적관계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있습니다.》

빠스에 오를 때만 하여도 험끔해보이던 하늘이 갑자기 어둡해지면서 비방울이 차창에 감탄부호를 찍는가싶더니 《1백》시발점에 이르렀을 때는 아주 비발을 세우고 쏟아졌다.

빠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활짝 우산을 펼쳐드는데 마치나 락하산병을 방불케 했다. 거의가 간편한 접이식자동우산이어서 보란듯이 한 손으로 펼치는것이 무슨 재간이라도 피우는것 같다. 그런가운데 내것은 나무대로 된 통짜배기 우산인지라 한쪽 옆구리에 가방을 낀다음 꺼져부정 두손으로 퍼면서 내려야 했다. 구식우산이다보니 불품이 없는데다 불편하기 짝이 없다. 물론 우리 집에 멋진 우산이 없는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양보》하고 굳이 이 우산을 써온다. 그것도 어지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 보시라. 내 마음을 알아주길라도 하듯 《승리역》앞에 왔을 때 《미안합니다. 좀…》 하는 다급한 소리와 함께 어깨를 움크린 젊은 청년이 뒤에서 머리를 들이밀며 우산대를 잡을듯 손을 내뻗었다. 어망중 무례하다는 생각을 누르고 인차 우산을 쳐들어주었다. 청년의 키가 쫘쫘한데도 있었지만 나의 호의를 나타내고싶었기때문이다.

《아침예보를 들었어도 우산을 가지고 떠나는건데 에이.》

청년은 묻지도 않는 말을 변명처럼 중얼거리며 이마의 비방울을 훔쳤다. 나는 청년의 송구한 마음을 가셔줄양으로

《같은 값이면 저런 멋쟁이 처녀한테 가서 신세 질게지.》하고 저만치 앞에 가는 처녀를 눈짓해보이며 룡말을 했다. 그 말에 청년은

《저런거야 어디 돌이 쓸나위나 있습니까?》하고 통명스레 대답했다.

듣고보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것에 대해 처녀의 우산은 어방없이 작은것이다.

나는 별로 내 우산이 꺼보이면서 유쾌한 기분이되어 청년과 걸음을 맞추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청년이 직방 물었다. 나의 신세를 얼마나 질수 있겠는지 해서 물은것 같은데 지내 꺼리낌없는것 같았다.

《동무는?》

내가 되물었다.

《미술박물관쪽입니다.》

나와는 좀 다른 방향이다. 하지만 나는

《나도 그쪽이야.》

하고 대답한 다음 1백화점쪽으로 가는 건늬길에 내려섰다. 어느새 청년의 한손은 우산대를 잡고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래도 웅색해서 못견디겠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내 속을 모르는 공연한 원심이다.

나는 남에게 선의를 베풀 때 느끼는 너그러움과 흐뭇한 마음이 되어 이 우산에 깃든 일화를 회상했다.

우산을 갓 샀을 때의 일이다.

그날 날씨예보대로 우산을 가지고 출근길에 오른 나는 한번도 못써본 새 우산을 차에 그냥 둔채 내렸다. 건망증때문이었다. 직장에 가서야 생각나서 뒤통수를 쳤으나 때늦은 후회였다. 어찌나 속이 알찌근하면서 아쉬운지 몰랐다. 퇴근때에는 비까지 내려 불운한 심정을 달랠길 없었다. 나는 행여나 하는 심정에 매달려 무쾌도전차종점에 찾아갔다. 마침 밤교대 당직 사령이 반갑게 나를 맞아주었다.

나의 설명을 듣고난 그는 《어디 봅시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에 가더니 밝은 기색이되어 《이게 아닙니까?》 하면서 손에 든 우산을 내밀었다. 틀림없는 내것이였다. 나는 어떻게 기쁨을 표현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 심정 그대로 사령에게 거듭거듭 고맙다는 치사를 했다.

《이거야 어디 내가 받을 인שא니까. 얻은 물건이 있으면 다 여기 들어오는걸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 사령은 나더러 어디에 사는가고 물었다. 나의 대답을 들은 그는 마침 잘됐다면서 들어온 물건가운데 녀자가방이 있는데 아무 주소에 가서 알려줄수 없겠느냐고 하였다. 우리 집 가까운데였다. 신세값음을 하게 된 나는 꽤히 웅악하였다. 이제 그 집에서 소식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것인가. 아닌게 아니라 그 집에서는 내가 사령에게 한것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외웠다. 마치도 내가 가방을 되찾아준 사람이기나 한것처럼.

그 집을 나선 나는 비속에 혼자 걸으면서 저도 모르게 후더워오르는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후 우산을 펼칠 때마다 나는 그날의 일이 되살아오르며 그 누군가와 함께 우산을 쓰고싶은 마땅이 되는것이였다. 우산이 내것이면서도 공동의것이라는 생각에서…

《선생님, 직장이 어디십니까?》

청년이 불쑥 묻는바람에 나는 상념에서 깨었다. 인차 대답을 못한 나는 그저 웃는것으로 대답을 피했다.

별로 데통스러운 물음인데다 내가 예도는 길로 가고있다는것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청년은 무엇인가 생각되는듯 썩긋 웃더니 체편에서 직장파 이름을 대주면서 방조반을 일이 있으면 아무때나 찾아오라고 하였다. 비록 노동자지만 직업상련관부분이 많아서 얼굴이 넓다는것이였다.

《꼭 찾아오십시오.》

그 투박한 어조가 마치 자기 도움을 받으러 오라고 명령하는것 같아서 나는 절로 웃음이 나오는것을 누르고

《내가 동무에게 뭘해줬다고 도와주겠다는거요?》 하고 우스개말을 했다.

그런데 청년은 신중한 기색으로

《아니 뭘해줘야 도와줍니까? 그게야 도와주는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거지요.》

하고 놀랍다는 투로 말했다. 나는 면박을 당한것처럼 멧적음을 느꼈다. 룡말에 한 대답이지만 청년의 말에 진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내속을 짐새쳤는지 청년은 누그러진 어조로 뒤를 달았다.

《선생님이 저와 우산을 함께 쓰고 가는것이 저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을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청년이 데면데면해보이면서도 어딘가 예민하고 속이 깊다는 생각이 들며 강하게 끌리는 호기심과 일종의 매력을 느꼈다.

《고맙소. 내 동무를 꼭 찾아가겠소.》

나는 약속을 하듯 진지한 어조로 다짐하였다.

《아닙니다. 정말 고마운건 선생님이지요. 지금 선생님은 저때문에 판길을 가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을 안대주시구요.》

능청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은근한 어조로 말한 청년은

《그럼 잘 다녀가십시오.》

하고 꾸벅 인사하더니 어느새 우산밑을 빠져 비속으로 경충경충 달려갔다. 언제 붙잡을새도 없었다.

나는 청년을 더 데려다주지 못한 아쉬운 마음으로 그의 뒤모습을 바라왔다.

꼭 찾아오라고 강박하듯이 말한 청년의 말이 어쩐지 메아리처럼 흉벽을 울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그가 그 말을 한것은 나의 도움을 받는데 대한 갚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님이 분명했다. 아마도 그는 자기와 사귀게 되는 어느 사람에게는나에게한것처럼 도와줄 의향을 표명할것이다. 말하자면 청년은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허심하고 대범한 로동계급이었다.

처음에 청년이 우산속으로 뛰어들며 무례해보일만큼 손을 내뻗친것도 나를 자기처럼 믿고 그렇게 무람없이 행동했을것이다.

그러자 나는 좀전까지 남을 도와주는데서 맛본 흐뭇한 생각이 어딘가 자기만족 비슷한 열은 감정같으면서 점직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산을 함께 쓰고싶었던 감정 역시 청년이 말한, 《빚갚음》을 위한 그런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혹이 떠올랐다. 물론 그것을 잘못이라고 자책할까닭은 없을것이다. 얄음갚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활에는 남에게서 받은 도움이나 혜택에 대해 신세갚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도리를 지키는 미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의 말처럼 《빚갚음》을 하는 도움은 엄밀한 의미에서 도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빚갚음》을 바라고 하는 타산적인 도움이 도움으로 될수 없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리고보면 도움이란 아무 전제나 부대조건도 없는 그런것일 때 참담고 아름다운것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런 사심없는 도움, 바로 나에게 우산이 되돌아오게 하여준 그때 빠스에 탔던 술한 손님들이며 차장과 운전수, 그들모두가 나에게 준것 역시 《빚갚음》아닌 그런 도움이 아니였겠는가? 그리고 그밖에도 내가 모르게 나를 도와주었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것인가.

불현듯 나는 나를 도와줄 고마운 마음으로 차 있는 사람들속에 예워싸여 살고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가슴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이였다. 그러자 지금 거리를 누비며 가고있는 우산을 든 그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자기 우산밑으로 사람을 부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좁은 내 우산을 벗어나 비할바없이 넓은 세계에로 나래쳐가면서 승화되고 팽대해지는 자신의 존재를 부풀어오르는 가슴으로 벽차게 의식했다.

그 넓은 세계란 이 아침 나처럼 우산을 들고가는 고마운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뭉친 크나큰 세계, 바로 그런 고마운 품성을 지닌 사람들을 낳아주고 품어주고있는 한없이 고마운 사회주의 내조국의 품이였다.

나는 내가 들고있는 우산우에 푸른 하늘처럼 펼쳐져있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크나큰 《우산》을 느끼였다. 그리고 그 《우산》 밑에서 대가정을 이루고 친혈육처럼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 아침 나처럼 자기의 초소로 가고있을 수천만사람들의 발구름소리를 온몸에 느끼며 젖은 보도블록우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였다.

내가 가는 초소의 말은 일이자 그것이 곧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하나로 이어지게 만드는 보람찬 일임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 빛나는 별

김영길

큰덕마을에서 멀찌감치 바라보이는 고개마루에 미루나무 한그루가 위엄있게 서있다. 선대로부터 마을에서는 그 고개마루를 미루나무고개라고 불러왔다.

이글거리는 불덩어리마냥 빨갛게 타번지던 저녁해가 미루나무고개와 잇닿은 소나무숲속으로 사라지자 하늘은 온통 감빛 황혼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공작새의 깃털마냥 화려한 빛갈로 오묘하게 변해가는 저녁하늘아래 하늘을 찌를듯 장엄하게 솟은 민출한 한그루의 미루나무는 마치 큰덕마을을 끌고가는 기선의 굴뚝처럼 뚜렷하게 보였다.

방금 벌에서 돌아온 조복덕녀인은 머리수건을 풀어 저고리섶을 털다말고 어느 명화가가 그려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고향마을의 황홀경에 취해 잠시 미루나무고개를 바라보고 섰다. 암만 보아도 싫지 않은 고향풍경이었다.

이즘 조복덕녀인의 눈길이 때없이 미루나무고개로 끌리는것은 단지 산천경계에 심취되어서만이 아니었다. 누군가 읍에 나가 귀동냥해 듣고와서 퍼뜨린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때문이었다.

오래지 않아 전쟁이 끝나고 전선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리라는것이였다.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해전에 저 미루나무고개를 넘어 전선으로 떠나갔던것이다. 이제 그 아들이 앞가슴에 훈장을 번쩍거리면서 저 고개로 돌아올 날이 멀지않았으니 어머니는 아니아니 하면서도 그쪽에 눈길을 팔게 되는것이였다.

그러나 조복덕녀인은 그 유별난 고향마을의 저녁황혼을 본 날부터 며칠후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받았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조국해방전쟁에서 아들이 용감하게 전사하였다는 한장의 사망통지서가 왔던것이다.

금시 하늘이 캄캄해지고 발밑에 딛고선 땅이 천길만길 꺼져내리는것 같아 조복덕녀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리당위원장이 달려오고 옆집에 사는 은주랑 마을 민청원들이 몰려와서 서로들 어머니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겠다고 위로했다.

어머니는 꼭 3일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았다. 보름달이 마당을 환하게 비쳐주었다.

조복덕녀인은 떠오리같이 오솔길을 비치는 달빛을 밟으면서 미루나무고개로 올라갔다.

저 멀리로 달빛에 희끄무레 비치는 읍거리가 바라보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전선이라고

짐작되는 남쪽하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별들은 예나제나 변함없이 희미하나마 그래도 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였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혼자소리로 말했다.

《창세야! 열아홉에 벌써 한생이 끝났다니 나이가 아깝구나. 세상에 났다가 이름도 없이...》

애오라지 그것이 분하고 절통했다. 누가 이제 아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랴, 남들처럼 큰 공훈이라도 세우고 갔으면 몰라도...

조복덕어머니는 실로 이것이 가슴에 걸릴뿐 죽음 그자체에 비판한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다음날부터 아무일도 없었던듯 흰 수건을 머리에 쓰고 어깨에는 호미를 담은 다래끼를 메고 논벌로 스택스적 걸어나갔다.

어머니의 주위에는 늘 은주와 마을처녀들이 분주히 돌아갔으며 창세친구들이 하루에 몇번씩은 어머니를 웃겨놓고야 말았다.

생활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흘렀다.

누군가가 읍에서 귀동냥해온 소문 역시 틀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달포 남짓하여 마침내 전승의 날이 오고야말았던것이다.

승리의 바람, 풍년바람에 한껏 취한 마을청년들은 가을걷이를 하기 바쁘게 창공높이 날으는 새마냥 괜히 들썩하여 평양구경을 뻗질나게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날 밤, 은주가 평양구경을 다녀와서 조복덕어머니를 찾아왔다.

저녁설것이를 하고 바가지의 물기까지 말끔히 닦아 부뚜막에 얹어놓은 은주는 어머니앞에 무릎을 깔고 앉았다.

처녀는 무엇인가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지를 차분히 내리깔고 앉아 한동안 안타까이 노전가시만 뜯고있었다.

어머니가 보다못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왜 그러니? 은주야.》

처녀는 고개를 더욱더 깊숙이 떨구면서 입을 열었다.

《저... 어머니, 저두 평양구경 갔었어요.》

《잘했구나. 그래 많이 변했던?》

《예... 아직은 재더미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 평양에 벌써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이 일떠섰어요.》

《영? 그건 무슨 소리냐?》

어머니는 자못 얼퍼름한 기색으로 반문하는것이였다. 은주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갔다.

《어머니, 그 전쟁기념관은 말이예요. 우리 인민

군대들과 전체 조선인민이 어떻게 미국놈을 때려  
엎었는가 하는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집이에요.》

그제사 어머니는 다소 깨도가 되는듯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너두 들어가봤니? 어디에 있던?》

《들어가 보잖구요. 전쟁기념관은 해방산기슭에  
있는데 글썄 지금까지 공공건물로서는 평양에서  
제일 크고 또 제일먼저 일어섰대요.》

《제일먼저?!... 제일 크게! 그거참 희한한 일이  
로구나.》

어머니는 제나름껏 상상해보았으나 아무리해도  
자신이 없는듯 머리를 흔들면서 허구프게 웃었  
다.

《예구야 나두 내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구  
나.》

그러자 은주가 다시 눈길을 떨구며 조용히 속  
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사실은 어머니가 한번 꼭 보셔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어요.》

《?...》

조복덕녀인은 다시금 의아스러운 눈으로 처녀  
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사실 평양구경이라기보다 누구도 몰래  
창세의 전사통지서를 재확인하려고 민족보위성의  
해당부서로 찾아갔었다. 세상에는 우연한 행운도  
있지만 처녀에게는 차례지지 않았다. 사실은  
달리 될수 없었다.

은주는 아픈 가슴을 달랠길 없어 대동강변을  
거닐다가 전쟁기념관 개관소식을 듣고 자석에 끌  
리는 쇠붙이처럼 별다른 목적도 없이 자기도 모  
르게 그리로 달려갔던것이다.

처녀는 어느 한 관에서 고지를 점령하려고 서  
슬푸른 총창을 비껴들고 《만세》의 합성을 지르  
며 달려가는 전사들의 군상을 주의깊게 바라보다  
가 그만 그자리에 굳어지고 말았다.

전투의 그 시각, 무엇을 선동하느라고 그러는  
지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웨치는지 이쪽으로 반  
나마 얼굴을 돌린 전사의 모습이 너무도 낮이 익  
었던것이다.

은주는 뉘엿는 가슴우에 두손을 모아잡고 한결  
음 두결음 다가갔다.

그 전사는 틀림없이 창세, 그 동무였다.

처녀는 사진군상앞으로 너무 바투 다가갔으므  
로 그 동무의 모상이 이상해서 다시 뒤걸음질쳤  
다.

은주는 손등으로 가볍게 눈을 비비고 다시금  
바라보았다.

처녀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본 창세의  
모습은 아리송해지고 그자리에는 전혀 낯선 전사  
가 주먹을 머리우에 쳐들고 무엇을 부르짖고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이상했다. 어느 순간에는 그  
가 창세였고 어느때는 아닌것 같기도 하고...

수십명의 군상속에 있으니 도저히 똑똑히 가려  
보기 힘들었다.

원래는 백사장의 모래알만큼이나 작았을것이나  
크고 크게 확대하여 붙였으니 그만큼이라도 알아  
볼수 있었다는것을 은주는 알지 못했다.

처녀는 가슴이 답답해나고 화도 났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청년의 모습마저 잃어버린것 같아서  
죄스런 마음을 금할길 없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낱아키운 자식을 알아볼것  
이다. 어머니를 전승기념관으로 보내자... 어머니  
를...하여 처녀는 그날로 고향에 돌아왔던것이다.

잠잠히 앉아 은주의 말을 듣고난 어머니는 자  
신없는 소리를 했다.

《애야, 초롱불같은 네 눈으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을 이 늙은게 어떻게 알아보겠니?》

《그래두 어머니야...》

《글썄 아이때처럼 젖가슴에 꼭 품어안고 손가  
락이랑 머리칼이랑 쓸어볼수 있다면야 누군들 제  
자식을 못가려보겠니...》

《그래두 한번 꼭 가보세요. 예? 어머니-》

《...》

조복덕녀인은 대답하기가 두려웠다. 아무렴 어  
머니가 제자식을 못알아볼수는 없는것이다. 한데  
만약 그 전사가 창세가 아니라면... 창세가 무슨  
큰 공훈을 세웠다고 전승기념관에 다 나붙겠는  
가? 분명 은주가 너무 움해서 빗본것이겠지...

한참후 어머니는 처녀에게 다짐을 두었다.

《애, 은주야, 너 누구한테두 이 말을 안했니?》

《안했어요.》

《다시는 입밖에서 꺼내지 말어라... 응?》

《...》

그로부터 몇달후 어머니는 평양구경을 떠나지  
않을수 없었다.

은주가 매일밤 찾아와서 《어머니, 제가 닭이랑  
돼지랑 다 잘 돌봐요. 집에 와 자면서... 예? 어  
머니》 하고 조르는통에 끝내 지고말았던것이다.

...어머니는 반나절 은주가 《창세》라고 하던 그  
전사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했었다.

조복덕녀인 역시 은주와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다잡기 어려웠다.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자니 오늘까지 아니아  
니하면서도 새록새록 움터 마음 한복판에 자리잡  
기시작한 그 어떤 지령점을 잃는것 같았고 물속  
에서처럼 아리송한것을 인정하자니 량심이 허락  
지 않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머니는 확고히 결심  
했다. 이제는 그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을테다.

비록 이름은 없이 갔어도 아들이 전사했다고  
나라에서 떠받들어주는것만큼 농사를 잘 지어 보  
답해야지. 애두 원 명이 그렇게 짧다구야. ... 남  
들은 칠순에 나도록 살면서 나라에 보탬을 주구  
이름을 내는데... 단명히는 집안이니 할수 없지.

다 내 팔자소관이니 어찌겠니...

집으로 돌아온 조복덕녀인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뒤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은주는 어이없처럼 새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일에 부지런하였으며 매일 남보다 로력공수를 몇자루씩 더 받곤했었다.

그후 작업반장이 된 조복덕어머니의 소개로 은주는 평양으로 시집을 갔다. 도시도 농촌도 생활은 안정되었으며 조국은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펴고 내달렸다.

옛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을 류수와 같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는 이미 하루를 한세기보다 크게 보는 시대가 왔다.

천리마의 시대, 비약의 시대가 도래하여 우리 조국을 지구의 상상봉에 올려세웠던것이다.

벌써 70에 가까운 조복덕어머니는 명예관리위원장으로 여전히 들판에서 아침해를 맞곤했다.

1972년 4월 어느날, 뜻밖에도 평양에서 전보가 한장 날아왔다. 어머니는 2.0돋보기를 꺼내여 걸고 전보문을 한자한자 뜯어보았다.

《어머니 급래, 은주》

어머니는 혼자서 허허하고 웃었다.

《애가 또 무슨 일로 찾누. 이제 차타고 다니기도 막 힘든데... 안가문제쪽에서 또 노염질이겠지. 참...》

그래도 어머니는 싫지 않았다. 준비를 착실히 한 어머니는 평양으로 떠났다. 역에는 은주와 애들이 나와있었다. 웬일인지 은주의 눈에 맑은 이슬이 고여올랐다. 중년부인이 된 그는 어머니의 두손을 꼭 잡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을 만나러 가지자요.》

《응?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어머니, 창세동무말이에요.》

《창세라구?!...》

어머니는 은주의 눈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처녀때와는 달리 침착해지고 무게있는 눈길이다.

이제는 어머니마저 좀처럼 꼬집어내지 않는 애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머니는 너무도 가슴이 활랑거리고 머리속이 복잡하여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저 은주의 손에 이끌려 전차에 올랐다.

《어머니 내리시자요.》

어머니는 은주를 따라 내렸다.

어머니의 앞에는 웅장하고도 정갈한 건물이 서있었다. 한쪽으로는 보통강이 유유히 흐르고 버드나무가 풍치를 돌구는 경치좋은곳이었다.

《어머니 여기야요.》

《여기가 어디냐?》

《창세동무가 사는 집이랍니다.》

《?!...》

《어머니도 들으셨지요.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돛을 맞으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전쟁기념관을 새로 세워주셨다는것을 말입니다.》

《오!-》

《창세동무는 이리로 이사했어요. 더 큰집으로...이제 들어가보시면 알아요.》

은주는 어머니를 이끌고 기념관으로 들어갔다.

새 전쟁기념관이 일떠서자 은주는 맨먼저 찾아갔다.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확증한 은주는 어머니에게 전보를 쳤던것이다.

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꼭 잡고 아들이 있다는 방으로 들어갔다.

은주는 멈추어서면서 어머니의 등을 떠밀었다.

《어머니, 창세동무를 찾아보세요.》

따라들어온 해설원처녀는 아무말없이 어머니의 거동만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돋보기를 꺼내 끼었다. 몇걸음 다가서던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말았다. 얼굴들이 돋보기에 넘쳐나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것이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벗어들었다.

돋보기 없이도 어머니는 대번에 자기의 아들을 알아보았다. 얼마나 더 크게 확대하였는지 꼭 독사진같았다.

《네가... 네가... 살아있었구나. 애야...》

어머니는 그만 돋보기를 떨어뜨렸다. 20년전에는 돋보기를 끼고도 알아보기 힘들던 그 아들을 오늘은 돋보기 없이도 알아보았던것이다.

열아홉나이에 이름도 없이 한생을 마친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었다. 수백수천만사람들의 눈길앞에서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빛을 내면서... 해설원과 은주가 어머니곁으로 다가왔다.

해설원처녀가 어머니 귀바투 입을 대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머니! 우리의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일찌기 평양시건설일군들에게 평양에서 좋은 부지를 큼직히 내어놓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 자리를 아끼셨다가 오늘 보통강반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새롭게 우리 전사들의 집을 지어주시였습니다. 세상에겐 전쟁도 많았고 무명의 전사들도 많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세월과 더불어 영생하는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전사들처럼 위대한 수령, 위대한 태양을 모셨기에 그 생애가 별처럼 빛날수 있는것입니다.》

어머니는 막혔던 가슴이 확 열렸다!

내 아들, 아니 여기 모든 아들딸들의 한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마 끝이 없을게다!

그날저녁, 어머니는 기념관이 바라보이는 은주네집 창가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하늘에는 오늘도 별이 많았다. 어머니는 그속에서 아들 창세의 얼굴을 찾아보았다.

어머니는 그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몇번이고

몇번이고 껌씹었다.  
해와 별! 그래, 그 처녀의 말이 옳아...

태양이 없어야 별이 무슨 재간에 빛을 내랴!...  
무슨 재간에...

## 총은 나에게 무엇이었던가

김호광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가  
군복도 그대로 입고  
군화도 그대로 신고  
내 고향으로 제대되어가건만  
너는 진정 두고가야 하는가  
오, 내 사랑하는 총이여

복무의 나날에  
군복은 색바래면 바뀌었고  
군화는 닳으면 새것을 신었던만  
정녕 너는야  
내 이름마냥 바뀔수 없던것 아닌가

총이여  
이 가슴 후더워  
전우인양 너를 그러안노라  
내 처음 너를 수여받던 그날처럼  
허연스런 이 총대를  
도금 벗겨진 이 총가목을...

천리행군길 힘에 부칠 때  
전우들 내 배낭 저다뤄도  
총이여 너만은 끝까지  
내 힘으로 메고가라 했었지

쓰다듬으니 오, 쓰다듬으니  
총과 함께 새겨진 병사시절의 추억  
가슴뜨겁게 안겨오누나  
이 총을 그러안고 지새운  
그 낮과 밤이,

병사시절 병사시절은  
이 총을 메어놓고 설명할길 없구나  
얼음이 서걱이는 강하를 건너  
다그치던 강행군길도  
전호가의 빠시리던 밤들도

이 총대의  
조성과 조문을 거쳐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조국의 수호구역을 익혔다  
병사의 눈,

계급의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총대를 틀어쥐고  
내 엄숙한 전투명령을 받았고  
이 총을 메고 자욱자욱  
병사의 걸음새  
조국을 받드는 아들의 걸음새를 익혔어라

총이여  
너를 떼어놓고  
그 무슨말로  
병사, 내가 바친  
청춘의 한시절을 설명하라

나의 사랑  
나의 꿈  
나의 량심이  
너와 함께 조국에 복무했거니  
총이여  
너는 진정 나의 생명  
내 가장 미더운 전우였구나

놓을수 없어  
가볍게 놓을수 없어  
틀어진 총대에 뜨거운 불 비벼보니  
총이여, 너는 작별의 이 순간을 이미 헤아려  
내 가슴에 깊숙이 새겨주었는가

한알 또 한알  
총에 탄약을 채워 만탄창하듯  
뜨거운 정을 가득 채워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총... 총!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 수십리 지하막장 한끝에 가도  
용접불꽃 튀어날리는 건설장에 가도  
총이여 너 심장마냥  
내 가슴속에 함께 있자  
오, 진정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총과 작별할수 없어라

# 당정책적안목의 예리성과 분석적묘사와 철학적깊이

-장편소설 《환희》(김봉철)에 대하여-

김성우

장편소설 《환희》는 출판되자마자 독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소설이 독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며 《환희》로써 접수되게 된 근본비결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을 생활로써 파악하려는 피타는 몸부림과 당정책적안목의 예리성 그리고 립체적인 분석적묘사의 철학적깊이...

이 소설의 작가는 무엇보다 시대정신에 민감하게 호응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에서 나서는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동시에 작가는 누구보다도 생활을 깊이 꿰뚫어 보면서 그것을 일반적개념이나 상식으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들의 생동한 개성과 구체적인 생활의 세부를 통해 밝혀주었다.

×

## <비결 1. 생활의 심정을 다 고르는 당정책적안목의 예리성>

당의 로선과 정책을 건결히 옹호하고 관철하려는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작가는 언제나 자기 작품에 정치적으로 의의있는 초미의 시대적문제를 제기하려고 애쓴다.

이때까지 우리 문학에서 주제의 정치적의의를 놓고 문제시할수 있는 그런 작품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매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킨 감흥은 여러가지였다.

주제는 다 좋은데 왜 어떤 작품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 우등불가에서의 격동적인 토론과 회의결정서, 남모르는 일기장과 사랑의 고백속에서 높이 울리고 어떤 작품은 눈앞을 스쳐지나 자동차의 배기가스처럼 흔적도 없이 망각의 그늘속에 잠기고마는것인가.

작가는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생활을 새롭게 보는 눈을 띄워주어야 한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에 근거하여, 당정책을 자로 하여 생활을 다시금 투시해보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올라갔던것을 알게 되고 잘못 보았던것을 바로 보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자를 가지고 채여도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것은 무슨 탓일까.

당정책의 일반적기준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하지만 어떤 작가가 긍정으로 본것을 어떤 작가는 부정으로 보고, 어떤 작가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것에서 어떤 작가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발견해낸다.

결국 당정책을 누가 더 정확히, 더 깊이 알고있는가 하는것과 함께 생활을 깊이 이해하고있는가하는 작가의 정치적안목의 예리성에 달려있다.

## <문제는 심각하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말한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재은;

《지금은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보다 더 가혹한 시련이 걸음걸음 우리를 막아서고있소. 우리의 새로운 기업관리체계의 적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요? 그자들은 사회주의는 자기의 경제관리의 모순점에 도달하면 좌충우돌하다가 종당에는 무장해제되고 그때면 스스로 망한다는거요. 그러나 우리식 기업관리체계는 승승장구하오. 이걸 눈에 가시처럼 여긴단말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경제전쟁의 보루에서 줄고있거든. 실탄사격이 들어오는데 줄고있단말이요.》

《...우리 당의 경제로선을 지키는건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운명과 관련되는거야. 이 마당에서는 자그마한 양보도, 절충도 없는거야. 죽으나 사나 우리앞엔 그저 그 길밖에 없어.》

련합기업소 지배인 리충현;

《...말로는 모두다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긴 이 말은 벌써 해방후 40여년동안 해오는 말이 아니요. 리념이 체질화된다는것이 이렇게 힘이 들가요. 참으로 리해할수가 없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우리 사상이, 우리 철학이, 우리 진리가 피와 살로 안뒀단말이요. 이게 가슴아프구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 식 기업관리체계를 지키기 위한 투쟁- 그것을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경제관리사상을 완전히 자기의 뼈와 살로 체질화하고있는 충신, 효자의 전형적인 형상을 통해 밝혀낸데 이 작품의 귀중한 성과가 있다.

×

×



## <형상의 출발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 관리체계로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사회전반을 관리 운영해나가는 정치방식으로서 보편적의의를 가진다.》

오늘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분야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을 관리운영해나가는 정치방식으로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다.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시된지도 벌써 30년이 흘렀다.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론쟁할 여지없이 증명되였다.

그러면 대안의 사업체계가 우리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철두철미 관철되고있는가.

오늘 우리의 경제전선에서 겪고있는 난관은 무엇때문이며 그것을 뚫고 사회주의기치를 지키는 데서 중심문제는 무엇인가.

소설은 먼저 우리 식 기업관리체계를 지키고 경제건설의 양양을 이룩하는데서 더는 참을수 없게된 장애물들, 《경제전선의 보루에서 줄고있는》 숨은 《적》들의 정체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는것부터 시작된다.

우리 식 기업관리체계는 우월한데 왜 생활에서 그 은을 더 내지 못하고있는가 이것부터 찾아야 한다.

《적》은 어디 있는가.

## × <충신과 간신은 거수가결로 가를수 없다>

위력한 전재공업기지인 내성세멘트련합기업소 지배인으로 부임한 주인공 리충현이앞에 가로놓인 난관은 어떤것인가.

생산문제와 관련하여 상급앞에 《과학적》 자료로 내놓을수 있는 불리한 조건들은 수없이 많다.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문건화하여 일군들이 국가앞에 지닌 임무를 원만히 수행 못한것을 부득이한 일로 변호하는데서 유능한 솜씨를 가진 업무부지배인같은 실무가들도 있다.

그러나 충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칙을 한결음도 양보할줄 모르는 《꼬쟁이같은 지배인》은 무엇때문에 참기 어려운 정신적변민과 시련을 겪는가.

기사장 명하진, 설비부기사장 현정학, 생산과 지도원 라수일... 20년간 이 공장과 더불어 수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고 모두의 신망을 얻어왔던 그들이 신임지배인에게서 무엇을 불만으로 느꼈는가,

그 《불만》의 본질은 무엇인가.

×

기사장 명하진;

모든것에 만족하고 충분한 여유와 천성적인 자제력과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침착하게 살고있다.

환경에 빙자하는데 습관되고 《훈수군의 지혜로 승부를 본 장기군처럼》 못내 만족해하는 위인이다. 련합당위원회가 결정하면 그는 그것을 그대로 포치하는것으로만 그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아도 그저 그만이다. 하여 그를 대신하여 책임비서가 결론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래일군들이 재빨리 의도를 간파하고 적당히 일처리를 해준다.

그는 상급에 아침은 좋아하지 않아도 상급의 견해를 우둔하게 거역하면서 정신적인 피곤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

설비부기사장 현정학;

그는 기사장에게 충고한다.

《뭐나 하라고 하면 합시다 하고 대답하시우. 그러면 되지 않소. 복잡할게 하나두 없다니까.》

그 자신이 바로 그렇다.

무슨 일이 토의될 때면 제일먼저 현정학의 《하자》는 웅변을 들을수 있다.

일이 잘되면 설비일군들의 공로이고 일이 안되면 묘하게 다른데서 원인을 구명하군한다.

자기 비판을 심각하게 할 때마다 《락동강시절》의 패기와 열정을 잠시나마 잊었음을 부연한다.

6호예열로의 시험문제로 스스로 해임을 청원하고도 그뒤에 있어야 할 고민과 번뇌가 없었다.

해임제기도 하나의 《시위》였다.

딸의 진실한 사랑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유리한 결혼을 주선한다.

×

생산과 지도원 라수일;

침착하고 례의밝은 사람이다.

직장실패에 대한 과악은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직장일군들의 견해를 귀동냥하여 그날 일보를 윤색하여 생산과에 내는 송달자에 불과하다.

의견을 내놓는 경우에는 두리몽실하게 너좋고 나좋은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지배인의 제기로 당조직이 그를 해임하였을 때에는 비수같이 날이 선 말을 끌라 지배인이 야심, 독단,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신소장을 냈다.

×

새 지배인이 오기전에 그들에게서는 《모든것이 잘되어갔다.》 명에도 직위도 있었고 《간부촌》의 《18톤급》 고급주력도 있었다.

까다롭게 아픈 정통을 찢러 걸고드는 류근식기 사같은 사람은 따로 돌려놓았고 지시가 내려먹지 않을 때에는 당위원회의 이름을 빌고 일이 잘 안 되었을 때에는 《집체적으로 협의한것》이라는 리유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분노할것이 없었고 《만족스러웠다.》. 이 공장과 함께 살아온 수십년의 경력과 업적이 관록으로 되어 누구도 감히 트집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

모든것을 책임지고 나섰다.

보수기일을 어기고 무리한 생산으로 때려몰던 소성로도 세웠고 책임비서의 전화 한통화가 더 힘있다는 《경험》과 《권고》도 뿌리치고 먼거리 변압기수송에도 직접 나섰다, 회분이 많은 저열탄을 쓰기 위한 예열식가열로건설, 5호소성로의 원격조종, 사장된 제진설비의 도입 등도 다 도맡아나섰다.

모체공장으로서의 재세를 부리며 내화물공장의 생산품을 독차지함으로써 다른 린접부문에 지장을 주었을 때도 그는 바로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사죄편지를 쓴다음 새 대책을 강구하며 지대지의 부족으로 수출계획을 미달하여 법적추궁을 받게 되었을 때도 온갖 부득이한 조건을 라렬한 자료 문건발송을 중지시키고 말없이 위원회에 올라갔다.

지배인은 모든것을 사양하고나섰다.

《간부촌》의 입사증도, 공장병원의 보약과 특별 치료봉사도, 출장길에서 돌아올 때의 승용차의 역전마중도...

그는 주인이 되고저했다.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했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모두 걸머졌다.

그는 맑은 거울이었다.

자기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비쳐보이는 거울은 알미운 법이다.

×

책임비서 최재은은 말한다.

《지배인동무가 바로 그것을 바로잡자는거요. 원손잡이는 자기가 원손잡이기때문에 불편하다는걸 느끼지 않소. 우리 식 기업관리의 원칙적요구에 적용되고 체질화되지 못하는 중요한 리유는 우리 일군들이 주인구실을 못하고 그대신 요령과 형식주의에 익숙해진데 있소.》

《우리의 집체성은 어중이떠중이합창단이 아니

요. 입만 짹짹 벌리고 노래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어야 하는거요.》

요령과 형식주의에 물젖은 자들에게 가차없는 진실을 말했다가 독설쟁이의 감투를 쓰고 기능공 학교로 물러나게 된 젊은 류근식기사는 이렇게 향의하였다.

《이거보시우, 책 임비서동무, 앞으로는 충신과 간신을 거수가결로 규정하지 마시우... 거수가결이야 회의때 결정서같은걸 채택할 때 필요한거지 누가 공밥을 먹구 누가 공밥을 먹지 않는가 하는건 그결루 못하요.》

×

## <문제와 본질>

기업관리에서 가장 큰 난관은 저열탄도, 전기 부족도 아니다. 그것뿐이라면 무슨 큰일이겠는가, 이 큰집에 누가 주인인가, 모두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상 똑똑한 주인이 있는가.

주인으로부터 손님으로 되는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많지 않는 몇가지 방법만 터득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주인과 손님!

×

## <주인공은 소낙비를 무릅쓰고 걸었다>

주인공 리충현의 성격은 보기드문 개성이다.

《나에게 위안은 필요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성격이 어떠할것인지 상상해보라.

책임비서가 없는 기간에 그는 전 지배인이 보수기간이 끝난 설비를 목전의 생산때문에 하루이틀 미루며 때려몰던 두기의 소성로를 세웠다.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다.

책임비서가 모르게는 소성로가 아니라 단 한대의 작은 전동기도 세운적이 없었던것이다.

그가 공장의 오랜 그루터기를 뒤흔들어놓는 이런 어마어마한 용단을 내린 기저에는 무엇이 놓여있었는가.

소성로를 세우는데서 당위원회와 협의했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주인이 우린데 세우는것두, 살리는것두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나 책임비서는 불쾌감을 느낄수 없었다. 세우기전에 협의했는가, 세운후에 협의했는가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인것이다.

그는 습관된 자기 자존심에서 오는 충격보다 보이지 않는 눈길이 자기를 리해하고 자기 마음

속을 공감해주는듯하는 보다 큰 힘을 느끼며 마음이 홀가분하고 즐거웠다.

주인으로 살자는 리충현의 앞길은 순탄할리 없었다.

그의 앞길에 내린 《소낙비》는 어떤것인가. 회분이 많은 저열탄도, 부유가소식기술도입을 저애하는 경제실무적문제도, 일군들의 기술부족도 아니다. 먹장구름은 다른데 있었다.

한마디로말하여 그것은 기업관리에서 지휘성원들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주인구실을 하게 할데 대한 대안사업체계의 요구에 깃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을 피와 살로 체질화하지 못한 인간들의 편견과 요령, 형식주의였다. 《슬그머니》... 그렇다.《슬그머니》 그것들은 주인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밀어내며 완고하게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있었다.

탄질이 나쁘면 그에 맞게 소성로를 개조하고 저열탄에 맞는 새로운 생리로 소성체계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데서 지배인은 처세술을 모른다.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어보고 오로지 령혹한 진실만을 말한다.

명하진의 말대로 하면 소낙비가 쏟아지면 비를 그었다가 갈수도 있고 그것을 무릅쓰고 갈수도 있다. 그러나 리충현은 모든 소낙비를 무릅쓰고 걸었다. 손님은 비를 그었다가 갈수도 있지만 그 소낙비에 제 집이 떠내려가게 되는 주인은 그렇게 할수 없는 법이다.

주인이였기에 자기 개인의 체면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중요치 않았다.

기사장 명하진이 자기와는 협의도 없이 일부 독단적인 지시를 내렸을 때에도 참모장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아래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그대로 실행하도록 엄격히 요구한다.

기사장이 지구계획위원회와 댈나면 장래 후환이 생길것을 생각하며 무리한 내화벽돌 반출을 승인했다. 이것을 안 지배인은 업무부지배인에게 상급의 수표를 받는 법부터 배우라고 엄하게 말했다.

하지만 자재과장이 그에 대해 투덜거렸을 때는 기사장이 수표했는데 무슨 의견이 많은가고 추궁한다. 그리고 자신은 이 공간을 메꾸기 위하여 홍주석광산을 개발하여 자체로 내화물생산기지를 꾸릴 힘겨운 전투를 조직하는것이다.

그는 기능공학교에 가다가 대바른 류근식기사로부터 혹독한 모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다 때내친 근식을 도로 데려오자고 책임비서에게 제기하면서 오히려 간청하듯 사정하는것이다.

《나예겐 다루기 좋은 무매한 기술자 서른명보다 다루기 힘이 든 능력있는 기술자 한사람이 더 귀중합니다.》

《그 사람때문에 설혹 마음고생을 좀 한다 해도 그게 무슨 큰 문제겠소. 공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아니 그보다 그런 독설쟁이의 말을 들으면 정신이 들지요. 이 지배인령감을 나이를 좀 먹었다고 그러는지 누구도 내놓구 까박을 붙이는 사람이 없구려.》

## <량심의 의미>

명하진은 리충현을 가리켜 도무지 차돌처럼 소금물에도 재물에도 변색을 모르는 사람같다고 하였다.

그렇다. 주인공은 오로지 우리 식 기업관리체계에 관한 당의 로선밖에 모르며 주위사람들의 그 어떤 요령과 형식주의도, 개인의 명예와 영달의 유혹에도 오염되지 않고 변색할줄 모른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사업방법에서 주관이 강하며》이미 행정이나 참모회의에서 결론된 문제도 《지배인독단으로 뒤집어엎는다》고 말한다.

과연 주관이고 독단인가.

아니다. 그것은 주관이다.

그의 마음속에 드림없이 자리잡은 위대한 수령님의 경제관리사상이다.

그 사상과 어긋나는것일 때에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뒤집어엎었고 추궁했고 요구했다.

그는 왜 위원회의 국장으로 있다가 자진하여 이공장 지배인으로 내려왔는가.

인민경제대학에서 한달강습을 받던 어느날 그는 사회주의경제운영관에서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대안사업체계의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해설하는 짧은 교원의 설명을 중단시키신 어버이수령님의 안색이 리충현의 눈엔 어쩔지 퍼그나 무겁게 안겨들어 알수 없는 불안스런 경련이 가슴아프게 미쳐오는것을 느꼈다.

《...가장 우월한 체제라는거지. 하긴 우리가 이런 주체적인 기업관리체계를 가지고있지 못했더라면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공세에 수십년 세월 어떻게 견뎌냈겠나.》

《...하지만 혁명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 라태의 산물인 형식주의와 요령주의가 어느 구석에서 부식되기 마련이요. 콩크리트유보도에 틈이 있으면 거기서 잡초의 싹이 집요하게 돌틈을 비집고 머리를 들듯이 말이요... 아무리 훌륭한 통마를 주어도 그것을 탈줄 모르거나 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통마가 통마가 될수가 없듯이... 최근 일부 우리 일군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는 우리의 대안체계가 그의 생활력으로 세계판도에서 장훈을 부를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되며 우리가 항상 명심할것은 어떤 정황에서도 자기위치를 지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급작스레 박수와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리충현은 이 열풍같은 환호가 오히려 아버지수령님의 귀중한 사색을 방해하는것 같아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더 들었어야 할 금언같은 말씀이 이 박수소리속에 영영 묻히는것만 같아...

수령님께서 어딘가 끝내지 않으신듯한 그 말씀 뒤에 얼마나 큰 사상과 철학의 심원한 공간이 있겠는가. 그것을 영영 되찾을수 없다는 크나큰 상실감이 충현을 모질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만세와 박수, 수령님앞에 드리는 전사의 인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이의 기쁨과 그이의 심뇌를 가장 민감하게 깨닫고 그것을 풀어드리기 위한 필생의 각오를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것이 전사의 도리이고 전사의 량심이다.

수령님께서 대안의 사업체제라는 룡마를 제대로 타지 못하는 우리 일군들을 두고 심려하시는 데 우리는 여기에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다.

다 말씀하시지 못한 그이의 사색을 미지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이 인생의 숙제를 스스로 말아안고 충현은 자신을 가차없이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밑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파고들면서 내성세멘트련합의 수없이 많은 불리한 조건의 라벨뒤에 숨어있는것을 도출해내려고 애를 썼다. 수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다 알기전에는 자신이 국장으로서 더는 그 자리를 지킬수없다는것을 날이 갈수록 절감하기 시작한 그는 드디어 내성공장으로 내려갈것을 결심하고야 말았던것이다.

수령님의 심려를 풀기 위한 투쟁은 힘겨웠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인간을 낳는다. 그러나 또한 새 시대를 창조하는 길이 그만큼 힘겹기때문에 그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은, 다만 시대의 외피만을 쓴 속물들, 우연분자들, 표리부동한자들도 뿔어내게 되는것이 아닌가.

충현은 이 충신의 외피를 쓴 간신들의 도전에 부닥칠 때마다 그날의 수령님을 생각했다.

그는 자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안 사업체제라는 그 룡마의 기수가 되려고 했다.

이것이 그의 량심이었다.

×

《요령을 조향륜으로 삼고 생활의 진로를 능숙하게 헤쳐가는 법을 어렵지 않게 터득한》 사람들,

《만성적인 형식주의가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전진을 휘방하고있는데 그것을 놓고 격분하고 분노할줄 모르는 놀라운 무관심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혁명의 적으로 등장하고있다는걸》 모르는 사람들을 용납할수 없었다.

충신의 량심은 이 모든것에 무자비하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힘을 깡그리 바쳐 투쟁하게 하였다.

생산이 정상으로 되고 사람들도 그를 리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쓰러졌다.

오랜 동지들의 부름도, 사랑하는 딸의 눈물도 그의 의식을 돌이켜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감사를 보내주셨다는 책임비서의 목메인 웨침이 울렸을 때 그의 의식은 눈떴다.

《당중앙?》

그는 깨어났다.

《인간의 심장은 살아도 죽어도 당에 대한 숭고한 감정으로 젖어있어야 한다. 그 절대적인 신뢰성은 허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서 피로 뛰고 있어야 하고 살과 뼈의 세포와 신경으로 살아있어야하는것이다.》

여기에 주인공의 성격적매력이 있고 이 작품이 가지는 비상한 견인력의 원천이 있다.

×

## <형상의 종착점>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으로 자기 소설을 맺었다.

지평이를 쥔 당중앙위원회, 정무원련합회의에 참가한 리충현의 소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 위치와 초소에 주인답게 서있도록 이끌어줄 때 우리의 주체사상은 명실공히 위대한 사상으로, 철학으로, 혁명적세계관으로 되는것입니다. 대안의 사업체제도 본질에 있어서는 사람중심의 주체리념을 경제관리에 구현한 우리 식 경제지도강령입니다.》

경제관리에서 주인으로 되는 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으로만이 아니라 피와 살로 체현하고 생활에 직접 구현하는데 있다. 그것이 경제전선에서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로써 당의 사상과 로선을 지켜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 여기에 우리 당의 불패성이 있고 우리 혁명의 의지가 있고 우리 인민의 존엄, 우리의 위대한 력사의 환희가 있는것이다.

×

## <산 당일군의 진실한 형상>

이 소설이 무자비한 진실을 말하고있다고 서두

에 썼다.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 작가가 우리들중에는 없다. 그러나 무자비한 진실을 말하는것은 힘들다. 그것은 예리한 당정책적안목과 높은 지성과 함께 대담성을 요구하기때문이다.

생활은 무한히 다양하기때문에 자기의 정책적 분석과 미학적평가가 무조건 옳다는 신심이 없을 때 작가는 소심해지고 형상은 무뎡해진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어떻게 그토록 예리하고 대담하게 진실을 말할수 있었는가.

당의 령도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다.

그것은 책임비서 최재은의 형상속에 체현되고 있다.

당일군형상에서 새로운 탐구의 자취를 우리는 본다.

그는 도식적으로 리상화되어있지 않다. 그도 사색하고 번민하며 발전한다. 그도 약점이 있다. 그도 인간이다.

그는 행정일군인 지배인을 떠밀어줄뿐아니라 때로 배우기도 한다. 그도 초기에 일부 행정대행을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리충현에 대해 의혹도 품었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것을 당의 사상과 정책에 비추어 재여볼줄 알았다. 때문에 리충현의 출현으로하여 생긴 불협화음을 못마땅하게만 생각한것이 아니라 개변을 위한 진통으로 접수하였다.

물론 리충현의 심각한 분석에 전적으로 다 동감할수는 없었으나 공장이 비약할수 있는 방법론을 생산실무에서가 아니라 당정책에서 찾으려는 그진실한 모태감과 또 그것으로 해서 더욱 자신에게 채찍질하고있는 리충현을 지켜보며... 《진실이란 때로는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사실 생산지휘관부들에 대한 리충현의 무자비한 평가는 오늘까지의 련합당위원회에 대한 일종의 불만일수도 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리충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최재은이로서는 가슴이 아프고 그보다 그 어떤 허무한 허탈감까지 절감하게 하는것이다.

최재은은 역시 당일군답게 곧 자기 궤도에 올라섰고 이때까지 자기가 좋게만 보아왔던 기사장과 부기사장들의 사업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며 많은 점에서 리충현을 바로 잡아주고 그를 당적으로 보호해주었다. 이런 최재은의 시점에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신중한 당적평가가 주어지고있다.

그것은 이때까지의 기성관념을 마스고 당일군인 자기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식 경제관리체제의 본질을 완전히 신념화, 체질화하지 못하고있던 모든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태도, 인생관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였다.

당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응

호하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진 당일군만이 이렇게 대담하게 자기자신까지도 해부대우에 올려놓을수 있다. 그만치 그의 말과 행동은 행정일군들이나 로동자들과 함께 모든 번민을 함께 나누고 지어 파오까지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이기에 진심으로 안겨오고 보다 힘있는 감화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이렇게 당적인간을 진실하게 그린 작품은 많지 못했다.

이러한 당적인간의 진실한 형상을 내놓을수 있었기에 작가는 그에 의거하여 당의 권위,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자기 리기적목적에 리용하려고하는 사람들의 내면세계에 깊이 파고들어가 가차없는 수술칼을 박을수 있었다.

때문에 이 작품에는 많은 부정이 날카롭게 해부되고있으나 비판과 의혹의 어두운 그늘도 없이 진실하게 안겨오고있다. 그만치 작가는 누구보다도 더 정당하게 말하고있다. 그것이 새로운것이다. 그것이 대담성이다.

×

## <비결 2. 다면적인 분석적묘사를 통해 립체적형상으로>

누구보다 더 정당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당의 사상과 생활을 더 깊이 리해하고있다면 그것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내어 생활의 앞면과 뒤면, 옆면을 다 보여주고 하나의 형상을 통해 열, 백을 헤아려볼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립체적형상을 창조하는 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예술에서는 인간성격의 본질을 생동한 생활속에서 폭넓게 밝혀내고 사건의 깊은 내용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낼 때 그리고 한장면의 생활을 통하여 지나는 생활과 앞으로의 생활을 다같이 깊이 생각하게 하며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보게 할 때 형상이 철학적심오성을 가지게 된다.》

하나의 생활, 한 인물의 성격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그리자면 다양한 시점에서의 분석적묘사를 통해 립체적형상을 창조해야 한다. 그래야 그하나를 통해 시공간적인 폭넓은 련상을 거쳐 생활의 철학적의미를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파고들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그 어떤 인물이나 생활세부를 그려도 결코 그것을 일면적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적으로 그리어 형상의 립체성을 보장하고있다.

한두가지 실례를 들자.

소설에는 부정에 대하여 예리하며 가차없이 진실을 말하는 두 인물이 그려져있다.

리충현과 류근식이다.

리충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하였다. 류근식을 보자.

그의 가장 좋은 우점은 기술과 지식이 풍부한 것이고 또 가장 나쁜점은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멸시였다. 또 그에게 좋은 점은 남을 헌신적으로 방조할줄 아는 것이었고 좋지 않은 점은 다른 사람의 방조를 즐겨하는 사람에 대한 경멸이었다. 이 모든 감정을 그는 숨기지 않았다.

우리 식 기업관리를 좀먹는 일부 지도일꾼들에 대한 그의 비판은 날카롭다.

그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하기도 하다.》

리충현은 말한다.

《사랑이 없는 부정은 실제상 가혹하게 말하면 우리 시대를 부정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소. 위대한 시대를 아름답게 감수할 능력이 마비된 사람처럼 위험하고 절망적인 사람은 없는거요.》

《...동무에겐 욕설할 권리는 있고 사랑할 의무는 없다는거지?》

《그래 동무는 그런 부정을 고쳐주기 위해서 동지들에게 무엇을 바쳤소.》

두 인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리충현의 비판은 우리 시대, 우리 제도, 우리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성이 담긴 비판이라면 류근식의 비판은 그 모든 사랑이 회박한 비판이었다.

같은 비판도 작가는 이렇게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그려준다.

×

하나의 세부, 일화의 묘사에서도 시점은 다각적이고 그만큼 분석적심도는 깊다.

수출계획을 미달하여 위원회에 불리위원라가 법적추궁을 받고 돌아온 지배인이 공장정문에 들어설 때 경제선동대원들이 출근하는 혁신자들에 게 꽃다발을 안겨주고있었다.

꽃다발을 받아안은 오랜 로동계급인 함수철로인이 지배인에게 다가온다.

싸이로에 가득한 세멘트를 두고 지대지가 없어서 지배인이 책벌받다니,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등짐으로 져다가도 했을것이 아닌가.

《미안하우다. 지배인동지는 무거운 걸음을 하시고 우린 꽃다발을 받고, 원래 우리 로동계급은 이런 명예를 바라지 않수다. 지휘관이 당앞에 죄를 졌으면 우리도 다 죄를 진거지.》

로인은 그 꽃다발을 지배인에게 주고 지배인은 그것을 또 보위대처녀에게 주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며 현정학은 지배인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배인도 분명 감동이 컸으리라!

어떤가? 이만하면 세부는 성공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닐가.

아니다. 작가는 지배인의 심중을 다른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파고들어가 새롭게 그려주고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되우? ... 이 지배인이란 사람이 더없이 가련하고 시시껄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소?>》

현정학은 놀란 눈을 들어 리충현을 피곳 치며 보더니 손을 내젓고는 자기네 설비현장쪽으로 걸어갔다.

<...리충현이! 너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 되었구나.>

리충현은 이 말을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우며 걸어갔다. 로동자들의 동정을 받는 지배인은 인간성으로 볼 때는 좋을지 몰라도 일꾼으로 볼 때는 처참한 처지의 존재이다.

그들의 젖은 눈과 너그러운 미소들, 굳게 잡아주던 손과 위로하는 말들, 아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마와도 리충현에게 주는 충격은 더없이 아팠다.》

바로 이렇게 인간심리의 전문가인 작가는 그리고있다.

그 동정이 고마와도 아팠다고...

현정학의 시점과 리충현의 시점이 하나의 세부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주면서 참으로 뜻깊은 립체적형상을 보여주는것이다.

같은 생활의 대조되는 두 측면, 한 심리의 두 측면을...

실례는 또 많다.

×

## <과거와 현재의 교차>

생활은 력사의 시점에서도 그려져야 한다.

현재와 과거를 교차적으로 그려주면서 시대적공간을 비약하는 사색속에서 력사를 배경으로 생활의 철학을 깊이있게 밝히는것은 최근 적극적으로 개척되어가는 립체적형상방법의 하나이다.

지난 시기에 이러한 수법은 일정한 계기에서 간단한 회상을 통해 인물의 뒤생활이나 생활바탕, 사건의 전달 등을 밝혀주는 보조적형상방법으로 리용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학에서는 작가의 형상적의도에 따라 《현재》를 그 《과거》의 시점에서 비쳐보고 《과거》를 《현재》의 시점에서 비쳐보면서 작품의 종자를 보다 심오히 밝혀내기 위한 적극적인 형상방법으로 등장하고있다. 《과거》는 자기대로 거의 완전한 독자적인 이야기줄거리를 이루고 《현재》의 기본이야기줄거리와 부단히 교차되면서 쌍벽을 이루어 작품의 문제성을 력사적시점에서 철학적으로 심화시켜준다.

장편소설 《환희》에서 우리는 작가의 이러한 의식적시도를 찾아볼수 있다.

리충현과 한송아의 조국해방전쟁시기 락동강전선에서의 투쟁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단히 상기되고있다. 이 작품의 주요등장인물들이 거의 다 전쟁참가자들, 총탄에 찢긴 피호르는 살을 락동강물에 적셔본 사람들이다. 특히 리충현과 한송아에게 있어서 그 시절의 추억은 한없이 귀중하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심장으로 지킨 그 고결한 정신의 높이에서 오늘 총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나날의 경제전선을 지켜선 그들의 정신세계가 분석묘사되고있다. 리충현과 한송아는 그시절에 비추어 오늘의 자신들을 부단히 다잡아나간다. 현정학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기 약점을 과거의 그 무슨 흔적과 전우들의 공적으로 덮으려는 방패로 되고있다.

하기에 《세월과 함께 강철로 된 사람들》과 《자연그대로 구새먹은 고목이 되고있는 사람들》의 예리한 대조속에 이 인물들의 인품이 분석평가되고있으며 각이한 시대를 비쳐주는 《과거》와 《현재》의 두 시점의 립체적조명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심각한 경제전의 의미가 날카롭게 음미되고있다.

어느날 행정간부협의회 뒤끝에 현정학은 말은 심각하나 표정은 태연스레 짓고 이렇게 자기비판을 했다.

《모든 가능성, 모든 잠재력이 저의 미흡한 사업능력과 우만 바라보는 의존심때문에 그것이 최대한으로 발양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기된 비판을 접수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락동강의 불비를 뚫고온 옛전사의 패기와 열정을 잠시라도 잊었다는것을 심심히 자기비판합니다.》

이 순간 리충현은 창피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무엇때문에 저 사람은 저토록 비굴해졌는가. 40년전 경력까지 암시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자는 건가.)

여기서 리충현의 눈에 비쳐든 현정학의 과거와 오늘 독자들의 눈에 비쳐든 현정학과 리충현의 판이한 대조... 하나의 초점에 시간적흐름을 비약하여 두 시대가 집약되면서 의미심장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하기에 한송아는 리충현의 모습에서 자기가 락동강시절에 보았던 그 중대장의 모습을 방불히 찾아보며 그를 거의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 시절을 두고 말할 때 그는 리충현이앞에 한생을 두고 사죄해야 할 《빛》을 지고있는것이다. 2차수술을 못탄았으로 그의 몸에 치명적인 파편을 남겨둔채 봉합하여 퇴원시켰던 그 량심의 《빛》은 사실 부끄럼기보다 숭고한것이다.

하지만 한송아는 한생을 피로와하고 리충현이앞에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는것이다.

같은 과거를 가졌던 인간들에게 있어서 서로 마주 비쳐보이는 두 시대의 음영은 이렇게 다르다.

이러한 립체적형상은 심오한 철학적사색을 안겨준다.

여러 인물들의 시점과 《과거》와 《현재》의 시점의 다면적인 교차속에서 작품의 종자는 보다 뜻깊게 철학적으로 살아나고있다.

×

## <강렬한 개성의 대조>

소설에서 형상의 립체성은 하나의 생활화폭우에 그려진 인물들의 개성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조화롭게 결합될 때 이루어진다.

개성들이 뚜렷할수록 그 교감과 대조가 짙게 조성되고 형상적화폭의 립체감은 두드러진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선명하게 개성화되었다. 리충현, 최재은, 명하진, 현정학, 한송아, 류근식, 옥심, 수련, 성호, 함수철, 목은하...

그 누구를 꼽아보라.

어슷비슷한 성격은 하나도 없다. 그들은 다 독특한 자기의 성미, 자기의 말투,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있다.

중요한것은 이러한 외적측면보다도 생활에 대한 관점, 견해, 사고방식에서 자기나름의 개성을 똑똑히 보여준다는것이다.

매 인물의 개성을 특징지음에 있어서 작가는 그것을 다면적으로 투시하여 보여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인물들의 개성적대조는 성격을 일면적으로만 보면 찾아내기 힘들다. 문제는 그의 성격의 다면적속성들의 독특한 결합방식에 있다.

로동계급으로서의 자부심이 높고 개방적이고 승벽이 세며 솔직하다는 점에서 성호와 옥심은 유사하다.

그들의 개성적차이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라는 성격구별에서만 오는것이 아니다. 옥심의 솔직성은 언제나 독특한 심리적반발의식을 거쳐 표현된다. 사랑이 깊어갈수록 그는 더 가혹하게 나왔다. 빼놓아졌다고 할가, 성호도 역시 공격적인 반발의식이 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갈수록 그는 더 대담하게 정면으로 옥박한다.

이점에서 성격적대조가 이루어졌다.

×

## <소설속의 시>

이 소설의 작가는 원래 시인이였다.

우리가 알건대 그는 서정서사시 《탐사대원의 일기》에서처럼 짙은 생활적정서가 철학적사색이 내비치는 정론적분석과 결합된 형상의 능수였다.

이 소설에서도 그의 이러한 시적개성이 나타나고있다. 이 소설에 흐르는 《시》는 정론시이다.

인물에 대하여, 생활에 대하여,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것을 대담하게 《시적으로》 토로한다.

때로는 인물의 내면독백이나 대사로, 때로는

작가자신의 분석적설화와 주정토로로...

소설에 침투된 이러한 《시》와 정론적기백, 서사적방식에 침투된 서정적인것을 다양한 형상수단과 수법들을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활을 립체적으로 그려내는데 이바지하였다.

## × <다 말하지 못한것>

생활의 풍부성, 인상깊은 세부의 섬세한 묘사, 언어표현의 정확성.

## × <아쉬운 공간>

리충현의 가정문제에서 아들 석진의 형상과제가 뚜렷치 않다.

다만 그의 인간적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필요했는가, 작품의 주제에 밀착시켜 더 큰 형상과제를 주고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여지는 없었는가.

때로 작가가 지내 독자의 사색과 판단에 간섭하면서 필요이상의 설명을 주고있는 감도 있다.

인물들의 성격평가, 사건의 의미해석에서 작가는 독자들을 믿지 못하고 지나친 로파심에 잠겨 자주 설명하는 때가 있다.

리충현의 성격과 운명은 어딘가 이미 나온 장편소설 《령마루》의 주인공을 상기시킨다.

도식과 류형의 감투를 씌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랑철한 성미라든지 숨기고있는 중

병이라든지 나중에 쓰러졌다 깨어나는것이라든지, 어느 한가지만이라도 달리 설정했으면 나았을것이다. 개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선택된 일부 세부들은 진실치 않다.

시간적여유가 생겼을 때 주패놀이를 벌린 성호의 머리우에 옥심이 바깥으로 찬물벼락을 들붓는것은 너무 지나치다.

성호 혼자 있을 때도 아닌데 실지 그런 처녀가 있을가.

## × <작품의 생명력>

시대정신에 대한 민감성, 충실성은 이 작품의 생명력이라고 할수 있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생동한 형상으로 확증하며 광범한 근로대중을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으로 불러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작가의 심장은 언제나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 당의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관철하려는 투철한 각오와 신념에 불타야 한다. 그것은 순결해야 한다.

그만치 사회주의기둥을 좀먹으려는 숨은 《혁명적의 적》들에 대하여 무자비하여야 하며 예리한 당정책적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깊이 체험하고 철학적으로 깊이있는 형상을 창조하기 위해 분발하여야 할것이다.

## 류다른 일과

깨어나서 잘 때까지  
우리의 3대혁명소조원에겐  
류다른 일과 있어라

조직에서 정해진 일 없고  
사람들 때준 시간 없건만  
나라를 위한 마음  
별목공들을 사랑하는 마음  
의무로 정해진 류다른 일과

남들 쉬는 시간에  
함께 질기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도끼를 갈고 톱을 끌어주고...

땀들이는 찜시간에조차  
토배기말로 구수하게  
강연도, 위훈담도 들려주고...

기계화된 끝없는 산판

그 어데나 정선이 수놓아져  
별목공들 즐겨 따르는 우리의 소조원

꽃피는 철  
열매 익는 철  
눈오고 비 내리는 계절  
언제나 그 일과 변함없거니

아, 3대혁명소조원의 류다른 일과는  
나의 새 성과를 날게 하여주고  
인민의 기쁨을 더하여주는 일과

3대혁명소조원의 류다른 일과는  
흐르는 세월에 충성을 수놓게 하고  
산관가득 혁신의 메아리 울리게 하며  
3대혁명의 열풍속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게 하는것이여라

## 조롱관



## 굴진중대장의 초상

조명기

고백하건대 내가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문천 탄광 청년갱 굴진중대장 안진철을 주인공으로 정한것은 극히 실무적이었다. 계획과에 들려 통계철의 수자를 보고 선정했기때문이다. 갱별, 중대별생산실적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되어있는 통계철의 수자는 10년동안 안진철굴진중대의 굴진실적이 체계적으로 높아졌다는것과 새해에도 맨 앞장에서 내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탄광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새로운 탄광들을 더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까.》

탄광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법칙이다. 그러니 이곳 탄광에서 매해 석탄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해온 그 자랑스런 성과에는 청년갱 굴진중대의 역할이 컸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마 독자들은 마치 보도기사를 쓰는 경제부기자처럼 실적만 보고 주인공을 택한 실무적인 처사에 실망할지도 모른다. 물론 먼저 대상의 사업과 생활을 폭넓게 파악하는것이 초보적인 요구인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상이 일정한 단위를 책임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가 맡은 단위의 생산실적만 보고도 능히 그를 파악할수 있는것이다. 공고하고 실속있는 사업성과는 일군의 직위나 권한에 의하여 실무적으로 이룩되는것이 아니라 대중의 창조적지혜에 의하여 마련되는것이고 그 창조적지혜는 그들을 조직동원하는 일군의 높은 능력과 고상한 품모에 의하여서만 더 원만히 발양되는것이기때문이다.

비록 단순한 수자로 표현된 그 생산실적속에는 바로 그것을 이룩한 인간의 사상과 취미와 품모가 어려있는것이다.

### 첫인상

아침 첫시간이었으나 안진철은 중대휴계실에 없었다. 갱장의 말이 벌써 출근한지가 퍼그나 되는데 난장에 있을리 만무하다는것이였다.

《우리 굴진중대장은 1교대총화도 초소장들의 보고만 듣고 짓는 법이 없수다. 언제나 남먼저 출근하여 중요굴진마구리들을 제눈으로 돌아보고야 총화를 짓지요.》

안진철이 하루일과의 첫걸음을 어떻게 떼는가

하는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였다.

그를 만나려면 막장으로 찾아들어가는수밖에 없었다. 갱장의 안내로 안진철을 만난것은 3수 굴진마구리에서였다. 마구리속을 밝혀주는 빛이란 저저마다 이마에 인 안전등불빛뿐이였다. 그 희미한 불빛속에서 안진철과 인사를 나누며 첫순간 의아해졌다. 공훈광부칭호까지 받은 사람이어서 나이가 지숙할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40대의 젊은 사람이였다. 보통키에 몸이 부한축이 아닌 안진철의 첫인상에서 유별난것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듯한 빛나는 눈빛이였다.

얼굴은 선이 부드럽고 잔잔하여 어딘가 녀성적인 성격일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그러니 구체적이고 간간할수밖에.

금방 갱으로 들어오면서 작업장들을 인계하고 나가는 굴진공들이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에예, 우리 중대장은 난장에서도 마구리까지 뻘히 들여다보는 재간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게 량심에 꺼리는것이 있으면 총화하기전에 먼저 다 털어놓는게 상책이라니.》

어지간히 땀들을 빼는 모양이였다.

그대신 결단성과 내밀심이 미약하지 않을까? 길면 실하지 못하고 실하면 길지 못한법이 아닌가.

마치 나의 이런 추측을 반박이나 하듯이 안진철의 성난 목소리가 마구리안을 무겁게 울렸다.

《아니, 무슨 동발을 이렇게 드리였소?!》

임창순소대원들이 드린 동발을 보며 추궁하는 소리였다.

누구도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다.

안진철이도 더는 추궁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그는 동발을 와락 해체하더니 제손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다. 날래고 정확하고 확신성있는 일숨씨가 더 하고싶은 말을 대신해줄뿐이였다.

생김새와 성미가 판판 다른 사람인가? ...

아니 다른것이 아니였다. 난장에서 안진철을 다시 만나보고야 이것을 확신하였다.

굴진중대휴계실에 가니 2교대 일을 마친 굴진공들이 모여있었다. 작업총화를 하려는 모양이였다. 때마침 왔다고 생각하고 작업총화에 참가해볼 심산으로 한쪽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웬 젊은 아주머니가 나서서 소박한 음식들을 한가운데 펼쳐놓는것이였다.

작업총화는 이미 끝난 모양이였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것 같았다. 그렇다고 아직 낮도 익히지 못한

사람들뿐인데 내용 모르는 장소에 그냥 있기가 뵈하여 자리를 피하려는데 중대장이 들어왔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그를 보는 순간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쏘는듯한 정기도는 눈빛! 분명 안진철이었으나 얼굴모습은 굴진마구리에서 익힌 그 모습이 아니었다. 선이 부드러운 여성적인 얼굴이 아니라 모가 나고 다져진듯한 딱하고 과묵한 얼굴이었다.

모든것은 《검은금》이 부린 조화였다.

어두운 막장에서는 안전등불빛이 무대조명처럼 재간을 부려 《검은금》 조화가 더 큰 효과를 냈던것이다.

안진철이 들어오자 아주머니가 술병을 내놓았다. 알고보니 그는 중대장의 안해였다.

사람은 여럿인데 잔은 안진철이 들고있는 흰사기고뿌 하나였다. 중대장은 먼저 내게 권하였다.

내가 사양하자 그는 두번다시 권해보지도 않고 그 잔을 남정현소대의 석재만에게 내밀었다.

《욕두 제일 많이 먹고 일도 제일 많이 했다고 남먼저 주는겁니까?》

그래도 안진철의 딱한 얼굴은 전혀 변함이 없고 대답도 없었다. 그 정기도는 눈만이 한순간 웃는듯마는듯 할뿐이었다.

두번째는 김상원소대의 정병환, 그다음은 누구 누구... 모두 나이들이 어긋비슷하여 누가 우인지 모르겠으나 순서가 나이순서는 아니었다. 1월굴진계획을 보름동안에 해내고 월말까지 2월분계획을 해낼 결의를 안고 내닫는 남정현소대의 석재만이 첫번째인것으로 보아 분명 일을 많이 한 순서였다. 그런데 《소연회》가 무슨 의미로 마련된것인지 그것이 짐작되지 않았다.

1월 18일, 중대가 3대혁명붉은기를 받은 날도 아니고 안진철이 공훈광부가 된 날도 아니었다.

추측해보다못해 안진철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는 그저 레사롭게 《내 생일입니다.》 하는것이었다.

《?!...》

안진철을 다시 쳐다보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자신의 기쁨과 가정의 즐거움까지도 중대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소박한 마음과 진정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아직 명백치는 않았지만 중대의 굴진성과를 떠밀어나가는 안진철의 모습이 보이는듯하였다.

## 목표와 자세

독자들은 아마 필자가 부기나 통계일군처럼 수자에 꽤 관심이 많다고 비평하겠지만 또 수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수 없다.

휴계일이 조용해지자 나는 안진철에게 중대 년간굴진계획과 1월계획을 물어보았다. 18일현재계획대 실적을 따져보기 위해서였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계속 피어야 가치가 있

듯이 10년나마 계획을 넘쳐해냈다고 해도 중대의 1월 실적이 역시 좋아야 안전철을 자랑할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안전철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리다가 한참 생각을 해보고서야 마치 남의 중대 계획수자를 이야기하듯이 대는것이였다.

도무지 리해가 되지 않았다.

《중대장이 자기 중대에 맡겨진 국가계획이야 정확히 알고있어야지요.》

저도 모르게 분수에 맞지 않는 추궁이 뛰어나왔다.

《그야 물론이지요.》

안진철은 년간 중대의 굴진목표로부터 아홉개 소대의 굴진목표를 셈을 세듯 거침없이 내리붙렸다. 알고보니 그것은 국가계획보다 퍼그나 높은 초급당위원회결정서에 밝혀진 전투계획수자였다.

중대장뿐만아니라 소대장들과 모든 중대원들이 국가계획수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중대장이 알려주지부터 않는다는것이였다.

소대장 한철규에게 동무도 모르는가고 물었더니 그 국가계획수자때문에 버릇이 떨어지던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11수 우2편 올리굴을 뚫을 때였다. 기세 좋게 전진하던 소대앞에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였다. 밑은 암석층이고 우에는 단층인 구간에 맞다든지였다. 암석층에 발파를 하면 탄이 무너져내려 막장이 깨질 우려가 있었다. 그렇지만 앞길이 굳어서 발파를 하지 않고는 용빼는수가 없었다.

한철규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소대들한테 뒤떨어질수밖에 없게 되였다는 좌절감때문이었다.

암석층에 조심히 발파를 진행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대로 탄층이 왈칵 쏟아져내렸다. 정상적인 버력량의 몇배나 되는것이였다.

소대의 굴진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말그대로 탄에 묻혀 앉아몽개고있는 소대의 굴진마구리에 중대장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구야 이달 계획을 때 해내겠소?》

눈앞에 벌어진 형편은 전혀 모르쇠를 하고 맥을 놓고 앉아있는 한철규에게 추궁부터 하였다.

한철규는 속이 불끈했다.

《걱정마우다. 전투계획은 힘들지만 국가계획이야 못해내겠나요. 이런 조건에서야 그만해도...》

《뭐요?!》

안진철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막장안을 무겁게 내리누르는듯하였다.

《그런 오그랑수를 생각하고있으니 난관을 헤쳐나갈 용기와 방도가 생길게 뭐요. 동문 내게 소대를 인계하고 휴가를 받던가 난장에 나가 공부를 하던가 마음대로 하오.》

한철규는 씩씩거리며 동발목에 주저앉아 담배를 붙여물었다.

이 시각부터 안진철은 소대장이 되어 편사흘을 막장을 떠나지 않고 소대원들의 앞장에 서서 탄이 쏟아져내리는 구간을 극복하였다.

《그때 별 <감투>를 다 썼습니다. 요령주의자, 비겁분자, 패배주의자… 나중에 소대장자격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지요.》

《그래 가만히 <매>를 맞기만 했소?》

《재간있습니까. 말로는 그런 욕을 하고 실천 행동으로는 그것을 눈앞에서 증명해보이는데야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래 그 <감투>를 오래 쓰고있었소?》

《아니요. 인차 벗어버렸지요. 중대장이 곁에 붙어있으면서 몸을 내대고 도와주는데 맥을 놓고있을수가 있나요.》

《그러니 벗은게 아니라 중대장이 벗겨주었구만.》

한철규는 그저 웃기만 하였다.

함께 11수로 올라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으니 안진철은 제 자랑 같아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땅속을 뚫고 들어가는 일이란 공장일과는 달라서 어떤 난관에 부딪치겠는지 다는 짐작할수 없습니다. 예실치 못했던 정황과 맞다들 때가 드문하지요. 그런데 조건타발을 하거나 오그랑수를 쓸 내기해서는 계획을 해낼수 없습니다. 어떤 막다른 정황에 부닥쳐도 무조건 뚫고나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도 계획을 해내기가 조련치 않은데 정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려가지고야 난관을 이겨냅니다. 굴진을 15년 하였지만 그저 순조롭게 계획을 해본적은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의미깊은 말이였다.

목표는 높이, 일단 정한 목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이것이 안진철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계획수행에 대한 단련있는 자세와 립장이였다. 그는 이 자세와 립장으로 언제나 앞장에 서서 중대를 이끄는 것이였다.

## 중대는 언제나 나란히

탄광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울림천기슭에 7층 짜리주택 세동이 의종은 3형제처럼 나란히 서있다. 그중 첫번째아파트가 탄광 굴진소대장이아파트이다.

그 아파트 1현관에 청년갱 굴진소대장들이 살고있다.

1층 2호 임창순, 2층 4호 정영섭… 출입문마다에 문패가 붙어있다.

4층 8호 남정현네 집 전실원탁우에는 잠자는 고양이처럼 전화기가 얹혀져 있다. 세대주들이 굴진성과를 부쩍 높여 탄광방송원치녀가 목청을 돋구어 연방 남편들의 이름을 불러 칭찬할 때

면 《얹혀진 고양이》는 주인집아주머니에게 연방 기쁜 심부름을 시킨다. 그러나 때로는 다급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

1월도 하순에 잡아든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4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기척없이 자던 《얹혀진 고양이》가 요란하게 울어댔다. 쌀을 일던 리순희 아주머니는 쌀함박을 부뚜막에 놓고 행주치마에 손을 문대며 달려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안진철이요.》

《아니, 이 새벽에 중대장이아씨가 어떻게?...엿저녁에 집에 내려오시지 않았구만요.》

아주머니는 반색을 하며 인사말을 건넸으나 그에는 응대도 없이 툭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소대장들 비상소집이요. 늦어도 다섯시반까지 11수에 와야 하우. 교대부중대장들 다.》

《아니 무슨 일이?...》

전화는 벌써 끊어졌다.

아주머니는 그길로 옷층으로 아래층으로 뛰어다니며 중대장의 《폭풍》신호를 전달하였다.

2교대와 3교대 소대장들과 교대부중대장들이 갯으로 달려오고있을 때 안진철은 벌써 11수 정영섭소대의 굴진막장에 와있었다. 본선 굴진을 기세좋게 밀고나가던 정영섭소대의 막장이 봉락으로 그만 더 전진할수 없게 되었던것이다.

정영섭은 중대장앞에 얼굴을 들수 없었다. 암질이 하도 좋아 무동발상태로 전진하면서 성과에 봉며서 경각성을 늦추어 막장을 깨먹었다는 자책감때문만이 아니였다. 봉락구간이 탄발인데다가 고굴까지 겹쳐서 무너져내린 버력이 무려 수십톤이나 되였다. 소대힘으로 그것을 다 끌어내고 막장을 살리자면 한주일은 나마 걸릴것이였다. 월말까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니 월전투 계획을 해내지 못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였다.

새해 첫달에 계획을 못한 소대가 되다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뒤편어진 소대가 없던 중대의 명예에도 오점을 남기게 되지 않았는가.

몸부림을 참고있는 정영섭의 심정을 꿰뚫어본 안진철은 추궁대신 《따까나 흘러야 되겠구만》하고 레사롭게 한마디 하였다. 그 한마디가 소대원들에게는 힘이 되였다.

드디어 소대장들과 교대부중대장들이 전투준비를 갖추고 막장에 도착하였다.

부끄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정영섭에게 소대장들은 웃음을 지어보일 뿐이였다. 그 웃음을 통해 정영섭은 《여, 뭘 그래, 난관에 부딪친 소대를 중대가 달라붙어 돕는거야 중대장이 세워놓은 기풍이 아니야》 하는 속대사를 가슴뜨겁게 듣고있었다.

비상소집에 락오자가 없는가를 점검해본 안진철은 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누구는 막장감시, 누구누구는 동발보장, 누구는 광차보장... 나머지 인원은 버럭치리.

명령은 간단명료하였다. 드디어 《비상전투》가 개시되었다.

소대함으로는 한주일나마 걸릴 아름다운 전투가 16시간만에 끝나고 막장이 다시 꾸러졌다.

불의의 난관에 부딪쳐 일시 좌절되었던 정영섭 소대의 굴진속도는 다시 자기 궤도에 들어섰고 락오자가 아니라 다른 소대들보다 먼저 1월전투 계획을 넘쳐해냈다.

중대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일으키며 전진하지만 1렬행대의 대렬행진이 아닌만큼 소대별 순위는 있기마련이다.

1월전투계획수행에서 중대의 도움을 받은 정영섭소대가 기본굴진소대들중에서는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였고 소대별 사회주의경쟁에서도 중대에서 3등을 하였다.

준비굴진소대장 김기수에게 도움을 받은 정영섭소대는 3등을 하고 도움을 준 동무네 소대는 그보다 뒤자리를 차지했으니 섭섭하지 않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섭섭하다니요. 그쯤은 남의 일을 도와주었다

고 티를 내거나 그래서 자기 일에 지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대엔 없습니다. 3대혁명붉은기 안전철굴진중대가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 중대에 대한 자량과 긍지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당의 이 구호를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석탄생산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더 큰 기쁨을 드리려는 오직 이 하나의 일념으로 살며 일해나가는 것이 중대에 차넘치는 기백이고 기풍이었다.

이것을 위해 안전철은 굴진중대장이 된 첫날부터 몸도 마음도 지해도 정열도 다 바쳐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공훈광부칭호를 받았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기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송구해서 머칠 중대원들 대하기가 멋적습니다. 일이야 어디 내혼자 했습니까.》

## 우정

김석천

먼 북변의 개발지에서  
서로가 사양해  
줄어들지 않던 한모금 더운물로  
이 가슴에 후덥게 맺혀있는것

대학으로 떠나는 나를 바래며  
렬차를 따라 달리던  
돌격대 벗들의 선한 모습으로  
눈동자에 오래도록 비껴있는것 ...

우정은 귀중한 동무이던가  
동무는 진실한 우정이던가  
둘로 가를수 없는 심장처럼  
그것은 언제나 함께 있는것이어서

때로 돌격대 천막속에서  
벗들이 부어주는 생일잔에도 곁여지더라  
때로 앓는 동무에게  
아낌없이 주는 더운 피로 흘려들더라

비는 법이 없어라  
성스러운 일에 몸을 바쳐  
설사 내 먼저 떠나간대도  
벗들의 우정이 내자리를 지켜주어

무릎이 떨리지 않아라  
무너지는 갯도속에 뛰여든대도  
불타는 전장에 달려간대도  
내 이런 우정과 함께라면...

사랑하지 않으리라!  
벽찬 생활속에 있지 않고  
안온한 보금자리에 네가 있다면  
우정아 너는 혁명하는 삶에만 깃드는것

내 너를 버린다면  
세상밖에 홀로선 외로운 방랑아  
그렇더라 사랑을 주는 혈육의 정우에  
목숨을 주는 동지의 우정이 있어라!

## 언제나 그날처럼

강수

자재과장 엄진호는 고향에 갔다오던 길로 자기 방에도 들리지 않고 지배인실부터 먼저 찾았다.

《그새 잘 있었습니까?》

량수책상에 앉아 계획공정을 따져보던 조한섭 지배인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벌써 오우?》

엄진호는 들가방을 의자옆에 놓고 앉으며 손수건을 꺼내어 목덜미의 땀을 훔치었다.

《벌써가 됩니까. 자재과장이란 사람이 나홀씩이나 자리를 비워두고 제불장만 볼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돌아서면 어머니이 섭섭해하지 않겠소?》

《우리 어머니는 제가 겨우 짬을 내어 왔다니 자기 진갑에 와준것만해두 고맙다면서 오히려 제등을 떠밀어주더구만요. 그래 섭섭지 않게 헤어졌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어머니시군.》

한섭지배인은 감심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재과장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새 중국에서 지도원동지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려왔소.》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분의 자재를 다반기로 했습니까?》

지배인은 그의 심정이 헤아려져 웃음을 앞세우면서 그 문제는 차차 토론하고 피곤할텐데 우선 가서 쉼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호는 물려서지 않고 계속 따져물었다. 한섭지배인은 할수없이 엄과장에게 그간에 있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중국지도원에게 자재를 20%나 받지 않고 이달계획을 해보겠다고 했단말입니까?》

엄진호는 대뜸 얼굴이 꺼매졌다. 일이 이렇게 번져질것 같아 떠나기전에 지배인이며 계획과장을 만나 계획분의 자재를 무조건 다 받도록 해달라고 몇번이고 부탁했는데 그와 정반대로 되고만 것이었다.

엄진호는 어이없는 눈길로 동실한 지배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져물었다.

《제가 그만큼 강조하고 떠난 일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계획분의 자재를 20%씩이나 안받고 이달계획을 내밀다가 박기사의 안이 뛰는날엔 이 자재과장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계획분의 자재를 다 받도록 합시다.》

《허허, 엄동무의 고집도 이만저만이 아니군.》하고 너그럽게 웃고나서 말을 이었다. 《현장동무들이 이구동성으로 압연직장 박동무의 창의고안을 왜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의 안대로 내부예비를 찾아 이달계획을 캐보자고 막 호소하는데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쓴외보듯 할수야 없지 않소. 그래서 중국지도원에게...》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쓴맛을 보고도 아직 거기에 기대를 건단말입니까? 설사 기대를 걸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받게 되어있는 자재를 다 받아놓고도 얼마든지 내부예비를 찾을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주머니 돈 열냥보다 제주머니안의 한냥이 낫다고 만약의 경우도 생각해야할게 아닙니까.》

《됐소. 그 문제는 그만 논의합시다. 나도 다 타산이 있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마음을 놓소.》

《저는 마음을 못놓겠습니다. 자재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팔짱을 끼고 보고만있겠습니까. 이제 당장 중국에...》

지배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바람에 엄진호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다. 지배인은 흥분한듯 창문앞에서 잠시 서성거리더니 엄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동무는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소. 내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타격식절단기를 창안했을 때 발벗고나서 도와주던 그날의 기백은 어디로 갔소? 나는 동무가 나날이 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오.》

《지배인동지, 그런 말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아닙니까. 제살궁냥도 해야지요.》

《뭐요? 동무도 그렇게 살겠단말이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거처온 사람들인데 그 궁지와 자부심을 잊고 그렇게 너절하게 살겠소. 제살궁냥이라니... 제발 그런 웅졸한 생각은 집어치우시오.》

《됐습니다. 아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까지는 제가 또 중국문턱에 발을 들여놓아야겠습니다.》

결김에 자리를 차고 일어난 엄진호는 의자옆에 놓았던 가방을 들고 한숨 비슷한 소리로 방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지배인실을 나섰다.

밖에서는 한낮의 뜨거운 해빛이 내리비치고있었다. 엄진호는 머리를 수긋하고 구내길을 가로질러 부지런히 정문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속보판앞을 지날 때였다.

《과장동지!》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것 같아 진호는 우뚝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압연직장의 박기사가 작업복차림으로 헐레벌떡 뛰어오고있었다.

《방금 지배인동지를 만나고 오는길인데 총국엔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왜?》

엄진호는 대답지 않게 그를 바라보았다.

《중전의 안을 그대로 생산에 도입해보자는겁니다. 지배인동지가 연구소에 방조까지 청했으니 이번엔 문제없습니다.》

그는 엄과장의 찌프러진 미간을 보더니 더욱 비위를 내대며 달라붙었다.

《가만 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문제라면 후에 토론하기로. 그럼...》

엄진호는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수 없다는듯 휙 돌아서서 다시 정문쪽으로 털썩털썩 걸어갔다.

《아, 과장동지, 제발 가지 마십시오. 금속연구소의 한 녀성연구사가 우리를 돕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 이번엔 기어이 ...》

박기사는 그간의 사실을 죄다 까밝히려 했지만 잔뜩 뻘뻘해진 엄진호에게는 시끄럽기 그지없었다.

자기를 찾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면클수록 그의 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않았다. 저 사람이 아니라면 지배인이 오늘처럼 이렇게 일을 엮질러놓지 않았을것이며 자기도 수고스럽게 교향에 갔다오자마자 총국걸음을 하지않아도 되었을것이다.

생각할수록 어이 없는 일이었다.

자재과장의 본분을 다하려고 그는 더욱 걸음을 다그쳤다. 그 걸음에 모든 운명이 달려있기라도 한듯이.

×

렬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새로 렬차에 오른 손님들이 자리를 잡느라고 차칸안이 한동안 흥성거렸다. 그바람에 총국에 올라가 일을 보느라고 바빠 뛰어다닌탓에 피곤이 몰릴대로 몰려 술곳이 잠들었던 엄진호는 그만 선잠에서 깨어나고말았다.

엄진호는 아니꼬운 눈길을 건너편 좌석에 던졌다. 방금 오른 대여섯명의 처녀대학생들이 좌석에 앉은 중년부인을 둘러싸고 법석 교아대고있었던것이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야, 선생님은 작년 여름에 우리 대학에 와서 초빙강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 동무들이구만요! ...그런데 어디들 이렇게 ...》

차칸에서 지나친 소란은 려행하는 손님들에게 실례로 된다는것을 뻔히 알고도 남을 그들이건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기분에만 들떠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선생님은 어데 가십니까?》

《글쎄, 어데로 가야 한다고 할지... 며칠전에 인민대학습당에서 현직기사동무들에게 나의 연구론문을 가지고 강의한적이 있는데 그 강의에 참가한 스금속공장 현장기사의 이야기를 들은 그곳 지배인동지가 저한테 자기네 공장 현장기사가 연구한 설계도면과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사연인즉 그도 나와 비슷한 연구안을 가지고 모태기던끝에 마침내 자기네 공장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게 아니겠어요. 제가 잘 아는 지배인의 첫부탁인데다가 설계도면을 보니 나보다 더 기발하게 착상했더군요. 그래 지금 스금속공장으로...》

스금속공장, 그 소리에 엄진호는 귀가 항아리만해졌다. 공장을 떠나기전에 지배인이며 박기사가 하던 말이 생각났던것이다. 사전에 이런 약속들이 있어 지배인은 자기에게 타산이 다 있으니 마음놓으라고 큰소리를 치고 박기사도 덩달아 금속연구소의 녀성연구사와 합심하면 문제없으니 제발 총국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것이 아닐까?

엄진호는 녀인을 바라보며 자기네 공장을 도우려고 찾아오는 사람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죄송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 늦게나마 인사를 차리자고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도로 주저앉고말았다. 별로 낮이 익어보였던것이다.

(어디서 만났던 녀인일까?)

아무리 궁리해보아도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엄진호가 녀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처녀들이 또 입을 열고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했다.

《선생님의 논문을 놓고 호평들이 대단하다던데 그걸 고스란히 내놓자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스금속공장에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걸 다...》

《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지요?》

대학생처녀들의 물음에 녀인은 생긋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웁어요. 동무들이 비슷이 맞췄어요. 그렇다고 놀랄건 없어요. 그걸 누가 성공하건 하루빨리 생산에 도입하여 나라살림에 보탬을 준다면 그보다 더한것도 다 내놓겠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의 거울로 삼고 지내는 그 지배인동무에게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제가 다소나마 남을 생각하고 생산을 생각할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면 그건 그 지배인동무 덕분이예요.》

이렇게 말머리를 떼고 창밖의 먼 산발을 더듬는 녀인의 두눈귀엔 실오리같은 잔주름이 가득 어려있었다.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떤분이기에 …》

처녀들이 너인의 무릎을 잡아흔들며 독촉했다. 그러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승객들도 그게 좋겠다고 쌍수를 들고 나섰다.

너인은 사람들의 독촉에 못이겨 하는수 없이 창밖에서 눈길을 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가 1956년 12월전원회의가 있는 그 다음 해였으니 바로 1957년 3월이라고 생각해요…》

도간도간 끊기는 렬차의 단조로운 차륜소리속에 너인의 이야기가 다시 계속되었다.

엄진호도 자리에 앉은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3월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수림속 골짜기마다엔 눈이 쌓여있었다. 눈속에 허리를 묻힌 골짜기의 새초들은 난쟁이처럼 웃초리를 내밀고 까뭇거리고있었다.

듬성듬성한 아카시아와 로송들사이로 까만 치마저고리에 흰 목도리를 두른 한 처녀가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오르고있었다. 동그란 어깨우에 흘러내린 탐스러운 머리채며 진주처럼 반짝이는 두눈, 영두알같은 작은입, 홍조어린 두볼에 오목하니 패인 볼우물, 첫눈에도 당돌하고 오돌차보이는 처녀였다.

처녀는 시내에 있는 철물집에 아버지의 쪽지편지를 전해주고 오는길이었다.

문득 왼쪽 산허리에서 법석 고아대는 소리가 들려 머리칼이 오싹해진 처녀는 울퉁한 눈길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츄츄히 자란 애술사이로 웬 두사람이 불타다만 통나무를 사이 에 두고 옥신각신하고있었는데 그중의 한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

처녀는 어린애처럼 《아버지!》 하고 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이 나문 못가져갑니다.》

《아니, 입잔 어디서 온 누군데 남보구 이래라저래라 참견이우?》

무명바지저고리에 회색조끼를 받쳐입고 은테안경을 코등에 건 갱뽕한 처녀의 아버지가 못마땅한듯 상대방을 흘려보며 노기등등해서 소리쳤다. 그리고는 자기곁에 다가온 딸애를 보자 버럭 역정을 내었다.

《넌 왜 멍청히 서있는거냐? 어서 나무를 끌구 내려갈 생각을 앗구…》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총에 주눅이 든 처녀는 말없이 통나무를 메려는 아버지를 도와 한쪽 귀통이를 받들어주었다.

그런자 청년이 처녀를 밀어제끼며 따지고들었다.

《그래 아바이넨 이 많은 나무를 뿔에 쓰자고 그러니까?》

《무엇에 쓰긴, 불을 때자는게지.》

《예? 그건 안됩니다. 이 나문 공장에서 써야합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창고고안을 해놓구 받침판으로 쓸 나무가 없어 시운전을 못하는데 그게 어디 될 말입니까?》

그리고는 다짜고짜 처녀의 아버지가 멘 통나무를 훌쩍 들어 땅바닥에 내려놓더니 그우에 펴적 주저앉는것이였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의 행동이 아니꼬와 한마디 내뱉었다.

《동무가 뭐게 그 나무를 가로타고 앉는거요? 나무가 그렇게 필요하면 생나무를 찍으란말이오. 부디부디 늙은이가 끌어모은 나무를 놓구 체통에 어울리지 않게…》

《아바이 이 나무들이 집의 터발에 꽃아두었던 말짱인줄 아시우? 미국놈 폭격에 상처를 입은것만해두 가슴아픈데 생나무를 찍으라구요? 그건안됩니다.》

청년은 주머니에서 써레기담배쌈지를 꺼내여 말기 시작했다.

그때에야 처녀는 알긋은 눈길로 상대방의 용모를 훑쳐보았다.

진한 눈썹밑에 남의 속을 꿰뚫어보는것 같은 두눈, 꼭 다문 입술, 짝 벌어진 어깨, 의젓하고 당당해보이는 앞음새, 어딘지 모르게 범접할수 없는 위엄이 풍기는 젊은이였다.

아버지는 뜨적뜨적 담배를 마는 그 청년의 거동이 눈에 거슬렸던지 아니면 고집스러운 이 청년과 맞섰대야 이길것 같지 않아서였던지 《흥!》 하고 코웃음치더니 《허참, 하두 오래 살면 손주로망하는걸 본다더니 내 오늘 별꼴 다 보는군… 손애야, 어서 내려가자!》하고는 눈판우에 난 오솔길을 따라 씨엥씨엥 걸어내려갔다.

순애는 분했다. 꼭 자기네가 모욕을 당한것 같았다. 내가 처녀가 아니고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나오랴싶은 생각과 함께 자기를 녀자라고 알잡아보는것 같아 패씹하기 그지없었다.

순애도 쌍태머리를 뺨 뒤로 넘기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산밑에 들어앉은 자그마한 독채인 자기집으로 내려왔다.

이 집에서 순애는 중학을 졸업한후 아버지와 함께 령을 넘어 오가는 철물장사치들과 길손들에게 방도 빌려주고 밥도 지어주면서 때론 그들의 심부름도 들어주며 거기서 나오는 푼전으로 살아가고있었다. 말하자면 《려인숙》을 차려놓고 사는 셈이였다.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단잠을 자던 순애는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는 한동안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이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휘영청 밝은 달빛아래서 웬 사람이 지게우의 나무그루터기들을 부리우고있었다. 분명 초저녁에 만났던 그 청년이였

다. 청년의 모습을 일별해본 순간 가슴이 후두두 뛰며 도로 자리에 눕고말았다.

그렇게 사나와보이던 청년의 가슴속에 저렇게 착한 마음이 깃들어있었는가싶었다. 자기가 가져갈 나무대신에 밤새껏 땀나무를 해다주고있는 청년, 저런 훌륭한 청년을 잡시나마 꼭해하다니!

순애의 눈앞에는 지계옆에 무드기 쌓여있는 나무그루터기며 삭정이단이 자꾸만 얼른거려 가만히 누워있을수 없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슬며시 창구명앞으로 다가갔다.

《어마나, 저 동무가 다리까지 상했구나...》

순애는 지계바줄을 거두며 절름거리는 모습을 보자 죄스러운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무거운 나무지계를 지고 내려오다가 어느 산비탈에서 굴은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심하게 다리를 절수 있겠는가?

순애는 아버지를 깨우려다 말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니, 이러지 마세요. 불편한 몸으로 쉬지도 못하고 밤새껏...》

《괜찮습니다. 이젠 아버님이 찍어놓았던 통나무대신...전 가봐야겠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빨리 끌어내려야 하니까요.》

그리고나서 청년은 순애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대문밖으로 걸어가는것이였다.

《아니 저...》

순애가 청년을 따라가며 몸이라도 녹이고가라고불렀으나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절뚝거리며 맞은편 산등성이를 향해 천천히 올라가는것이였다.

순애는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서 멀어져가는 청년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노라니 마음이 별로 뒤숭숭해지는게 이상스러웠다.

순애는 마치 자기 잘못때문에 그 청년이 공연한 고생을 하는것 같고 공장을 위해 희생성을 발휘하는 그 청년이 한없이 돋보였다. 한참이나 그가 올라간 산관을 바라보며 우두거니 섰던 순애는 마침내 방안으로 달려들어가 옷을 든든히 차려입고 아버지 몰래 마당에 나섰다.

새벽이라 하지만 산이 병풍처럼 둘러막힌 골짜기안은 어둠에 싸여 아직도 먹물을 뿌린것처럼 컴컴했다. 유독 청년이 올라간 산등성이만은 대낮처럼 밝았다. 그곳에서는 어둠을 밀어내며 모닥불이타올라 순애의 마음을 끌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 청년의 인간적인 매력이 쇠불이를 끄는 자석처럼 순애의 마음을 끌어당기고있었다.

청년은 순애가 곁에 와 선줄도 모르고 흰 도끼밥을 날리며 통나무를 자르고있었다.

《저...》

순애는 조용히 인기척을 내며 자기가 왔다는것을 알렸다. 그제야 청년은 순애가 있는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저... 아버님이 올라가보라구 해서...》

순애는 스스로 올라왔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워 슬쩍 아버지 핑계를 대고말았다. 그리고는 뚫어지게 쳐다보는 청년의 눈길에서 발뻘이라도 하려는듯 허리춤에 찻던 손도끼로 통나무의 곁가지를 쳐나가기 시작하였다.

《제가 하지요. 아버지가 기다릴텐데 어서 내려가보십시오.》

그러나 순애는 청년의 말을 듣는등마는듯했다. 청년도 할수 없는지 다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저... 우릴 나무람하셨죠? ...그러나 우린 그런 린색한 사람들이 아니예요. 미국놈 폭격에 어머니를 잃고 넉넉치 못한 살림을 지탱해나가자니 자연히 성격들이 이즈러져서...》

《나무람이야 뭘... 모든것이 미국놈때문이지요. 그놈때문에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내가 다니는 공장도 아직은 힘겨운 걸음을 걷고있지요.》

청년은 아쉬움과 증오가 한데 엉킨 시선으로 저멀리 노을비낀 공장쪽하늘을 바라보더니 울적한기분을 전환시키려는듯 말머리를 돌렸다.

《참, 이름이 순애라고 했지요?》 청년은 이름을 어느결에 익혔는지 슬쩍 한마디 던지며 처녀의 기색을 살피었다.

《순애동무, 저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공장에서 울려오는 동음소리가 말입니다. 지금쯤 평장할겁니다. 장군님께서 찾아주셨던 정다운 일터에서 생기에 넘친 우리 동무들이 로동의 희열을 느끼며 지금 막 쇠물을 끓이고 강편을 밀어내고있을겁니다. 순애동무, 우리 공장에 한번 오십시오. 노래가 있고 생활이 끓어번지는 우리 공장에 말입니다.》

청년은 어쩌나 흥분했던지 처녀와 구면이기라도한듯 허물없이 손세까지 써가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순애도 청년의 말에 감심한듯 그가 일하는 공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어느새 눈부신 태양이 동산마루에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다.

순애의 두볼은 사과알처럼 빨갭게 달아올랐고 청년의 온몸에서는 단내가 확확 풍기였다.

《순애동무, 난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제강소에 찾아오셨던 력사의 그날을 잊을수가 없소.》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타다남은 백양나무밑에 허물없이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교 공장이 해야할 일들을 하나하나 의논해주시였소. 그러시교는 전쟁에서 이긴 우리 인민인데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조선로동계급이 본때를 보여 미국놈의 뒤통수에 쇠물폭포를 들썩우자고 호탕하게 말씀하시였소.



그렇게 장시간 지물쿠는 피약벌아래 앉으시여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이마우엔 땀방울이 축축히 맺혀있었소.

그때 나는 폭격에 상처를 입어 어버이수령님께 그늘한점 제대로 드리우지 못하는 그 백양나무를 쳐다보며 얼마나 가슴아파했는지 모르오. 정말 푸른숲이 그리웠소. 그래서 난 이 산판에 올라와 타격식 절단기에 깔 침묵감을 마련하면서도 생나무를 찍지 못한거요. 그런데 동무의 아버지가 생나무를 찍어가라며 한사코 고집을 부려 내가 어성을 높였던거요. 그러니 나를 나무럽게 생각지마오.》

《어쩌면...》

순애는 저도 모르게 붉어진 얼굴을 두손으로 감싸쥐었다.

조국의 숲을 무성하게 가꾸려는 저 마음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 저런 웅심깊은 생각을 품고 무언가 장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청년과 아귀다툼까지 하고 그로 하여 그에게 무거운 부담까지 지워부상을 입혔다고 생각하니 자기들의 존재가 너무도 보잘것 없고 죄스럽게만 느껴졌던것이다.

이윽고 청년은 순애의 집안력이며 생활형편을 일일이 알아보는것이였다. 그때 순애는 사회와 집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가고있는 몇몇치 못한 집안력과 자신의 생활을 두고 가까스로 몇마디씩 대답하곤하였다.

순애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청년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다심한 어조로 말하였다.

《순애동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나뻐 생각지마십시오. 내 보기에 순애동무 지금 너무 안일하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있군요. 아버지는 그렇다치고 늙은이도 아닌 순애동무가 시대에 맞지않게 자기 한가정만을 위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장에선 12월전원회의이후 더 많이 증산하고 절약하자고 뛰고 또 뛰는 때에 그제 뵈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혁명의 난국을 뚫고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야 청년이 아닙니까? 시대의 숨결에 호흡을 맞춰야지요. 아예 우리 공장으로 나오십시오.》

청년은 당장 대답을 듣고싶은듯 뚫어지게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처녀는 즉석에서 대답할수없는것이 안타까운듯 저멀리 공장쪽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럴수록 자기를 들끓는 생활에로 자신에 대한 새 믿음으로, 새 희망과 휘황한 앞날에로 이끌어주고있는 청년에 대한 감사의 정이 마음속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녀인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났다.

엄진호는 처음엔 녀인의 이야기를 시답지 않게 들었으나 차츰 이야기가 깊어지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아니, 그렇다면 저 녀인이 바로 그날의 순애란 말인가? 저 현숙한 차림의 녀성과학자가 바로 그날 몽당치마를 입고 산에 올라와 조한섭지배인을 도와주던 그 순애란 말인가? 이렇게 우연히 달리는 열차안에서 저 녀인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순애를 알아본 순간 엄진호의 마음은 흥분으로 설레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엄진호는 우차를 끌고 조한섭지배인이 장만해놓은 나무를 실러 달산으로 올랐다가 저 녀인을 만났었다. 엄진호는 웬녀인인가 하여 눈이 등그래서 조한섭지배인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조한섭지배인이 그의 의문을 풀어주며 방금 들은것과 같은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와 룡담도 하고 조한섭지배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더러 공장에 나와 한몫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었다.

그후 엄진호는 그때 일을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그사이에 저 녀인은 자기들의 권고대로 한몫 단단히 하는 녀성과학자가 되고 오늘은 박기사의 창안을 돕기 위해 지배인의 부름을 받고 자기네 공장으로 가고있다니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또있는가!

생각에 잠길수록 엄진호의 마음은 뒤숭숭해졌고 순애와 눈길이 마주칠가봐 슬며시 창문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그후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구사동지!》

엄진호의 맞은편에 앉은 것 대학을 졸업하고 실습지로 간다는 이쁘장한 처녀가 차돌같이 흰이를 드러내며 녀인에게 물었다.

호기심어린 처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선배다운 유연한 눈길로 바라보던 순애가 다시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날 아침, 또 한 청년이 달구지를 끌고 나무를 실러 산에 올라왔는데 그 청년까지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네 공장으로 나와 한몫하라고 어찌나 열정적으로 권고하던지... 그래서 그후 전 공장에 입직했습니다. 제집애가 공장에 나가선 무얼하겠는가고 아버지는 한사코 반대했지요. 처음엔 정말 아득했어요. 그래 한동안 공장에 입직했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다가 저의 결심이 확고해진건 공장 선전실에서 돌린<조선시보>를 본 뒤였어요. 글썽 영화에 그 청년이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이글거리는 강편을 밀어내는 그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부럽던지 나도 그청년에게 짝지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반발심이 생기질 않겠어요.

처음에 저는 합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공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녀성호실에 들리실줄이야...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처녀들이 올린 소박한 인사를 받으시며 집을 떠나 고생이 많겠다고, 방은 출지 않는가 하나하

나 물어주셨어요. 그러시고는 우리 녀성들이 큰 일을 한다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책임진 녀성들의 임무가 크다고 분에 넘치는 사랑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야금공학》이라는 책을 뽑아드시고 한장한장 번져보시더니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은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공부를 잘해서 꼭 녀성학자, 녀성야금기사가 되라고 뜨거운 믿음의 말씀을 해주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수령님의 그 말씀이 너무도 고마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후 전 아버지수령님의 말씀대로 공부를 잘해서 대학으로 갔고 졸업후 오늘까지 그 청년처럼 살려고 이렇게...》

추억의 갈피를 더듬는 녀인의 두눈귀엔 맑은 이슬이 가랑가랑 고이였다.

엄진호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30여년전의 조한섭지배인과 자기와 순애 그리고 오늘의 조한섭지배인과 순애와 자기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모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고있는데 자기만이 그들의 대오에서 멀리 떨어져나온것 같은 자책에서 헤어날수 없었다.

한해전에 현장기사의 내부예비안을 크게 믿고 자체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틀어지는통에 계획은 고사하고 생산경쟁총화때 새파랗게 젊은 총국지도원에게 머리가 땡해지도록 지책을 받았다고 하여 공연히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모태길것없이 편안히 계획에 물린 자체나 받아 생산을 내밀면 그만이라며 총국을 제집문턱 드나들듯해왔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조한섭지배인이나 저 순애는 박기사의 내부예비안을 성사시켜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아글타글 애쓰는데 자기는 오늘도 일을 쉽게 해먹자고 총국에 손을 내밀고 오는길이니 내가 과연 그날의 모습으로 살고있는가? 그날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저 순애가 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총국에 올라가기전에 지배인이 한 지적이 얼마나 옳았는가! 나는 확실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전후에 지배인이 타격식 절단기를 창안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었다. 사회와 집단의 이해는 안중에도 없이 제살궁냥만 하며 살아왔으니 이런 나를 보고 지배인인들 왜 가슴아프다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어느새 시대의 락오자로 변질되고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엄진호는 좀처럼 창문쪽에서 눈길을 땡수 없었다.

이때였다.

뒤좌석에서 요란한 폭소가 터졌다. 돌아다보니 대여섯살난 사내애가 그곳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었다.

《자, 어서. 네 차례가 되지 않았니. 우리 철이 용치. 이제 어머니가 멋있는 놀이감이랑 사주지.》

꼭 다문 사내애의 입을 어떻게 하나 열어 손님들의 흥취를 돋구어보려고 애쓰는 애어머니의 간절한 청이었다.

《정말?!》

《정말이 아니구. 노래만 잘 불러보지... 엄마가 언제 거짓말을 하던?》

제 어머니의 확답을 받고난 사내애는 좌중이 한결같이 자기를 바라보며 눈짓하자 마침내 불우물이 꽤이도록 빼룩하니 웃고나서 노래를 불렀다.

《저런,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차칸이 또 들썩해졌다.

그러나 엄진호의 마음은 그닥 즐겁지 않았다.

아이들이 제 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리고 손을 내미는것은 철부지의 응당한 권리이며 어쩔수 없는 본능이다. 그것을 탓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의 단련에는 어머니가 고생하면 그만이지만 바로 나와 같은 일꾼들이 당앞에, 조국앞에 어련애처럼 손을 내밀출밖에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철없는 어리광》에 수고는 누가 하며 그 후파가 누구에게 미치겠는가? 나는 왜 이 명백한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는가? 전후의 그날엔 우에서 대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제힘으로 한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살지 않았던가! 이제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조한섭지배인이나 순애처럼 한본새로 살자!

렬차는 엄진호가 일하는 스금속공장을 가까이 두고 도중역인 자그마한 역에서 멎었다.

엄진호는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우에 올려놓은 가방을 들고 렬차에서 내렸다.

목적지도 아닌데 어째서 내리는가고 묻는 손님들의 물음에 적당한 구실을 대고 잘못 오른 궤도에서 물러서고말았다.

순애가 탄 렬차는 여전히 한궤도를 따라 한본새로 달렸다.

이윽고 엄진호가 갈아탄 렬차는 좁전과 반대방향인 총국쪽으로 달리였다. 출장목적을 취소하기 위해 다시 총국으로 되돌아선 그였다.

이제 출장목적을 취소하고 공장으로 돌아가 그토록 성장한 순애를 만나 그간의 회포를 나눈다면 자기들의 상봉은 얼마나 뜨겁고 감격적이라!

저멀리 산등성이에 나불은 구호관이 깨알처럼 작아보이더니 어느듯 확대되어 이제는 선명하게 안겨왔다.

《동무는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생활하고있는가!》

그렇다.

당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있는가. 전후 어려웠던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

백으로 당이 결심하면 바다도 떼우고 산도 옮기는 그런 인간으로 살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이 길에서 변심을 모르고 언제나 그날처럼 사는 조한섭지배인이나 저 순애와 같이 엄진호가

탄 련차는 더욱 속력을 높여 부지런히 달리고있었다.  
여전히 한본새로, 한계도를 따라...

## 성미, 개성과 관련된 속담

### 끈기는 먹줄같다

《사람의 마음이 몹시 끈은것》을 가리켜 이르는 말.

### 느린 소도 성낼적(때) 있다

성미가 느리고 무뎌해보이는 사람도 일단 성을 내면 무섭다는것을 이르는 말.

### 물고 차는 상사말이다

원기가 왕성하고 성질이 과격한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반찬항아리 열둘이라도 서방님비위를 못맞추겠다

① 성미가 몹시 까다로워서 마음을 맞추기가 힘든 경우에 이르는 말. ② 물질적조건만으로는 남의 마음을 사기가 어렵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참고:고추장단지가 열둘이라도 서방님비위를 못맞추겠다.

### 살갑기는 평양나막신

맵시있고 불임성있는 사근사근한 사람을 두고 비겨이르던 말.

※ 살갑다-만만하고 맵시있고 경쾌하다는뜻.  
지난날 평양에서 만든 나막신이 알맞춤하고 좋았다는데서 생긴 속담이다.

### 서울까투리

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성질이 들까부는 여자를 두고 욕으로 이르던 말. ② 허물없는 사

이에서 까불기를 잘하는 여성에게 롱으로하던 말.

### 성미가 닳발이나 늘어진다

성질이 매우 느리고 일손도 굼뜬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 소릴 뽐아 제 구멍에 꽂는다

① 전혀 변통이 없이 고지식하기만함을 비겨이르는 말. ② 일을 창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하여 결국 일을 망치는 경우에 이르는 말.

### 술에 물탄것 같다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 같은것이 뜨뜨미지근하여 툭툭치 않음을 비겨이르는 말.

처녀의 오장은 깊어야 좋고 총각 오장은 알아야 좋다

처녀의 마음은 깊어야 좋고 총각의 성격은 시원시원해야 좋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던 말.

### 꿀먹은 개 육대기듯

꿀먹은 개가 말은 하지 못하고 몹시 딱딱거린다는 뜻으로 속에 있는 말은 시원히 하지 못하고 우락부락하며 투덜거림을 이르는 말.

### 튼 쇠도 달면 무섭다

더디게 달아난 쇠는 식는것도 오래 간다는 뜻으로 성질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일단 결기가 나면 당하기 어렵다는것을 이르는 말.

시조

## 삶의 노래

-불굴의 통일영웅 리인모동지를 대신하여-

박영

### 기다려다오

북으로 짊었던 이 걸음  
내쳐 걸으면  
사랑하는 안해여  
그대를 만날수도 있으련만은  
나는 가오 지리산으로

정겨운 그네의 손저음  
내 마음속에 안고간다면  
세상에 두려울것이 무엇이겠소  
전장의 불소나기 총탄도  
서슬찬 감옥의 교수대도

석별의 정으로 뜨겁던  
잊지 못할 고향의 동구길에 선듯  
정다운 그대의 숨결  
한껏 호흡하며  
나는 가오 새 친구로

축복해다오  
소중한 사람의 바래움 받은이  
기쁨안고 인차 돌아온다오  
후회없을 걸음을 걷는다오

사랑하는 사람이여  
바래워다오  
이 몸을 전송하던 그날처럼  
하얀 그 손을  
흰 국화송이처럼 흔들어주며

기다려다오  
사랑하는 사람아  
내 그대를 이슬처럼 눈에 담고  
적후에서 적후어로  
이 땅의 아들된 랑심의 길 떠나가거니

바래워다오  
우리의 미래인  
귀여운 어린것의 작은 그 손도  
꽃방울처럼 함께 흔들어주며

걸음걸음 따라서며  
바래워주던  
작별의 《역두》  
고향의 그 동구길에서  
환희로운 상봉의 그날을 기다려다오  
아, 내 사랑아!

### 영결

하염없이 눈물 떨구며  
영결의 《꽃》  
그대의 령전에 놓자니  
절통하구나 고진희동지여  
정녕 그렇게 떠난단 말인가

지리산의 새별처럼 빛나던  
그대의 밝은 눈빛  
헤어진 어머니와 안해인듯  
추억을 불러줄 다감한 모습  
정녕 우리결에 없단 말인가

철창속의 우릴 위해  
탈환의 선두에 나섰던 마음  
몸서리치는 원쑤의 고문장에서도  
굽힐줄 모르던 청청한 그 모습  
아, 불굴의 그 모습

비통하구나  
이 땅의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것을  
열렬히 사랑했기에

조국이 주고싶은것이  
너무도 많을 장한 딸이기에

피로 쓴 그대의 마지막 글발  
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거니  
그대의 숨결  
그대의 눈빛  
그대의 모습은  
이 땅에 영원한것

떠나지 않았구나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송두리채 바친  
인간의 깨끗하고 억세인 넋은

오, 죽음으로써 승리한 영원한 조국의 딸이여  
동지의 령전에 내 드릴  
영결의 《꽃》은  
그대가 못다한 생전의 념원  
기어이 이루어갈  
맹세의 한마음이구나!

대구형무소 차디찬 철창새로  
사위여가는 한줄기  
저녁 노을빛을 바래우며  
내 맘속으로 되닌다  
-하루가 지나갔다

고향의 저녁이라면  
아늑한 내 집에서  
수놓이하는 안해를  
그림처럼 바라보고있을 이 시각

피 살점 툇툇 무너나면  
고문장의 하루를 생각한다  
협오스러운 전향문에  
쓰거운 침을 뱉으며 돌아선  
하루를 생각한다

희멀건 국속에 비쳐진 모습  
남같이 보이던 하루  
저가락에 걸려든 쥐새끼도  
씹어넘겨야 했던 《서공》의 하루

이제라도 눈을 붙이고

봄벌이 감방에도  
가닥가닥 아물대니  
살쫂이 쪽잠에 들어  
내 꿈나래 탔네

## 하루

몸도 가누어야 하련만  
계속되누나  
얼어드는 이 몸을  
마음의 온기로 버티어야 할 하루는

한순간이나마 마음 편안히  
기대일 《벽》조차 없는  
죽음의 아가리 향 입벌리고있는 철창속  
하루가 지나면 어떠랴  
한생의 형기면 어떠랴

하루 또 하루...  
악형과 고통의 련속속에  
이 몸의 형체는 흐트러져가도  
의지는 분노의 불길속에서  
더욱 억세인것으로 버려지나니

아, 동강난 조국의 산아여  
하루하루가 투쟁속에 힘겨워도  
철창과 교수대를 이기고넘어선 그우에  
너의 생도  
통일된 조국도 있는것이 아니냐!

## 환희

흰저고리같은 안개  
해살에 녹기도전에  
안해를 재촉하며 내 서성거리네

봄명절 들놀이 어서가자고

애지중지하시는 손녀의 손에 이끌려  
어머니는 허허 웃으시며 걷는데  
음식판주리 든 안해는 곱게 눈을 흘기네  
애들처럼 내 들뻗었다고

꽃송이 꺾어들며 앞장섰던  
귀여운 딸이 나를 부르네  
꽃잎같은 입가에 손을 간중그러  
입나팔로 어서 빨리 따라오라네

들꽃 향기 진한 언덕우에  
온 가정이 자리를 잡고  
한동안 말없이들 바라보네  
해방을 맞은 내 집을, 내 땅을

고생 많으신 어머님께  
정히 한잔 부어올리고

나도 량껏 마시려니  
웬일인지 잔을 내지 못하겠네  
행복에 내 벌써 취했기에

가정의 기쁨이 소중한  
말없이 웃음짓는 아름다운 안해  
부드러운 손길도 건뚝 내 잡아보네  
어머니도 못보는척하시기에

갑자기 내리는 봄비에  
자리를 거두고 일어서도  
서둘러지길 않네  
맞아도 그냥 좋은 푸른 하늘 해비이니...

아, 꿈이여  
소중하고 애틋한 추억의 나날이여  
네가 없다면 내가 있을가  
낮에도 밤에도 때없이 찾아와다오  
철창속 인생의 불굴의 나래여!

## 철창가의 달아

그 누가 볼세라  
철창가에 언뜻 걸린 보름달아  
무거운 머리를 추슬어 들며  
내 너를 부여잡고  
번거롭던 이 마음을 적게 되누나

이제는 어언 몇년째인가  
거울속에 비쳐진  
그 모습 바라보듯  
내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  
마음속에 안아보는것은

철창속의 나날이 하두 길어  
내 머리빛도 너처럼  
하얗게 세였어도  
변함이 없는것은  
잊지 못할 고향의 모습이구나

나무람말아다오  
날마다 너에게  
한생토록 너에게  
그리움 한가지만 적어간다고

너는야 넓지 않은 마음만 싣고가는  
하늘가의 자유로운 소식의 쪽배가 아니냐

찾아가다오  
떠나온 내 고향땅으로  
《정바우》네 집이라면  
나많은분들은 다 알게다  
기다리는 집이라면  
젊은축들도 다 알게다

어서 떠나다오  
오늘도 이내 소식은  
그리움에 사무친 변함없는 마음이니  
찾아가다오  
큼직한 문패로 사연깊은 우리 집으로

아, 달아  
밤가는줄 모를  
통일의 그날엔  
정든 우리 집처마에  
상봉의 축등으로 너를 높이 걸려니  
달아 달아 꼭절 많은 내 한생의 변덕없는 동무야

## 삶의 노래

하얀 침상에 누워  
정깊은 분들의 간호를 받으며  
쭈뼌히 박힌 별빛을 바라보니  
이 마음 생각의 하늘가로 달려가나니

사람의 한생이란

짧고도 긴것이 아덱니까  
삶을 낳아준 어머니이시여  
한생의 추억은  
그대의 젖품으로 달려갑니다

꽃나이 시절부터 응어리진

어머니 그 가슴을  
한생토록 얼켜어놓을줄은 몰랐습니다  
어릴적부터 집 떠남을 주저않던 이 아들이  
한생토록 집을 그리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애오라지 어머니 기원속에  
자식의 삶은 있어  
나라없던 그 세월에도  
해방을 맞은 그날에도  
아들을 위해 계신 어머니의 삶이었습시다

허나 이 아들은  
철들었어도 어머니의 다심한  
그 근심의 품안에서 떠나지 못할 모양  
생사조차 모르는 아들을  
어머니는 굳이 믿으셨나이다  
자신이 낳은 삶은 역세인것이라고

한기에 그리움에 젖던  
철창속에서도  
부디 세상에 영원할 어머니임을 믿어  
아들은 효성을 꽃피워왔나이다

의지로, 절개로

운명이 모질다고 생각지 않나이다  
일제놈들이 청강수로 태운 내 다리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분질러놓아도  
한생을 어머니와 헤어져  
그리움을 움켜쥐고 내 살았어도

삶이란 이런것이 아니웬까  
백발의 오늘에도  
첫뿔을 파고들던 그 시절로  
뿔뿔이 되돌아갈수 있는것이  
딘고사는 땅이 고통 있으면  
외면을 모르고 함께 사는것이

아 삶이란  
정녕 이런것이 아니웬까  
내 삶의 어머니이시여  
그대가 낳아준 운명이  
통일된 조국의것으로 기억될 때  
이 땅에 태를 묻은 참삶이 아니웬까  
어머니시여 조국이시여!

## 배낭을 메여라

송현수

너도 인제는 병사로 자랐단 말이지  
온 마을의 뜨거운 바래움속에  
초소로 떠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어깨우에 배낭을 메여라

은은히 울려오는 모교의 종소리  
초소로 떠나는 너의 앞길 축복하는가  
따라오며 손저어주는  
마을사람들 정겨웁구나

아직은 병사란 참된 그 뜻을  
말로만 들어온 너의 그 가슴에  
어제날 병사였던 아버지세대들  
심어주었지  
불비헤쳐 전화의 언덕을 넘던 그 정신

바쁜 출장길 떠나야 했던 아버지  
그밤엔 정녕 잠들줄 몰랐거니  
락동강기슭에 물고온 전우들  
말없이 말없이 그려보며

그날에 군위사단 간호원이었던 어머니  
주름잡힌 눈가에 맺혔던 이슬방울  
풀색배낭을 조용히 쓸어보며  
하많은 당부를 새긴 이 배낭

마치도 병사시절의 분대장이 다시 된듯  
초소생활 자랑하던 제대군인 너의 형님도  
들려주었지  
직일병의 기상구령 못들었던 이야기며  
식당근무 밥을 태워 반복근무 서던 일  
부디 근무생활에 참고하라며

고향의 그밤은 길지 않았어도  
추억과 부탁으로 뜨거웠던 마음들  
들어있다 이 작은 배낭속에

들어있다  
영예군인 영희 아버지의 부탁  
못잊어 총번호 외워보던  
전투영웅 관리위원장의 그 마음

혁명가의 주소인듯  
옛 군사우편대오를 되새기는  
로병들의 마음도  
들어있다, 이 작은 배낭속에

부디 잊지 말고 떠나거라  
배낭은 가벼워도 무겁게 메여라  
조국이 주는  
준절한 세대의 의무를 자각하며!

# 력사의 심판장에서

- 신천군 유치원을 찾은 한 미국평화인사의 고백중에서 -

김형준

조선의 어린이들아  
철부지 너희들앞에서조차  
무릎꿇고 빌고싶다만  
빌어서 받지 못할 용서를  
천백배의 분노로 바꾸어  
미국에 저주를 보내노라

조선땅 그 어데가나  
어린이들의 맑은 눈동자앞에  
마주서기 괴롭구나  
신천땅의 분노가 서려있고  
파주땅의 원한이 비껴있고  
광주땅의 증오가 불타고있어

미제는 얼마나 많은 불행을  
이 땅에 남겨놓았던가  
《서면》호를 물고온 그날부터  
《자선》과 《박애》의 십자가를 들고  
청강수로 죄없는 어린이 이마에  
《도적》이라 새기던 그날부터

나는 지금  
신천땅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있다  
바로 그들이 뛰노는 마당가  
포도넝쿨 무성한 사이로  
봉긋이 솟아있는  
102어린이무덤이 보이는!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들에게  
휘발유를 퍼부으며  
어머니들이 보이는데서 불을 지핀  
그날의 그 불, 피의 절규가  
나의 육골을 너무도 뜨겁게 지저  
미국인이 된것을 수치로 느끼노라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것  
가장 야수적이고 수치스러운것

사멸해가는것과 전쟁을  
이 나라 어린이들은  
미국이라는 말과 같은줄 알거니  
수치를 느끼라 미국이여

나물캐는 소녀를 핏이라 사냥하고  
숫처녀의 옷고름 백주에 풀어헤치고  
로인의 머리우에 못을 박으며  
그것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

미국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슬기로운 조선땅에 저질렀던가  
신천의 아이들은 원곡을 가도  
련꽃봉 102아이들의 무덤앞을 지나며  
그들의 복수를 맹세하고  
유희도 미제를 불태우는 유희

오! 미국의 어머니들이여  
자식들에게 젖을 물릴 때 생각해보라  
그 입에 휘발유를 퍼넣고 불을 지핀놈이  
다름아닌 미국식인종들이다  
그런 인간백정 식인종을  
또다시 키워내야 한단말인가

미국의 아버지들이여  
그대들이 순간의 안정을 찾아  
음침한 레배당의 십자가아래서  
피젖은 찬송가로 안정을 찾지 말고  
조선의 아이들에게 사죄하라

신천의 아이들아  
내 너희들에게 용서를 바라는  
미제의 죄행을 잊어달래서가 아니다  
매일 거울앞에서 비취보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때늦게 너희들의 눈동자에서 비취보았기때문

아, 신천의 아이들아  
너희들의 요람 유치원뜨락은  
미제의 죄행을 고발하는 영원한 심판장

너희들의 불타는 눈빛 안고가련다  
미제의 죄행으로 평화가 유린되는곳에  
《군축》과 《완화》를 부르짖으며  
테로와 모략을 일삼는곳에  
피맺힌 조선의 원한이 비긴 그 눈빛을  
투쟁의 불길로 지펴안고 가련다!



## 《눈물받이》

최대현

인공호흡기에 몸을 맡긴 그 너인의 모습이 유리간막이 너머로 어렴풋이 안겨왔다.

병원측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았지만 현우의 뇌리에는 미지의 그 너인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끈끈히 파고들었다.

저 너인의 체내에선 내 피가 흐르고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니 저 너인은 꼭 소생할것이다.

역설적인 3단론법이었으나 번거롭던 머리를 이렇게 정돈하고나니 몸도 마음도 평온해지면서 웬 일인지 눈곱이 뜨거워졌다. 그는 간호원에게 주소를 적어주면서 환자가 깨어나면 즉시 알려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호텔로 돌아왔다.

어느새 자정이 넘었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 아니 잠들수 없었다. 이 하루에 겪은 일들이 삼삼히 련상되었던것이다.

## 1

아무래도 바다가가 집안보다 숨쉬기가 한결 편했다.

지독한 열대의 더위였다.

호실 창턱에 설치한 공기조화기는 고장이고 선풍기는 오히려 끈끈한 열풍을 끼얹는것이어서 꼭 한증탕에 들앉은 기분이었다.

선행자들의 체험이 설마 그러라싶어 평양을 떠나올 때 시험삼아 안주감으로 보실보실한 명태포를 가방에 챙겨넣었었는데 날씨가 메마른 베이징 곤륜호텔에서는 미이라처럼 바짝 말랐던것이 이곳에 이르러 밤을 자고있더니 웬걸 방금 물에서 건져낸꼴이었다. 더위도 더워려니와 우선 이 엄청난 습기가 짜증스러웠다.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난 몸이었지만 개천의 너겅을 뒤집어쓴것처럼 도무지지겹기만 했다.

마침 일요일이여서 출발을 며칠 앞두고 짐을 정리할 심산이었으나 몸도 마음도 왕청같이 바다로 쏠리는바람에 에라 저녁으로 미루는거다하고 호텔을 뛰쳐나온 현우였다.

호텔은 도시의 한복판을 질러 바다에 흘러드는 x x강 하구에서 멀지 않은곳에 자리잡고있었다.

바다가에는 이 지방 원산인 망고스틴과 야자수 따위 상록수들이 무성한데 야자수잎으로 열추 지은, 보기만 해도 땀이 가셔지는 초막들이 점점이 널려져있었다. 토색적인것에 관심을 모으는 관광심리를 노려 합성수지채양시설을 대신하여 이 나라 봉사업체가 구상한 해수욕장의 명물이었다.

가까운 한 초막을 쉽게 차지한 현우는 늦어온 셈치고는 용케 비어있었다싶어 주변을 둘러봤더

니 찌는듯한 엄열보다 더 뜨거이 달아오르는 정력을 주체할길 없는지 수영팬츠만 걸친 적동색알몸뚱이들이 마치 상대의 벗을 노리는 수탉들처럼 쌍쌍이 마주서서 기를 쓰고 온몸을 들까불고들있었다.

현우는 속이 메스꺼워지더니 불시에 관자노리가 아파났다.

한바탕 소나기라도 쏟아졌으면 하는데 때마침 초막이 와수수 설레이기 시작했다. 바람결에 해감냄새와 아스팔트냄새가 실려왔다. 스콜이라 일컫는 돌풍이 소낙비를 몰아올 조짐이었다. 흔히 한낮이기울어서야 닥치곤하던 《더위가심》이 오늘따라 이르게 시작되려나보았다. 망고스틴과 야자수가 동화속의 거인마냥 머리를 풀어헤친채 태를 치고 삽시에 주위가 컴컴해지더니 마침내 억만가닥의 창살같은 비줄기가 담청색 바다수면에 물안개를 일쿠면서 물으로 돌진해왔다.

참으로 그것은 순식간에 펼쳐진 열대의 장관이었다.

스콜은 한시간종이 계속되다가 올 때처럼 그렇게 급급히 가버렸다. 그런대로 더위에 지쳐빠진 현우에게 스콜은 이채로운것이었다.

젊은 패들은 억수를 맞으면서도 승벽을 멈추지를 않았다. 무서운 열광이라고 혀를 차는데 그들속에서 누군가가 새된 소리를 지르자 모두들 강하구쪽을 향해 줄달음질치는것이였다. 사람이 물에 떠내려왔다는것이였다.

현우는 본능적인 구조의식이 발동하여 벗어놓았던 남방샤쓰에 팔을 껴면서 뛰어갔다.

범람한 황토물이 기승을 부리는 강하구는 사람사태를 이루고있었다. 와글거리는 사람바자째새로 순백색 헬메트를 쓴 해상경찰들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그들은 물매미처럼 생긴 모리보트에서 축 늘어진 익사자를 물으로 옮기고있었다.

현우는 돌아섰다. 시체라도 구조된 셈이니 굳이 비집고들어가 그 끔찍한 참상을 눈에 담을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소문이란 회오리바람과도 같은것이여서 호텔에 돌아왔더니 화제의 초점은 익사자에 대한 이야기에 돌려지고있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 그의 몸에서 얻어낸 기한이 지난 관광려권에 의하면 그는 김요한나라는 남조선녀성인데 당장 다량의 수혈을 요하는 형편이지만 후견인이 나서질 않아 병원측에서는 랭랭한 립장이라는 이야기였다.

분명 세례명일수 있는 김요한나라는 이름이 던지는 인상은 어두운것이였지만 한 동포라는 사실로 하여 현우는 너인에 대한 보호의식에서 좀처럼 벗어날수 없었다.

기한을 넘긴 러권, 출혈로 인한 쇼크, 후견인의 부재, 병원측의 팽담한 태도...

그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음이 분명한 그 너인의 운명이 아픈것이였다.

사실 스콜이란 거의 정해진 시간에 급풍이 한껏 기승을 부린끝에 소낙비가 따르는 기상현상으로서 그로 인한 우발적인 역사사고는 거의 있을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국땅에서 목숨을 버릴 결심을 했을까? 실련? 그런 패쪽을 지니기엔 너인의 차림새가 어울리지 않았으며 나이도 사십고개를 넘겼는지 않는가.

필경 생존경쟁이라는 고달픈 소용돌이에 지친 나머지 삶이 고통으로 변해버렸으리라.

아무튼 후견인의 부재라는 리유로 수혈을 받지 못하다니...

자본주의 보건의생리에 습관되지 않은 현우는 뿔어오르는 울분을 누를길 없었다. 더구나 철부지 시절에 헤어지기는 하였지만 남녘의 그 땅에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두고온 현우였다.

그는 너인이 입원해있다는 병원을 찾아갔다. 듣던바대로 병원측의 태도는 팽담했다. 후견인의 담보도 담보려니와 우선 수혈부터 해야지 않는가고 영어로 묻자 주치의의 대답은 퍼그나 도전적이었다.

《다른 형의 피는 갖고있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O 형은 다 나갔으니까 우리로서도 어찌할수 없지요. 한데 실례지만 환자와 어떤 사이인지요? 혹시 남편이라면 이거야말로 당신네 격언대로 <적반하장>이 아닐까요?》

현우는 뻔뜨름한 그의 변명에 주먹같은것이 볼뚱 치밀었으나 애써 자제하며 저력있는 음성으로 응수했다.

《한 동포지요. 같은 조선사람이란말입니다.》

그리고는 신체검사표가 첨부된 러권을 내밀었다. 주지의라는 사람은 열결에 그것을 받아들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사업부 참사. 박현우. XX회사와 합영업무로의》

주지의의 태도는 일변했다. 하지만 해당한 형의 피가 없다고 시치미를 뻔 터수에 립장이 난감했던지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수혈만은 어찌할수 없다는 양보였다.

예상했던바였으므로 현우는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자기의 의향을 전달했다.

《때문에 신체검사표를 첨부한겁니다. 밝혀있을일이 나도 O 형이랍니다.》

이리하여 현우는 필요한 량의 피를 그 너인에

게 제공할수 있었던것이다.

환자가 정신을 차렸다는 전화는 아침 9시경에 걸려왔다.

현우는 새벽녘에야 잠에 들었었지만 즉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메스메스하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런대로 애써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호텔을 나섰다. 환자가 피를 준 고마운 선생을 찾는다지 않는가.

어제와는 달리 병원측의 태도는 꽤 호의적이었는데 관례를 벗어나 중환자와의 면회를 허락했던것이다.

그 너인은 그런듯이 자고있었다.

모진 진통끝에 첫아기를 낳은 산모만이 저렇듯 안전한 표정을 담고 잠들수 있는것이다.

나이보다 걸늑기는 했으나 이목구비의 선들이 뚜렷한 리지적이며 세련된 얼굴이었다. 오른쪽 아래누두덩에 붙은 게뚜더기만 아니라면 아름다운 용모라고 할수 있었다. 어디선가 본듯한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혹시?! 일순 온몸에 서리가 돈다. 아니다. 그럴수 없다. 자기것과 똑같은 기미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게뚜더기가 력력하지 않는가.

《선생님, 무척 고마왔습니다.》

언제 잠에서 깨여났는지 너인이 현우에게 눈길을 모으면서 인사를 했다. 유묘하니 긴 살눈섭이 젖어있었다.

현우는 레의를 받아들여야 할 적중한 말마디가 떠오르지 않아 고개를 약간 숙여보였다.

그런데 너인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비껴지나더니 웬일인지 알릴듯말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살풋이 눈을 감는것이였다.

현우는 순간 너인에게서 무엇인가 엄청난 질문을 갈구하고있는 자신을 의식했다. 심장이 멎는듯한 한초한초였다.

이윽고 물기에 젖은 살눈섭이 열리고 무례하달 정도로 상대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너인은 사례들린듯 도간도간 동강난 목소리로 물었다.

《박현우씨라고 하셨지요? ... 선생님, 실례되지...않으신다면...》

《어서 말씀하십시오.》

《저... 고향이 어디인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전 고향이 어딘지 딱히 모른답니다.》

《!!...》

너인의 얼굴에서 그나마 혈조가 하얗게 가셔졌다.

《왜 그러십니까? 몸이 더 불편한가요?》

《아니예요. ... 혹시 마을 이름이라두...》

《마을이름말입니까?》

《예...》

《당골이라는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섯살

땡가 떠나온 고장이니깐요.》

그러자 너인은 《언니야, 마당쇠언니야-》 이 한마디를 하고나서 이그러진 표정을 굳힌채 한동안 뒤말을 잊지 못하더니 끝내 수십년세월 가슴속에 맺히고 엉켜붙은듯한 설음덩이를 통곡으로 터치는 것이었다.

마당쇠언니라니?!

현우를 이렇게 불러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정녕 밭실이란 말이나?!

오,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이 어찌면 꿈속을 헤매고있는건 아닌지요? 바라옵건대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머니...

## 2

당골은 중부조선일대에 흔히 널려있는 궁벽한 마을이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전세기말부터 사당패들이 기둥서방들을 거느리고 놀러가기 시작한것이 동네의 시원이었고 당골이라는 마을이름도 사당골의 준말에서 온 것이었다.

동네의 시조가 밀바닥인생이라 기둥뿌리를 박는데 귀천이 따로 없어 무당이며 점쟁이며 하는 떨거지들 위에 풍수쟁이와 방물장사들까지 겹치고 보니 이래저래 등가죽이 벗겨지는건 어리숙한 농군들뿐이었다. 가난이 병이라고 무슨 맺힌 한이 그리도 많았던지 마을은 무당네의 녀두리로 달이 뜨고 풍물굿을 올리는 장고며 징의 흐느낌소리에 동이 났다. 해방은 되었다지만 가난과 무지는 여전히 전했다.

천안집은 별스레 몸이 무거웠다. 그제 근심으로 번져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았다. 해산경험으로 말하면 품을 들여 더듬어봐야 할만큼 다산이었으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어느 하나 건지지 못한데다 골골 앓음자랑만 하던 남편마저 이념을 이 골로 만들어놓고 저 세상사람이 되었으니 이번만은 순산에 무탈했으면 하는 천안집의 기원은 하늘에 사무친 것이었다.

이럭저럭 달이 차자 천안집은 몸을 풀었는데 집안팎을 박박 긁어 무당을 청하고 동냥중에게 재를 부탁한 일이 헛되지 않았던지 해방된 그해 가을에 오누이 쌍둥이를 순산했다.

그래도 고추를 달았노라고 사내녀석이 앞섰으니 순리대로 선남이에 후녀라고 명명했으면 제격 이런만 이름이 천해야 뒤탈이 없다고 오히려 이웃들에서 생색을 내는통에 마당쇠에 밭실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이 천한 덕이었던지 오누이쌍둥이는 팔월 한가위 무우자라듯 잘 자랐다. 신통히 둘다 오른쪽눈두덩아래에 팔알만한 까만 기미가 박혔는데 달덩이처럼 환한 얼굴에 유표한 그 점은 따갑도

록보는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그무렵 별방에서는 38선이다, 미군정이다, 민심이 뒤숭숭했지만 당골마을은 여전히 가난과 몽매에 시달리고있었다.

하루는 동냥중이 마당쇠네를 눈여겨보더니 《가인박명자고연, 안하간증성루반》이라는 어설픈 문구로 어린것들의 장래를 점치고 간 일이 있었다.

왜 리치에 비추어 용모가 고우면 명이 짧고 눈 아래기미는 눈물반이라는 소리였는데 민간속담으로 들어오던 글귀라 새삼스러울것도 없었지만 천안집은 절벽강산 낭끝에 선것처럼 눈앞이 아찔했다.

《에그, 얼굴은 어찌 빼어나가지구 예미 속을 이렇게 말리는거여.》

그렇다고 타고난 용모는 어찌할수 없는 일이고 남들의 말대로 《눈물반이》는 지워버릴수 있지 않을가? 하지만 천안집으로서는 어린것들의 야리야리한 살갗을 돛바늘로 푸치고 생활도 바질바질 끊는다는 청강수를 어찌고 하는 일은 차마 할수 없었다. 상상만 해도 몸에 서리가 돋았다. 오도카니 앉아있노라면 떠오르느니 험한 생각뿐이어서 그 환각을 털어버리노라고 천안집은 소갈데말갈데 한시도 쉬지를 않았다.

사내가 없는 집이라 들일만도 손포가 모자랐지만 잠이 생기는대로 광주리임을 마련해 읍거리를 다녀오곤했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가락엿 한가락이나마 그것들 손에 쥐여줄수 있었던것이다. 단것을 받아들고 광중거리며 기뻐하는 어린것들의 재롱이 그 녀인에게는 유일한 락이었다. 그 락을 그려 천안집은 호젓한 들길에 매운 눈물인들 얼마나 많이 뿌렸던가.

광주리임이란것이 두름이며 참취며 하는 푸성귀따위가 고작이었다. 파장밀에 당도하여 이편에서 제발, 제발하며 적선을 구하고나면 어느덧 하늘가엔 벌이 하나둘 파랗게 여물어가는데 행보가 급긴밤길을 외로이 타박거리노라면 자연히 애꿎은 눈물만 쏟아졌다.

《이렇게 살아선 뭇하누?》

때로는 모진, 마음을 먹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까만 《눈물반이》가 애룩한 어린것들의 얼굴이 떠올라 치마말기를 추스르고 허이, 허이 동구밖어름에 이르면 이번에는 《엄니-》 《엄니-》 부르는 울음에 잠긴 애된 목소리가 찬안집의 여윈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곤했다. 그러면 너인은 허둥지둥 돌뿌리에 걸채이면서 달려가 광주리를 아무렇게나 팽개친채 그것들을 량팔에 꼭 끌어안고 울대빼너머에서 피여오는것을 씹어삼키느라 모지름을 쓰곤했다.

그날도 기다리기에 지쳐 어둠속에 오돌오돌 떨고있는 그애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몸을 비트는데 오누이는 《엄마, 왜 우나?》, 《우린 안올래.》 《엄마, 우지마.》 하며 천안집의 눈물을 닦아내는것이

였다. 어린것들의 야르르한 손끝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녀인은 온몸이 재가 되어 흩날릴것만 같은 따가운 전율을 느꼈다,

《왜 우냐고? 엄만 자꾸자꾸 울거여. 니들 눈물까지 다 울어버릴거여.》

참말이지 그것들의 눈물까지 다 울어버려 《재앙》을 면할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다가 죽는대도 한이 없을 천안집이었다.

그는 두 아이를 으스러져라 껍 끌어안으며 하늘을 우러르었다. 무한한 그 공간에서는 파란 별들이 파들거리고있었다.

늪집에서 타작마당을 퍼놓았는지 달작지근한 보리짚냄새가 동구밖에까지 풍겨오고 어딘가 등지를 잃은 빠꾸기가 밤울음을 울고있었다.

《엄마가 울면 나도 울테야.》

《언니와 노래부를래. 그럼 안울지 잉?》

천안집의 팔에서 풀린 밭실이 마당쇠의 손을 잡고 나란히 서더니 포랑포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장에 가신 엄마가 오지 않는 밤  
고개넘어 산넘어 비탈길에서  
나는나는 엄마를 기다리었소

《요 애물들아...》

천안집은 더는 참아내지 못하고 와락 엎어지며 두 아이의 정쟁이를 그려안은채 무심한 들길에 소리내며 눈물을 뿌렸다. 고달픈 삶보다 어미를 위하는 어린것들의 그 남다른 성숙이 녀인에게는 무딘칼로 가슴을 긁어내는듯한 아픔이었던것이다.  
...

이 땅에 전쟁의 불집이 터졌다는 무서운 소식이 전해진것은 그로부터 얼마후였다.

가을날 마른 우뢰소리와도 같은 둔중한 포성이 당골에까지 메아리쳐왔다. 허지만 이고장사람들은 전쟁에는 무관심한듯싶었다. 큰길에서 고개고개 벗어난 벽촌인데다 이해의 보리농사가 부실하여 당장 춘궁을 면할 일이 더 걱정이었다.

그날도 천안집은 들일에 나가고 마당쇠네는 집안에 박혀있었다. 까짓 엄마쯤은 무섭잖은 마당쇠였지만 밭실이 여름감기에 걸릴 조짐인지 머리가 아프다고 가마목에 누워버리는바람에 오금이 쏘는대로 동무해줄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언니, 혼자 나가 놀아.》

자기때문에 발목이 묶인 마당쇠를 쳐다보며 밭실이 하는 소리다.

오빠한테 언니가 뭐냐고 통을 맞으면서도 혀에 익어선지 여전히 언니다.

《피- 내가 가시넌가.》

《난 언니가 좋아.》

《그럼, 난 널 곱실이라고 할래.》

《곱실이? 아, 좋네.》

밭실이는 짹 손뼉까지 쳐가며 방글거렸다. 허나 그것도 순간 반짝이던 머루눈이 도로 흐려진다.

《그러지마. 엄마가 욕해. 오래 못산대.》

《아니야. 곱실이라고 할테야.》

마당쇠에게는 어른들의 세계가 도무지 아리송하기만 했다. 왜 오래 못산다는거야. 두고보지. 요담 어른이 되면 산삼을 꼭 캐는거지뵤, 엄마한테도 드리고 곱실이와 나도 먹고...

눈에 잠이 실린 동생곁에 앉았자니 생각은 자꾸만 바깥세상으로 달아난다.

《곱실아, 범나비 갖고꾸지 잉?》

《잉...》

《하늘만큼 잡아다줄게. 잉?》

《잉... 멀리 가지마...》

잠내나는 동생의 대꾸에 마당쇠는 호 한숨을 쉬고 고살길에 나섰다.

초여름의 자연은 유혹의 세계였다.

발뼉발뼉 마당쇠는 그 유혹에 끌려갔다. 마른 천둥소리와도 같은 둔중한 폭음은 여전했건만 그것이 자기에게 미칠 엄청난 물리적힘을 리해하기엔 너무나도 어린 여섯살잡이는 피약별에 솟구멍이 따가운 들길을 따라 집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

그렇게 갈라져 장장 수십년, 생사의 소식조차 알길 없었던 누이동생이 지금 두팔을 뻗쳐 애무를 갈구하며 그의 아명을 부르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밭실이란말이냐?!》

현우는 침대머리에 무릎을 꿇으며 흐트러졌다.

《오빠, 범나비를 잡아준다더니 어디 갔다 이제야 오셨어요? 어머님께서 림종에 그리도 애타게 찾으셨건만 어디 계시다 이렇게 나타나셨나말이예요? 잘 보내셨지요? 배고픈 설음, 집없는 설음, 헐벗은 설음, 그 모든 아픔 모르셨지요? 오빠 뭘예요. 뭇때에 절 살려주셨나말예요. 아니면 지금쯤 엄마품에 안겨있을것을... 죄많은 이년이 온몸이 재로 타버리는걸 보고싶으셨죠? 네? 왜 대답 없으신거예요? 오빠! 오빠...》

밭실이, 아니 곱실이는 현우의 가슴자락을 애원으로 허비며 밀치며 때리며 통곡을 쏟았다.

채찍으로 후려치는 매질이었다. 살점을 저미고 소금을 뿌리는 아픔이었다. 현우는 그 매와 아픔을 달게 받았다.

이것아, 아무리 어렵더라도 목숨을 버릴 결심까지야 어찌 했더냐고 심장은 의분을 터뜨리고있었으나 차마 입밖에 뱉어낼수 없었다.

네말이 옳다. 누이야, 그런 설음, 그런 아픔 등지고 어머니의 림종도 지켜드리지 못한채 나 혼자 잘살았던거다. 굶은날, 마른날 이 못난것을 찾아 거칠은 들길을 더듬고계실 어머니의 혼백앞에 찬물 한그릇조차 떠놓지 못한 죄, 이 죄를 누이

야, 무엇으로 씻는단말이나...

끝내 가슴속 깊은곳에 맺혀있던 회오의 방울방울이 합쳐져 동을 넘더니 피땀처럼 짙은 통곡으로 터져올랐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한껏 눈물을 쏟고난 뒤의 노긋한 허탈이 흡수지에 물이 먼지듯 서서히 온몸에 스며들었다.

그때를 기다렸던듯 곱실이의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가 현우를 애무했다.

《오빠, 저의 미숙을 받아주신 그 아량과 눈물 고마왔어요. 절 용서해주시는거죠? 인젠 가슴이 후련해요. 암으로 맺혔던 어혈이 다 풀린걸요.

어머, 오빠 <눈물반이>가 여전하시네. 그런데 전... 이 못난 얼굴 무척 욕하고싶고 알고파시죠? 하지만 힘이 진했는걸요. 오늘은 오빠이야길 들려주시는거죠? 네? 어서요.》

곱실이는 손수건으로 현우의 눈언저리를 훔쳐 주고나서 눈을 살그니 감는것이였다. 마치 요람에서 엄마의 자장가를 그리는 어린애처럼.

현우는 누이동생의 뜨거운 두손에 한손을 맡긴 채 하늘나라 별님을 더듬는 모성의 무한한 애정을 담아 이야기 마당을 펼쳤다.

### 3

마당쇠는 자기가 어떻게 되어 인민군의 한 사단군의소에 누워있게 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다만 기억할수 있는것은 범나비를 좋아 숲속에 들어섰다가 푸드득 산비둘기가 날아나는 바람에 와들 놀랐던 일, 뒤미처 동생을 깜짝 놀래워준다고 엉뚱하게도 바위즈령을 용케 뚫아올라 따듯한 등지에서 비둘기알을 주어내던 때의 소름 돋던 기쁨, 배꼽이 드러나는 강동한 베적삼주머니에 소중한 그것을 간직하고 배를 바위에 붙인채 뒤걸음질로 한뼘한뼘 미끄러져내리던 때의 아찔한 공포... 그것이 전부였다.

이튿날, 군의소로 분대장전장을 단 수염터가 거면 털보병사가 찾아와서야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그가 바로 마당쇠를 업어온 병사였는데 부대의 이동과 관련하여 헤어지기에 앞서 아귀를 짓자고 군의소에 들린것이였다.

그의 립회하에 문건을 작성하게 되였다. 마당쇠의 다리를 기프스한 군의가 물고 덧이가 인상적인 간호원과 털보분대장이 적어나갔다.

《너의 집이 어디냐?》

《당골.》

분대장이 한배낭 지고온 선물에 정신이 팔려 마당쇠는 흥심없이 대답했다.

《어디 당골이지?》

《...당골》

더 캐봐야 무익한짓일것이였다. 우리 나라에 당골이 좀 많은가.

《됐다. 그럼 이름은 뭐냐?》

《마당쇠》

《마당쇠? 무슨 마당쇠?》

《박마당쇠》

《아이는 보름달처럼 환하게 생겼는데 이름은 똥떡갈구만. 할수 없지. 그대로 적읍시다.》

그대로 적는것을 털보분대장이 반대했다.

《똥떡같은 이름이야 좀 많았습니까. 나도 해방 전엔 외양쇠라구 했지요. 그때문에 놀림감이 되었구 싸움도 수태 했었지요. 그럴것 없이 우리 이름을 하나 지읍시다.》

똥떡같다는 표현에 스스로 게면쩍어진 군의는 대뜸 찬성했다.

《그게 좋겠소. 그럼 분대장동무가 보호자격이니까 제기하시오.》

한동안 궁리하던 분대장이 현우라는 이름을 내놓았다.

《이애를 구원하고 희생된 우리 분대 전사이름이 현우였습니다. 그러니 박현우라고 지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박마당쇠는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아니, 그를 위해 젊음을 바친 전사의 넋을 이어 새로 태어났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소대장의 연락임무를 받고 중대에 갔다 돌아오던 걸음이였다. 산자드락길을 지나다 출혈끝에 실신한 어린것을 발견한 전사 박현우는 그애를 안고 소대로 향했다. 산너머에서 불쑥 적기 그라 망편대가 나타나 저공으로 덮쳐든것은 순간에 벌어진 정황이였다. 뚜루룩... 전사는 어린것을 품에 안고 후미진 길옆에 엎디였으나 더는 일어나지 못했다. ...

털보분대장은 부대주소를 남기면서 현우의 다리가 완쾌되어 후송하게 되는 경우 확실한 행처를 알려달라고 채삼 부탁하고나서 군의소를 떠나갔다.

물론 마당쇠, 아니 현우는 자기에게 돌려진 관심과 사려의 의미를 심장에 새기기엔 너무도 애 어린 철부지였다. 때문에 분대장한테 매여달린대거나 이름이라도 물어보는 일은 더욱 없었다. 여러날을 두고 분대장의 수더분한 인상이 지워지지 않았을뿐이였다.

후더운 인정은 어디에나 있었다.

현우가 완쾌되어 애육원으로 떠날 때 밤을 세워가며 현우의 몸에 맞추어 군복을 고쳐준 덧이 박이 간호원누나는 어디 가서나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면 《박민복》이라는 털보분대장의 이름과 대호가 적힌 쪽지를 품속에 넣어주면서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애육원과 초등학교생활기간 박민복이라는 이름은 어머니를 기다리던 동구박길과 더불어 점점 희미하니 사그러져갔다. 학원선생님들과 부모들의 다심한 보살핌속에 3년세월은 살같이 지

나갔던것이다.

정전과 함께 학원원아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선에서 아버지들이 돌아와 데려갔고 많은 간부들이 나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데려갔다.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우쭐해하며 떠나가는 동무들을 현우는 얼마나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던가.

그때마다 박만복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마 가족들이 보고싶어 집으로 곧추 가신 모양이야. 오실 셈이면 왜 지금껏 나타나시질 않았겠는가. 현우는 밤이면 모포를 뒤집어쓴채 껍도 희미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그리며 남몰래 훌쩍거렸다.

그러던 어느날이 었다.

《현우 아버지가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학원을 휩쓸었다.

나한테 무슨 아버지람. 현우는 믿지 않았으나 동무들의 성화에 못이겨 원장실로 끌려갔다. 문틈새로 들여다봤더니 어깨에 떡메를 단 인민군대 아저씨가 원장선생님과 마주앉아계셨다. 거뭇한 수염터, 수더분한 인상... 아, 박만복아저씨다. 아저씨가 날 데리러 오셨구나. 아니야. 제대되어 고향에 가시던길에 그저 들리신게 아닐가? 현우는 금시 시무룩해졌다.

《너 왜 울먹울먹해하는거냐?》

《현운 아버지가 오신게 기쁘지 않은 모양이지?》

《응 알만해. 이북아버지야. 이북아버진 서먹서먹한 법이니까.》

동무들이 멋대로 찡고 까불고 하자 현우는 짜지는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진짜아버지야!》

그리고는 왕 울음보를 터뜨렸다.

뜻밖의 소란에 원장선생님과 만복아저씨가 복도에 나오셨다. 사태를 일별한 만복아저씨는 힘껏 흐느끼는 현우의 눈물을 닦아주고나서 원아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현우가 동무들한테 아버지자랑을 안했던 모양이구나. 현우 말이 맞다. 난 진짜아버지란다. 내 이름이 박만복이니까 우린 성이 같지 않느냐.》

그제야 원아들은 자락자락 손뼉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이날 만복아저씨 손을 잡고 학원을 떠나가는 현우를 동무들은 축은한 목소리로 바래주었다.

《현우야. 잘가.》

《현우 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학원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한 길가에 차분한 잔디밭이 나타나자 아저씨는 쉬었다가자고 했다.

그들은 우단처럼 부드러운 풀밭에 앉아 배낭에서 꺼낸 야전용건빵을 씹었다.

어디서 구했는지 아저씨는 현우에게 껏감도 쥐여주었다. 그리고는 두툼한 마라초를 태우며 현우가 다 먹기를 지켜보고나서 누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아. ...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서먹서먹하면 말이다. 네 하고싶은대루 불러라. ...아저씨라구 해도... 괜찮다.》

《전... 아버지라고 할래요.》

《!!...》

현우는 만복아저씨의 눈곱에 쇠물처럼 진한 물기가 서서히 피어오르는것을 보았으나 그가 자기와 동갑나이인 아들과 그리고 안해를 전쟁의 첫날에 잃었다는 사실을 알리 없었다.

그후부터 박만복이는 가는곳마다 현우를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배치기업소인 사리원도시건설사업소에서 집배정때문에 가족관계를 물어왔을 때에도 그는 《아들애하고 돌뿐이니 옷방살림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다.

오래지 않아 현우에게는 이복동생이 생겼다.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이했던것이다. 그러나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는 현우한테 더 끔찍했다.

언젠가 잠결에 오줌주머니가 빠근해서 일어났더니 두분사이에 오손도손 이야기가 오갔는데 점차 아버지의 음성이 높아지는것이였다. 사이문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로 미루어 화제는 자기한테 모아지고있었다. 현우는 미심쩍은 심정으로 바싹귀를 강구었다.

《여보, 거 있지 않아요.》

《뎌데?》

《현우 눈에 기미말이에요.》

《그게 어째서?》

《로인들 말이 눈아래 기민<눈물받이>라누만요. 빼어버렸으면 해서요.》

《쫓쫓, 녀자들이란 고작 한다는 궁리가... 난 보기가 좋더구만. 흰한 얼굴에 고계 얼마나 인상적인가말이요.》

《그래도 그엘 볼 때마다 속이 개운치 못한걸 어떡해요?》

《귀신탍지같은 소릴 제발 걸어치우. 우리 체도에 팔자소관이란게 어디 있는가말이요.》

《여보...》

《이런 맹추라구야. 기껏 생각한다는게 그거요? 래일이라도 당장 나라가 통일이 된다 합시다. 그리구 저애 친부모립장에 서보잔말이요. 그걸 빼버린다면 여섯살에 잃은 아들을 무슨 표적으로루 찾는다는거요. 영? 대답해보우.》

《!!...》

그것은 두 열애의 부딪침이였다.

그런 부딪침은 때로 불꽃을 튀기기도 했건만 현우는 그 불뚝이 심장을 따갑게 지지는 껏감속에 우뚝 성장해갔다.

군사복무를 마치면서 대학추천을 받았다. 교종 선택문제를 료해하던 사단정치위원은 타고난 인물에 군사복무기간 호두알처럼 굳어진 현우의 미끈한 몸매를 부러운듯 훑어보더니 국제관계대학을 선택하는게 어떠냐고 했다. 아버지의 의향을 물어온 아들의 편지에 박만복이는 건축학을 전공하여 자기처럼 집을 짓는 일을 했으면 하는게 소원이었지만 단마디로 반대없노라고, 그 대학에 가면 필경 나라에 긴요한 학문을 터득하게 될 것이라고 써보냈다.

매사에 공정하고 사심없는 손길들은 가정과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전쟁고아마당쇠》를 따듯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었으니 국제관계대학의 전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현우는 대외경제분야의 전문일군으로 오늘에 이르렀었다.

참으로 그것은 급행열차와도 같은 성장이라 해야 할 것이었다.

현우역시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제앞에 사치와 라태를 수치로, 검박과 근면을 미덕으로 받아들이는 민족본질의 아픔을 절감하고있는 세대였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유족한 생활을 범연한것으로, 인간본연의 권리로 간주하는데 버릇되었을 뿐더러 날을 따라 고향에 대한 표상과 추억도 그 색깔이 희미해져갔던것이다.

돌이켜보면 곱실이 안고있는 아픔도 분별의 비극에서 생겨난것이 아닌가.

그 아픔을 함께 할 대신 그애가 자기 상실의 미군에서 방황하고있을 때 이것은 이국의 불편한 기후에 짜증을 부리고있었으니 누이야, 용서해다오. 이 못난것을 ...

언제부턴가 곱실이는 울고있었다.

때이른 잔주름이 얹힌 발깎한 눈언저리에 웃음을 피어올리고있었으나 봉긋한 가슴은 간헐적으로 파닥이고있었다.

《내가 너한테 무리했던거보다.》

《아호 오빠, 전 오빠를 이끌어주신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뿐인걸요. 그 고마움 어떻게 갚는거죠?》

《하긴 그래서 우린 그품을 어머니품, 당의 품이라고 하는거지.》

그랬다. 친혈육을 대신하여 오빠를 키워준 그품이야말로 정녕 어머니조국이였다. 그런데 한낱 한시에 태를 묻은 그 땅이 과연 나한테 무엇이었던란 말인가!

곱실이는 살풋이 눈을 감았다.

그것은 침침하고 부담스러운 추억이였다.

때로는 하늘가의 별을 세여보는 동요시절의 꿈도 있었지만 그 애수의 저편에는 언제나 피와 눈물에 얼룩진 고행의 가시덤불길이 아득히 뻗어있었다.

돌이켜보지 말자. 그러면 망각의 심연속에 모든것이 묻혀버릴수도 있는것을. 아, 나는 그렇게

되길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그런데 그 길을 오빠가 함께 더듬어보지잔다. 어쩔것인가? 가야 하는가? 오빠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가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그 아픔을 감수해야 할가봐.

## 4

당골마을사람들은 패주하는 《국방군》의 무지한 총칭에 떠밀리며 북한강나루터에 이르자 카키색군복무리들이 탄 나루배에 굴비두름처럼 던져졌다.

천안집도 밭실이도 더는 《마당쇠야-》, 《언니야-》 부르기를 단념했다. 목이 꼭 막혀버리고 허탈에 빠졌던것이다.

항차 탄알받이신세에 함께 죽으면 어떻고 홀로 죽으면 뭐라느냐.

만가지 설움과 아픔이 그림자마냥 따라다니는 삶이었으나 밭실이는 용케 참았다. 집과 살붙이들을 잃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쟁의 와중에 이리 밀리고 저리 쫓겨다녔으니 같은 운명의 이웃에서 위안을 얻었던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배고픈 설움만은 감당키 어려웠다. 초원을 떠다니는 짐시마울처럼 포탄에 파헤쳐진 들에는 피난민들의 거적떼기움막이 마마자욱 널리듯했는데 밤이면 배고프다 칭얼거리는 어린것을 달래던끝에 피성을 질러대는 어른들의 악다구니로 소란스러웠다.

천안집은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무슨일인들 마다했으랴.

한데 란리통에 신통한 일거리가 있을리 없었고 전쟁이 뿔어놓은 쇠붙이를 주어다 철물점에 넘겨주는 일이 고작이었으나 저마다 그일에 명줄을 걸다보니 송도불가사리가 지나간 뒤처럼 금싸래기보다 귀해진게 쇠붙이였다.

천안집은 남정네들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기잔해를 뜯어내는 일에 달라붙었다. 연약한 너인의 힘이라 겨우 리베트못 하나를 뿔아놓은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드문했다. 이런 날이면 맹물로 배를 달랠수밖에 없었다.

움막촌 가까이엔 큰길에 뻗어있었다.

군용트럭 엔진소리가 들려오면 갈비뼈가 앙상한 아이들이 한길로 줄달음을 놓았다. 가끔 미군놈들이 질주하는 트럭우에서 뿌려주는 파자부스레기를 차지하기 위해 아이들은 뽀얀 먼지속에서 먹이본강아지들처럼 밀치고 할퀴고 했다. 그러면 트럭우에서는 터럭손들이 휘파람을 불며 짐승같은 소리를 질러대고.

어머니가 엄하게 단속하였으나 밭실이는 초콜레트쪼각의 유혹을 물리칠수 없어 그 북새속에서 불따귀를 할퀴끝에 겨우 비스케트 한개를 손에 넣을수 있었다.

그날도 천안집은 빈손이었다.

밑실이는 할멈 어머니를 쳐다보며 손을 내밀었다. 천안집은 손톱자리가 력력한 팔애의 얼굴과 때국이 질백한 손바닥에서 반나마 녹아버린 과자 조각을 번갈아보더니 그것을 바깥에 휙 집어던지고는 다시 거길 가겠냐며 사정없이 매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밑실이는 아픔보다 서러움에 울었다. 울음끝에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어머니는 자기를 꼭 껴안은채 소리없이 울고계셨다.

《귀구멍에도 벌이 들 날이 있겠지.》 천안집은 종종 이렇게 외우며 모진 세파를 곳곳이 맞받아 나갔다.

정전이 되었다.

움막촌은 나날이 한산해졌다. 모두들 두고온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들 갔던 것이다.

그러나 천안집은 당골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들의 체취가 배인 그고장이 너인에겐 고통일밖에 없었던 것이라.

밑실이는 아홉살에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천안집은 콩나물을 길러 장마당에 이고 다녔다.

공부를 잘하면 가난에서 벗어날수 있으리라는 희망때문이었는지 밑실이는 성적이 우수했다. 그가 속한 학급은 혼합반이었는데 도대체 거지꼴인 계집애가 첫자리를 차지했다는게 부자집애들의 비위를 건드렸다. 등교길에서부터 그애들은 이죽거리기 시작했다.

《아이, 콩나물냄새.》, 《피- 눈물받이울보.》

밑실이는 먹이 빼앗긴 암고양이처럼 서슬이 파래서 싸우기도 했으나 남자애들을 이겨내는수 없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못들은체하며 공부만 잘하면 되는거지하고 마음을 도사렸지만 누가 흘렸는지 오빠의 아명까지 거들어 《마당쇠 음매- 밑실이 야옹-》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자 더는 학교에 안간다고, 우리 집 래력을 모르는 고장으로 이사가자고 졸라댔다. 천안집도 인종이 짧은 도회지가 하다못해 날품을 팔아도 낫다고 여겼던지 팔애의 소원을 받아들였다.

천안집은 주저하였지만 서울 관악구의 변두리에 옮겨앉은후부터 밑실이는 오빠가 불러준 곱실이란 이름을 출석부에 올렸다.

중학교에서도 성적은 여전했다. 중등학교과정을 마치면 취업해야지. 그러면 어머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다.

하지만 천안집은 재능이 아쉽다고, 중도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시험부터 치르는거라고 딸의 녀고진학을 주장하였다.

달동네인생이 무슨 고등학교냐고 곱실이쪽에서 반대했으나 천안집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곱실이는 어머니의 사랑에 겨워 시험지를 눈물

로 얼룩지우면서 xx녀고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예상했던바 고교의 부담은 아름답것이었다.

천안집은 그 부담을 묵묵히 감당해나갔다. 녀고생으로 성장한 딸이 그에겐 녀왕처럼 돋보이는 존재였던것이다.

날이 갈수록 곱실이는 거울을 마주하는 도수가 늘어갔다.

곱실곱실하니 어깨에 스치는 탐스런 머리채, 솟스러운 목덜미, 백합같이 흰 살갗, 마냥 물기에 젖어있는듯한 명상적인 눈매... 거울속에서는 바야흐로 사춘기를 맞이한 솟된 처녀의 청신함이 한껏 향기를 뿜고있었다. 굳이 흠이라면 눈아래 박힌 어딘가 우수를 자아내는 까만 기미랄까.

그러나 한 남동무는 녀성의 미덕은 항시 동정을 구하는 피해의식에 있는데 우수를 자아내는 까만기미야말로 그 미덕의 발산이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사치와 낭비를 전제로 한 《무지개빛세계》를 항상 마음속으로 경계했건만 유혹이란 마약같은것이어서 곱실이는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명소애로의 수학여행, 심포니감상, 과외회합에 따르는 소박한 다과회, 장애자돕기, 철에 따라 꾸미는 화전놀이 그리고 파외도서의 구입... 이것들은 녀고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세계였다. 그 세계는 돈을 요구했다. 그 돈을 마련하느라 천안집은 무슨 일인을 마다했으랴. 비록 액수는 차이가 있을망정 발자크의 《고리오령감》처럼 천안집은 딸에게 바치는 희생에서 모성의 기쁨을 맛보고있었던것이다.

어느 하루,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곱실이는 한 남동무와 함께 다방 《락화암》에 들렀다.

무대에선 다방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미제의 가극 《카르멘》가운데서 집시의 무곡이 립체록음으로 울려나오고있었다. 속세의 온갖 계륜에서 해탈한듯한 야생적인 선율은 곱실이를 아무런 구속도 없는 무변한 광야에로 멀리 이끌어갔다.

그의 미모와 재능에 바쳐진 남동무의 미사려구가 낮에 간지러웠으나 웬일인지 물리칠 용기가 생기질 않았다. 그는 막연한 유혹과 두려움을 안고 상대에게 손을 맡긴채 다방을 나섰다.

거닐길에 내려선 순간 곱실이의 눈길을 찌른것은 전광석화화도 같은것이였다.

길건너 혈액은행의 외등이 흐리는 푸릿한 형광빛, 그 외등에 사지가 풀어진채 기진한듯 기대선 몸매 작은 녀인.

줄지에 눈앞의 모든것이 꺼꾸로 뒤집힌다. 누군가의 거치른 숨결이 곱실이를 감싼다. 애써 자신을 수습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남동무의 뺨을 후려쳤다. 그리고는 귀신이 들린것처럼 외마디 피성을 지르며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다.

그밤부터 천안집은 몸져누웠다. 기력과 의지가



극한점을 벗어나자 체내에 숨어있던 온갖 병마들이 머리를 추켜든 셈이었다.

물론 곱실이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어머니에게 아픔이 될가봐 아침이면 혼연히 책가방을 들고나섰고 온종일 평화시장의 한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그 책가방을 들고 어머니앞에 나타나곤 했다.

천안집의 병세는 점점 위중해갔다. 그럴밖에 폐암에 신장암이 겹쳤던 것이다.

아, 어찌하면 종단말인가. 현대의학이 할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수술로써 얼마간 생명을 연장하는 일뿐이란단다.

하지만 곱실이는 그 길을 택하고싶질 않았다. 엄청난 수술비도 수술비려니와 결국 환자의 고통을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동냥글 한자 익히지 못했으나 천안집은 훌륭한 녀인이었다.

아직 어느 작가도 고통의 그 깊이를 그려내지 못했다는 불치의 병을 두겹으로 앓으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다.

그들 모녀는 서로의 아픔을 건드리기를 저어하며 운명의 그 시각을 기다렸던것은 아닌지? 아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했을뿐 내심으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천안집은 딸애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마음껏 울었고 곱실이 또한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몰래 하늘을 우러러 《언니야, 엄마가 찾으서. 정녕 살아있다면 철새라도 되어 날아와주려마.》하고 울음을 울었다.

천안집의 생명력은 한겨울의 동결불처럼 사위여갔다.

《네 <눈물받이>그에 빼주지 못하고 가는가부야.》

《마당쇠가 있으면 의지가 되련만 혼자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거냐...》

이렇게 천안집은 갔다.

취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겠지 하더니 딸의 녀고졸업 한해를 기다려주지 못한채 영영 떠나갔다.

참우렁이처럼 어미거미처럼 살은 자식에게 장그리 주고 빈껍데기만 저 세상으로간 불쌍한 녀인...

그는 망우리묘지에 묻혔다.

곱실이와 같은 공장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는 서유근이라는 청년이 상돌과 비석을 구해주었다. 어머니를 여읜 곱실이와 아픔을 함께 나눈 그는 고학으로 중학교를 마친것이 학력의 전무였지만 처녀는 그의 성실성에 모든것을 의탁했다.

몇해가 지나 그들은 가정을 이루었다.

서유근은 여전히 봉제공장에 다녔고 곱실이는 파출부로 굶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았다.

하루하루 일은 고되고 밥맛조차 잃었으나 곱실

이에겐 행복한 나날이었다. 체내에서 모성의 기쁨이 파닥이고있었던것이다.

이 애들의 대엔 눈물이 없었으면 좋으련만. 그날도 곱실이는 이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하루일을 마치고 집을 향해 지친 걸음을 옮기고있는데 찢찬한대가 지척에서 급정거하는가싶더니 우악스런 손아귀가 무작정 덮치는것이 아닌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항거했으나 뒤미처 오데콜론냄새 같은것을 의식했을뿐 끝내 혼미의 나락에 빠지고 말았다.

때마침 미군놈들의 랍치행위를 목격한 대학생들이 택시를 잡아타고 뒤따랐으니 망정이지 곱실이는 야수들의 터럭손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을것이다.

그대신 온통 만신창이 되었다. 질주하는 찢차에서 던져진 셈이라 (야수들은 대학생들의 추격이 두려워 곱실이를 아스팔트우에 내동댕이쳤던 것이다.)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데다 견갑을 길 없는 하혈끝에 튼산까지 하였으니 허탈에 빠진 그는 어머니를 찾으며 아이들처럼 영영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귀신보다 모진것이 목숨이라고 달을 거듭한 끝에 동자일을 거들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후부터 곱실이보다 더 변모한 사람은 남편이었다. 원래 과묵한 사람이 아예 입을 봉해버렸다. 그대신 린팡이 철철 흐르는 그의 눈빛에서 곱실이는 엄청난것을 예감했다. 드디어 그 두려운 예감이 현실로 곱실이를 터쳤다.

한밤중에 열집 어머니가 쪽지편지를 전해주었다. 총총히 흘러쓴 남편의 필적이였다.

《미군 한놈을 까놈했소. 달리 할수 없었던 내심정 당신이야 리해할테지. 물론 지명수배령이 내릴거요. 당분간 몸을 숨기겠소. <고진감래>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꼭 기다려주요.》

그 당분간이 해를 거듭했다. 그러나 곱실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굶배이도 밟으면 곱들한다고 하물며 사람임에라.

드디어 《고진감래》가 판자집문을 두드렸다. 생사를 알길없던 남편의 소식이 온것이다. 돈과 함께 인편에 전해온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이곳은 동남아의 xx련방. 한 건설업체에 축조공으로 취업했음. 관광편권을 구하여 곧 떠나올것. 고국산천을 등지는 죄 빼에 아프지만 달리는 방도가 없음. 떠나기에 앞서 어머니묘소에 다녀올것...

지명수배자의 반려로서 정면에 나서는게 당국의 신경을 자극할것 같아 이 방면 투쟁이한테 돈을 놓았다. 김요한나라는 호사스런 이름으로 된 러권은 그렇게 얻어진것이였다.

곱실이는 남편의 부탁대로 어머님묘소를 찾았다. 기억할수 없는 리별이라 생각하니 억이 막혀 눈물조차 흘러내리지 않았다.

아, 어찌하여 불청객 미군놈은 시퍼런 대낮에 온갖 비행을 거듭하고서도 활개질인데 주인은 이름마저 숨기고 남의 나라에 쫓겨가야 하는가? 약소민족의 숙명이라고? 김포항을 떠난 비행기안에서도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은 물음이었으나 평생 자기를 주장하는데 버릇되지 못한 곱실이에겐 그것은 아름다운 과제였다. 생각지 말자. 희망은 래일에 있는거다.

그는 부푼 가슴을 부여잡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이가 보이지 않을가?

이국땅에서 곱실이를 맞아준것은 남편의 품이 아니라 한줌 채로 변한 그의 유골함이었다. 제나라에서 쫓겨나 남의 나라에서 고역을 치르고있는 남편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발판을 헛짚어 락반사고를 냈다는것이였다.

운명의 회룡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하고 처절했다. 삶의 의미란 이런것이라면 어머니, 당신은 어찌 나를 이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까? 예? 어머니... 곱실이는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쳤다.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도 돈이 문제였다. 그즈음 이 나라에서도 로동력이 해외에 류출되는 실정이며서 남조선로동자들의 경우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녀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이 나라에서도 젊음이 수요높은 상품이였다. 그렇다고 곱실이는 그럴 용의도 없었거니와 이제금 젊다고할 나이도 아니였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직업이 다방의 녀급. 그것도 따지고보면 미모의 덕분이었으니 졸던곳던 어항속의 물고기처럼 온종일 차탁사이를 누비며 《혜염》 처야 했다.

멍색이 차집이지 카바레와 다를바 없이 주류도 취급하는 열치기다방이어서 취객들의 시달림속에서 자기를 지키노라 마른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던가.

그런데 이 《도고함》이 끝내 화를 몰아왔다.

하루는 녀주인이 하는 말이 요한나의 기미를 두고 단골손님들이 궁상스럽다는 의견이니 다방의 체면을 봐서라도 어찌 해달라는것이였다. 녀주인이 미모의 이국녀성을 미끼로 리득을 보자던 구원의도가 빗나간데다 곱실이한테 퇴를 맞은 난봉군들과 고객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 질질 교태를 흘리는 다른 녀급들의 꼬드김을 받았으리라는 짐작도 없지 않았지만 그는 주인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쨌든 다방에서 나가달라는 소리보다야 낫지 않는가.

기구한 운명을 숙명으로 간주해온 곱실이로서는 지푸라기이라도 점쳐볼 처지였다. 어찌보면 겹치는 불행이 이 기미때문이 아닐가? 돌아가신 어머님께 한으로 남은 《눈물받이》.

그는 뚝바늘로 기미를 꿰치고 류산액을 떨어뜨렸다. 여러날 온몸이 달아오르면서 앓았다.

이제 열이 내리면 모든게 뜻대로 되려니 했으나 웬걸, 기미자리는 멋대로 아물어붙었는데 《눈물받이》대신 보기 흉한 게뚜더기가 생긴 셈이였다.

그런 꼴을 받자는데가 있을리 없었다.

실사 원한다 해도 이제는 인육시장에서조차 뺨대를 받아야 할 처지에 이르렀으니 오, 하느님이시여. 정녕 당신이 존재하는것이라면 벼락은 아꼈다 어디에 쓰는겁니까? 썩고 병든 이 세상에 벼락올! 저주를! ...

그는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강가로 나갔다. 내스쿨이 들이닥칠 조짐이였다. 사위가 삽시에 어두워졌다.

《여보, 당신의 뱃만이라도 파도를 타고 고향에 가시오그러..》

곱실이는 강물에 허리를 잠그고 재를 뿌렸다.

그리고나서 빈함을 품안에 꼭 그러안은채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

지옥도 열번을 다녀오면 그것을 이기는 면역이 생긴다는 어느 현학자의 말은 진실인가보다.

곱실이는 피와 눈물로 점철된 고행의 가시덤불길을 흐느낌 한마디 없이 담담히 헤쳐보였다.

누이동생에게 아픔이 될가봐 허를 깨물며 강인히 자신을 다잡은 현우로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저의 이야기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오빠가 누리고계시는 삶의 값을 비쳐보여드리기 위해 달리는 할수 없었던거예요.》

《고맙다. ...》

《고마운 마음은 이녁이 더 큰걸요. 가난과 불행은 결코 숙명이 아님을 깨달았거든요.》

곱실이의 솔직한 고백이 현우에게는 귀중한것이였다.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누이동생을 찾은것이다.

웬일인지 그런 동생을 새삼스레 마주보느라니 울대뼈너머에서 불덩이같은것이 꾸루룩... 소리내며 끓어올랐다.

누가 약한자는 녀자라고 했는가.

현우의 격앙된 감정을 놓치지 않은 곱실이는 어리광조차 비친 어조로 제편에서 탄전을 폈다.

《어머머. 오빠 어른답지도 못하시네. 우리 화제를 바꾸는거죠? 참 울케님은 병원의사선생이시라죠? 미인인가요? 조카애들 모두모두 어서 만나고 싶네요. 그녀석들 못나게 굴면 좋아릴 때려주는 거지뎌.》

《날 닮아 순한 애들이야.》

현우역시 기분전환을 하느라고 맛장구를 쳤다.

오늘이네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해후하여 처음으로 피운 웃음꽃이었던건 그 꽃은 물기에 척척히 젖어있었다.

## 5

현우네 상봉은 삽시에 온 도시를 들끓게 했다. 30여년만에 오누이쌍둥이가 그것도 이국땅에서 기이한 연교로 하여 만나게 되었다는것자체가 특종보도감이었다. 련일 기자들과 텔레비존촬영가들이 찾아왔다.

현우와 구면인 이 나라주재 조국의 대사관 경제참사도 다녀갔다.

이채로운것은 이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생화며 민족료를 들고 찾아들오는것이였다.

그들이 다녀온 이북의 발전상이 놀랍기만 했다.

한낮의 소요가 찾아온 저녁녘 요행 오누이만 남게 되는 자리에서 곱실이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오빠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나요? 그땅에 레몬은 제가 이방인들을 거쳐 내집태력을 듣게 된다는것말이에요.》

《거기에 분렬된 조국의 비극이 있는게 아닐까?》

《그래요. 하지만 내 나라의 반쪽땅에서나마 민족의 주체성이 맥맥히 생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한것만도 저한테 다행인걸요.》

그리하여 곱실이는 제편에서 이북에 다녀온 방문객들에게 끈끈히 파고들면서 쉬이 놓아주질 않았다. 그러다보니 병원은 련일 잔치집처럼 흥성거렸다.

병원측에서는 이 소요를 침묵으로 대했다. 아니 《기이한》 환자로 하여 각계의 이목을 끌게 된 점이 경영상 인기독점이라는 의미에서 유익하다고 보는 립장인것 같았다. 환자측과 의논도 없이 고가의약물을 아낌없이 내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런 사려와 소요는 환자에게 자극적인 치료였다. 생후 그토록 커다란 관심을 끌어본일 없는 곱실이었다. 그러니만큼 밤이면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낮동안은 심산속의 은방울꽃처럼 눈빛이 싱싱했다.

하지만 현우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동생의 정신적양양이 거울도록 고마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자신을 의식했다. 래일이면 이곳을 떠나 중공동의 한 회사에 들렀다가 조국에 직행해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치료비 지불도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현우의 초조한 심경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곱실이었다.

천상의 락원에서 노닐다가 지옥의 나락에 던져진 격이었다.

그는 병원의 투약과 기구치료를 일체 거절했다. 현우의 간절한 권고와 위안도 허사였다.

그 원인을 간파한 병원측의 대답은 뜻밖의것이였다.

《당신들은 모르고있었군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의 담보가 있었지요. 치료비엔 관계없이 최선을 부탁한다는 립장이였습니다.》

현우는 심장이 그득해졌으나 곱실이는 설마 그럴수 있는 일이었다.

현우는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단말인가.

그것은 사회와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안은 데 버릇된 현우로서도 감당키 어려울만큼 충격적인 대답이였다.

마침 동무문제때문에 조국에서 텔레전송이 있었는데 중공동쪽에는 며칠 지체된다는 연락이

되었으니 누이동생이 완쾌된 다음에 떠나되 귀국할때에는 직행하지 말고 다시 이 나라에 들려 동생을 만나보고 오라는것이 그 내용이었다고 경제참사가 전해주었다.

상봉때에 못지 않는 충격이 오누이를 휩쌌다.

곱실이는 결연히 주장했다.

《이런 사랑, 이런 배려라면 어떤 중환자도 죽을수 없는거예요. 설사 죽는대도 한이 없는거구요. 오빠, 래일 떠나주세요. 저때때 중임을 뒤로 미뤄선 안돼요. 동생의 첫부탁 들어주시죠? 전기꺼이 완쾌된 몸으로 오빠 기다릴거예요.》

누이동생의 권고가 하도 절절한것이여서 현우는 이튿날 중공동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비행기가 리륙하자 떠나기에 앞서 곱실이한테 들렸을 때 꼭 비행기객실에서 봐야 한다면 서 건네주던 편지를 펼쳐들었다.

도글도글한 필체인 곱실이는 이렇게 쓰고있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여 몇자 씁니다. 오빠가 돌아오시기전에 이남당국의 개입으로 전 이곳에 없는 몸이 될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오빠, 오빠를 따라나설 생각은 하늘땅에 그득하지만 곱실인 그렇게 할수 없군요. 왜냐구요? 그렇게만 한다면 이남당국은 북에서 절 랍치해했다고 소란을 피울것이고 그러면 세계의 면전에서 공화국의 영상은 어찌되지요?

곱실인 오빠를 오늘에로 이끌어주신 고마운 공화국에 한점 얼룩이 될순 없어요.

믿어주세요. 오빠, 다시는 미련한 짓 안할거예요. 전 살아남을거예요. 곳곳이 살아서 조국의 하나됨을 위해 한줌 밀거름이 될 결심뿐이에요.

믿어주시죠? 오빠, 절 대신하여 보고싶은 올케님과 조카들에게 뜨거운 포옹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보이시면 나빠요 오빠. 하나밖에 없는 동생 곱실이 씁니다.》

누이동생의 간절한 부탁이었던만 현우는 끝내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길 없었다. 방울방울 눈물이 종이우에 락수물처럼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련상하여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였다. 그보다는 요 며칠새 산악처럼 우뚝 치솟은 누이동생의 성장이 고맙고 대견하여 흘리는 눈물이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그러나 현우는 몸도 마음도 떠나온 곱실이와 조국을 향해 줄달음치고있었다.

...그것은 감미로운 환영이었다.

몸매작은 백발의 한 녀인이, 현우의 심장속에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살아계실 어머니가 단아한 소복차림에 환히 웃음을 날리시며 고향마을 비탈길에 두팔을 벌리셨다.

고모와 그리고 아빠, 엄마의 손을 이끌고 할머니한테 달려가는 아이들의 마음이 조급하다.

머리우에는 봄날의 파아란 하늘이 펼쳐졌다. 아무런 경계도 없는 그런 하늘이...

## 통일지향과 우리 시문학

장정춘

조국통일주제, 이것은 우리 시문학의 기본주제 분야의 하나이다. 많은 시인들이 이 주제의 시들을 써왔으며 현재도 쓰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영역의 중요한 한부분을 이룬다.

조국통일을 떠나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지향, 우리 인민의 래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우리 인민은 머지 않아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반드시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문학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 1. 《서운한 종점》에서

조국통일주제의 시문학에 대하여 말한다는것은 사실상 가슴아픈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단의 불행에 대하여 말해야 하고 민족의 뼈저린 고통에 대하여 말해야 하기때문이다.

이 주제의 시문학은 우리에게만 있는, 오직 우리문학에만 고유한 주제분야이다. 그것은 이 시문학이 나라가 분단됨으로써 생겨난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은 분단의 력사와 더불어 생겨나 바로 그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여왔고 또 분단력사의 종식과 더불어 마침내는 그 사명을 끝마치게 될 우리 시문학의 특이한 주제분야이다. 그래 어느 나라 어느 문학사에 이러한 주제가 우리 문학에서처럼 그렇게 독자적인 한분야를 차지해본적이 있는지 우리는 묻고싶다.

그것은 얼마나 민족의 고통과 불행의 상징처럼 우리에게 오래 습관되어왔던가, 또 그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고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그 마음들을 괴롭혔던가.

시는 시대의 숨결이고 맥박이라 한다. 우리 시문학은 민족의 이 오랜 통일일원과 더불어 숨쉬어왔고 고통쳐왔다.

우리 시, 가사의 폐지들을 들춰보라.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서 통일주제의 시문학에 대한 기록들을 읽을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매 시기 시들의 세계와 생활들, 감정들을 기억하고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곁을 떠나간 시인 조벽암은 시 《서운한 종점》, 《삼각산이 보인다》와 같은 작품들을 남겨놓았다. 그로부터 썩 후에는 박산운의 《청계천에 부치여》, 립호권의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산다》 그리고 오영재의 《복수자의 선언》등 시작품들이 나와 마치 시대의 발자국처럼 우리시문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였다. 이 시들은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때의 이시들중에서는 우선 행장을 펴고 손뼉아 기다리며 하루속히 고향으로 가자고 했던 한 시인의 모습도 선히 떠오른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어언 수십년세월이 흘러갔다. 《서운한 종점》에 멈춰섰던 그날의 기관차도 통일의 꿈을 싣고 세월과 함께 달려왔다.

혈떡이며 내닫는것은 어찌 너뿐이라  
가까이 다가올수록  
벽차만 지는 나의 숨결

...

그 나날들에 우리의 소년시절이 흘러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춘시절들이 흘러갔다. 그 시절이 주제의 시들은 우리에게 힘을 준 다정한 벗이였고 먼 길동무였다. 얼마나 가야 하는지 그것은 그때 누구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긴 했어도 누가 그것이 차마 반세기를 치달아오르리라교야 상상할수 있었겠는가.

오늘에 와서 그것은 이미 서운한 종점이 아니다. 여기서 서운하다는 말의 의미라는것은 얼마나 무력한가. 이제 그러한 말로 오늘의 이 비극, 우리 민족의 이 고통과 이 불행을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이제는 그것이 서운한 종점인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괴로우며 또 고통스럽고 권한에 사무친 종점이다. 아니 이 나라의 허리를 가로지른 장벽으로 우리앞에 서있다. 오죽하면 오영재가 《복수자의 선언》에서 이렇게 토로했겠는가.

스물도 되기전에 떠난 집을 서른이 넘어서도 못간다만

이 총창은 무엇때문에 내가 쥐고 섰는것인가  
물마른 계곡의 거칠은 강바닥처럼  
가슴속에서 분노한 화산의 용암들이 머리를 쳐든다

여기에는 시인의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는 분

노한 화산의 용암이 있다. 얼마나 피끓는 증오이며 분노인가. 얼마나 바랐던 통일인가. 그런데 그것도 벌써 26년전의 일로 되었다. 용암을 안고 수십년, 그러하며 시인은 이제 60고개를 바라보고있다.

고통과 불행, 외세와 야합한 역적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분노와 원한을 싣고 비오고 눈오는 밤과 새벽들을 지나 통일기판차는 달린다. 비록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예돌기는 하여도 마침내는 부산으로도, 러서로도 가게 될것이다. 그 자장가로는 그렇듯 듣고싶던 남해의 파도소리, 대나무설레이는 소리도 들려오게 될것이다. 그날은 온다, 기관차야 달리자.

## 2. 《...저기 너희 할머니 계신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는것은 오늘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모든 주제의 시들과 마찬가지로 조국통일 주제의 시들에서도 오늘의 현실은 새로운 생활을 펼쳐준다. 여기서는 특히 시인의 강렬한 내부적 체험세계의 개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족의 통일기운이 막을수 없는 기세로 비등된 오늘의 현실에서 시인의 심오한 체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시의 서정은 사실상 자기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런 시들에서 통일열망은 대체로 뜨겁지 못하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정서가운데 포함된 시인의 관조적태도, 열정의 결여를 느끼게 된다.

견결한 표현들뒤에 숨겨진 방심성, 무게있는 시구들에서 감축되는 경박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개인적체험의 세계가 겨레의 통일속망과 일치하고 그의 깊은 사색이 민족의 운명문제와 사활적으로 얽혀있을 때 그러한 시인들에게서 시의 서정은 대체로 심각하며 절절하다.

그런 때 그 시는 민족의 통일지향을 진실하게 노래할수 있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시인 오영재의 조국통일 주제의 시들을 좋게 보고있다.

그의 60년대의 시 《복수자의 선언》과 80년대의 시 《분단의 장벽은 무너지리》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 쓴 시 《통일을 안아오자》 등은 다 훌륭하다.

시 《분단의 장벽은 무너지리》에서 몇구절만을 보기로 하자.

중세기도 아닌 바로 오늘의 세기  
자주와 리성의 세기에  
40여년 생리별이 이 나라에 있음을 세상은 아느냐  
헤어진 나의 어머니 이제는 여든이 되었다

랭자나무 올라리결에서 우리 헤어질 뎨  
마흔도 못되어 젊디젊더니...  
아, 믿기조차 어렵다만 지금도 그대로 계신다면  
몇해만이라도 더 앓아계셔달라  
그러면 내 무덤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수도 있으리

밤길도룩 뒤척이다 풋잡이 들면  
꿈에 어련다  
어린 시절 호남선열차의 차창에서 보았던  
고향의 강 영산강에 뜬 돛배들  
마당가에 서있는 두그루의 감나무  
애들아 앞서 걸으라 저기에 너희 할머니 계신다  
그러면 메밀꽃 하얗게 핀 발머리에  
서있는 나의 어머니  
그날의 쪽물들인 치마에 곱게 빗어올린 검은 머리...

시인의 심오한 체험의 세계를 떠나 이러한 정서, 이러한 생동한 표상을 생각한다는것은 힘든 일이다.

이러한 체험을 다름아닌 감성적, 정서적체험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체험이 이 시의 생활적감정을 낳을수 있는 바탕이였고 또 이 시의 감정 그자체였던것이다. 누가 어린 시절 호남선열차의 차창에서 보았던 고향의 강, 영산강에 뜬 돛배를 이 시인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표상할수 있단말인가. 그가 아닌 다른 누가 메밀꽃 하얗게 핀 발머리에 서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날의 쪽물들인 치마에 곱게 빗어올린 그 검은 머리를 그처럼 생생하게 그려볼수 있단말인가. 우리로써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적형상이다.

《애들아 앞서 걸으라 저기 너희 할머니 계신다》

이 목소리 이 음성, 그것은 분명 아직도 풋잡이 들면 어릴적 그때처럼 그의 귀전에 쟁쟁히 들렸던것이다. 그러면 그 기나긴 세월의 고통을 어떻게 참아낼수 있었는지 그 스스로도 놀랍게 생각되었던것 이다.

심각한 체험자의 시형상, 그것은 오늘 이 주제 시문학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직접적인 체험자만의 독점물이라고 말하는것은 아니다. 매 시인에게는 자기에게만 고유한 체험의 세계가 있지 않는가. 그 미지의 자기세계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조국통일열망으로 불타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 지향을 보다 감명깊게 읽을수 있을것이다.

### 3. 70 년대의 시인

90년대 조국통일주제 시문학은 이전시기와는 다른 자기의 새로운 시대적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뜨거운 통일지향을 새로운 시대적높이에서 노래하는데 있다.

이에 있어서 통일주제 시문학은 심각한 체험과 더불어 사색이 깊고 그 시적감정이 심원한것이다. 그것은 이 주제가 우리 인민의 근본적인 지향을 담고있기때문이다.

90년대는 지난 시기의 그 어느 년대보다 다르다.

이 년대는 희망의 년대, 통일의 년대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민족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과시되게 될 년대, 온 삼천리가 크나큰 환희와 걱정으로 끓어번질 력사적인 년대이다.

지난 시기의 그 어느때도 이 년대처럼 통일의 길에 밝은 전망이 열려본 때는 없었으며 이 년대처럼 민족의 통일기운이 그렇듯 높이 충만되어본 때는 없었다.

바로 90년대의 이러한 시대적특징이 이 주제의 시문학의 심오한 사상성과 내용의 깊이 그리고 그 사회적문제의 절박성을 규정하는것이다.

시인 동기춘은 시초《통일열원》중에서의 시 《어머니의 부름》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바다너머 저 멀리  
산너머 들너머 저 멀리  
내 동포 내 형제  
들으시나요  
어머니의 부름소리를

쇠사슬을 허리에 감고  
긴긴 마흔다섯해  
얼마나 아프시면  
피나는 상처를 붙잡고  
흩어진 자식까지 찾겠습니까

제 부모 급할 때면  
자식들이 단지도 했다는데  
자식된 그 마음이야  
물건너 있다고 다르며  
먼 땅에 있다고 다르겠나요

피를 나눈 한겨레  
살을 나눈 한동포  
들으시나요  
어머니조국의 부름소리를  
다같이 저린 가슴 부들키고 일어서자요

이것은 피타는 호소이다.  
이것은 쇠사슬을 허리에 감은 마흔다섯해 긴긴 세월 참을수 없는 고통의 호소이며 분단조국의

빠져린 아픔의 호소이다. 그것이 더구나 어머니의 부름이라고 할 때 얼마나 가슴저린 일인가. 그래 도대체 이 땅, 어머니의 효자들은 다 어데가 무엇을 하고있단말인가. 이 부름은 우리들에게 뜨거운 생각을 불러낸다. 자식을 낳아키운 어머니들의 가슴속 깊은 마음이야 그 누가 다 알랴. 그 가슴을 헤쳐보라. 그러면 거기서 천만고초와 시름의 상처들을 볼수 있을것이다. 오, 조국이어나의 어머니여 그대의 피줄을 타고난 이 불효한 자식들을 용서하시라...

이 시는 결국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해외동포들은 힘을 합쳐 통일성업에 떨쳐나서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있다.

하여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어머니는 지난 사연 묻지를 앓는답니다  
애오라지 기쁨줄 자식은  
통일 위해 오늘에 피터워하는  
그 열에 있다고 해요  
그 열에 있다고 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품, 사회주의 조국의 품으로 찾아오고있다.

드디어 이 땅에도 대결과 분렬의 두터운 얼음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였다. 따스한 봄날의 태양아래 눈석이는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룬다. 그 거세찬 물결에 휘말려 불신과 반목의 지주가 허물어져 그우에 뚝뚝 떠내려간다.

어제날들에 불가능하던것이 90년대에는 가능한것으로 되었으며 이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것들이 90년대에는 벌써 모두의 관심사로 되여 사람들의 사색을 지배하게 되었다. 지난날에는 꿈이던것, 지난날에는 먼 장래의 일이던것이 오늘은 우리의 현실로 되었다.

온 겨레는 90년대의 통일을 향하여 달리고있다. 90년대에 조국을 통일하는것, 이것은 민족이 정한 시간표이다. 오늘 7천만겨레는 이 통일시간표에 자기들의 마음의 시간을 맞추고있다.

언제인가 《서운한 종점》에 멈춰섰던 그 통일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그역시 이 시간표에 맞추어 달리고있는것이다.

기관차야 정시로 달리자!

### 4.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

그 누구들이 우리 인민처럼 통일을 소원하랴. 그것은 통일이 우리 민족의 소원중의 소원이고 속망중의 속망이기때문이다.

밤이면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통일을 본다. 꿈에서라도 통일을 보고싶은것이다. 아침에 깨어나면 사람들은 또 울렁이는 마음을 안고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그것 역시 통일이다. 때로는 가슴조이며 때로는 애라는 갈망을 안고 그것을 기

다리며 그것을 고대한다.

우리는 력사의 전환점에 서있다. 우리 시인들은 이 현실앞에서 무심할수 없으며 흥분하지 않을수없는것이다.

이로부터 오늘 우리 시문학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통일미래에로의 지향의 서정이며 그 량만의 서정이다.

혁명적량만성은 주체사실주의창작방법으로서의 우리 시문학의 기본특성의 하나이다. 시가 량만의 정서로 충만되지 않고서는 시에 진실로 감명깊은 서정이 흐르게 할수 없으며 사람들을 래일의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할수 없다.

래일에 대한 지향과 동경은 오늘 우리 조국통일주제 시들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시인 오영재는 최근 제 《통일을 안아오자》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기다리고  
기다려  
꿈마다 어리던 그리운 사람이  
어느 이른새벽  
문득 문을 열고 들어서듯이  
통일아, 너 그렇게 못오느냐

지곳은 장마비가 멎고  
밀려가는 비구름사이로  
찬란한 해빛이 쏟아져내리듯  
통일아, 너 그렇게 못오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통일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인가 동경인가, 아니다. 이것은 그리움이고 동경이기는 하나 결코 막연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들을 흥분시키고 우리들의 가슴을 기쁨에 젖게 하는 그 어떤 희망, 신심, 예감 비슷한 것이 있기때문이다. 여기에는 량만적서정이 있으며 통일에로의 강렬한 지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는 현실적기초를 가진다는데 있다. 거기초는 90년대의 거창한 시대적흐름, 통일기운으로 가득찬 90년대의 객관적현실이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며 막지도 못하며 또 돌려세우지도 못하는것이다. 그것은 필연이며 법칙이다. 바야흐로 통일의 서광이 이 땅에 비껴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모두에게 통일이 이제는 그렇게 멀지않았다는 확신을 준다.

우리는 시의 이 구절을 특히 매력적인 구절이라고 인정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그러한 과정의 필연성을 믿는 시인의 사상정신적 및 심리적체험의 세계가 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꿈마다 어리던 그리운 사람이 이른새벽 문득 문을 열고 들어서듯이, 지곳은 장마비가 멎고 밀려가는 비구름사이로 찬란한 해빛이 쏟아져내리듯이 그렇게 이제 통일은 오고야 말리라. 우리는 시의 이 대목을

읽으며 감동에 목매인다. 저멀리 아득한 유년시절의 꿈이런듯 뭔가 건잡을수 없는 환희가 눈물과 함께 앞을 가리는것이다. 그래 그것이 《가슴을 찢으며 불러온 통일》이 아니고 《피로 부르고 죽음으로 불러온 통일》이 아니었던말인가. 통일없이 가는것이 무슨 세월이면 통일없이 우리에게 미래는 또 무슨 소용이란말인가.

시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무엇이 가로막혀  
너는 못오느냐  
오는 길에  
높은 산이 막혀있느냐  
그러면 우리 산도 허물어주마

오는 길에  
깊은 강이 놓여있느냐  
그러면 우리 어깨결고  
몸이 그대로 다리가 되어주마

길을 몰라 예돌아야 한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채로 우리 리정표되어  
통일아, 네가 오는 길을 지키리  
...

이 시에서는 《통일》이 의인화되어 불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절절한듯싶다. 그렇게 불리울만큼 통일은 우리의 숙망이고 모두의 희망이며 생명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 오는 길을 발돋움하며 기다리는것이다. 그리고 시인이 《무엇이 가로막혀 너는 못오느냐》고 했을 때 독자들도 함께 물으며 안타까와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시인의 심정이자 우리 독자들의 심정이며 우리 민족의 물음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시적정서는 소박하게 조용히 흐른다. 원래 깊은 강일수록 조용히 흐르는것이다.

《그러면 우리 산도 허물어주마》. 얼마나 단순하게 쉽게 나오는 말인가. 그 의미에서는 거인적인 의지를 표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 음조는 요란하지 않다. 너무나도 큰 의미가 너무나도 쉽게 흘러나온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너무나도 오래 그것이 우리의 숙망으로 되어왔기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것이다. 그보다 더 큰일인들 못하랴,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길에서 이미 수많은 렬사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는가.

멀고도 간고한 혁명의 로정에서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무쇠와 같이 굳세여졌다. 꺾을대로 꺾어보고 기다릴대로 기다려본 우리,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나 다 잘 알고있는 우리다. 조용한 음성으로도 높이 웨칠줄 알고 평범한 말에도 심오한 진

리를 담을줄 아는 우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련들이 그의 이전 시 《복수자의 선언》의 마감구절 즉

더는 이대로 나이를 먹을수 없어라  
친할머니를 모르고 자라는 어린 가슴들에  
하나의 나이를 더 보태주는 설과 설을 다시  
더 맞을수 없어라  
이 무서운 민족의 고통과 비극을 안고 이제 더  
가야 한다면  
무정한 세월이여, 수억만년 변함없던 지구의  
공전이여,  
우리는 장수의 노한 칼을 뽑아들고 너를 멈춰  
세우리라

라고 노래했던 그 구절보다 힘과 무게에 있어서 결코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것이다. 왜냐하면 이시의 힘과 무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시련에 찬 력사에 의하여 담보되며 90년대의 현실에 의하여 담보되기때문이다.

《무엇이 가로막혀 너는 못오느냐 오는 길에 높은 산이 막혀있느냐?》 시인의 이 안타까운 물음에 시대는 대답한다.

-아니 통일은 이미 저기서 오고있다. 그런데 그것은 필연코 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들게 오고있을따름이다. 조만간 그날은 온다. 라고.

## 5. 그날을 향하여

통일아 통일아

니 어데 갔다 이제야 오느냐

그것은 꿈인듯도 하고 생시인듯도 하였다. 멀리서부터 점점 크게 그리고 점점 가깝게 환호성이 들려오더니 마침내 그것은 천지를 진감하였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력사의 그날이 온것이다.

이것은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김형준의 시 《통일의 날 평양의 거리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시작하고있다. 때문에 그의 시는 지금에 씌여진 시같지 않다. 마치도 통일이 다 된 그날에 씌여진 시와 같다. 독자들의 마음도 이 시를 읽는동안만은 그날에 살고있다.

목마르게...

피가 타게...

기다리고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바라고바라던 통일의 그날이 와서  
사람마다 답답던 가슴 풀어헤치고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왔다

오고가는 사람들 펼쳐보는 신문은

통일을 알리는 특보인듯

거리의 신호등조차 눈물에 젖어 습벅이는가

평양의 거리는 환희로 들끓는다

나는

통일된 평양의 거리를 걷는다

우리 시인들에게 하나의 위력한 무기가 있나니 그것은 환상의 힘, 하늘을 날으는 매와 같이 자유분방한 그 환상할수 있는 능력이다. 누가 우리의 환상까지야,

우리의 이 마음의 지향까지야 장벽으로 가로막을수 있단말인가.

우리가 환상할수 있다는것은, 환상으로써 우리의 소원을 성취할수 있고 환상으로써 우리가 통일된 평양의 거리를 남먼저 걸어볼수 있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거리를 메우며 마주오는 빠스의 차창엔

사진마냥 바투 붙은 얼굴들

활기넘쳐 걸어가는 사람들속에서

아들을 어머니를 형제들의 모습을 찾으려

눈물젖은 얼굴들이

차창을 흐리운다 흐리운다

사진마냥 바투 붙은 눈물젖은 얼굴들이 차창을 흐리운다. 눈앞에 보는듯하다.

목마르게 피가 타게 바라던 통일의 날이다. 5천년 력사가 기다리던 이 나라에 통일이 온것이다. 하늘이여, 땅이여, 태양이여! 누가 우리에게 이날을 가져다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통일을 안겨주셨습니까. 이 아름답고 벅찬 통일을...

황광 쏘아지는 눈물에 차창이 흐리운다 흐리운다. 오늘의 이날을 위해 한평생 풍상고초를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로고와 심려에 가슴에선 뜨거운것이 흐른다.

환상은 서정시의 날개이다. 환상이 없는 시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적으나 많으나간에 그것은 있다. 그것은 시인의 마음의 창공을 날으는 자유로운 매, 희망의 푸른 언덕, 먼 지평선의 노을이다.

시들에서 그것은 다 필요하나 통일을 노래하는 시들에서 특히 더욱 그런것만 같다.

우리 인민은 얼마나 오래동안 이 통일을 상상속에 그려왔던가. 얼마나 툭툭히 발을 현실에 붙이고 마음은 미래에 살았던가.

그렇기때문에 시 《통일의 날 평양의 거리에서》의 랑만적서정은 우리에게 조금도 이상한것으로, 놀라운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친근하며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아낸다. 무엇인가 읽고싶다.

통일의 날의 그 현실이, 통일의 날 평양의 거



리가 보고싶다. 온몸으로 느껴 보고싶다.

거리에서 나는 친구를 만났다  
서울이 고향인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으로 간다는 나의 친구  
바쁜 걸음 순간도 지체시키고싶지 않다

십년 사귀어오면서 술 한잔 못하던 친구  
오늘 그의 얼굴 별정계 취기가 오름도  
통일의 날의 풍경이리라...

-잘 다녀오게!

인사말하여 지내놓고보니 미안하다  
마치 이웃집을 다녀오는  
친구에게 하는 말 같아서

시에서 그려보여준 통일의 날 거리의 풍경들이  
독자들 자신도 능히 상상할수 있는 그러한 생활범  
위를 별로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것은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모은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사색하며 그것을 다시 공상할수 있  
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  
기때문이다. 그러나 독자들의 상상도 미치지 못  
하는 그러한 격동적인 생활을 펼쳐보일수 있다면  
물론 그것은 더욱 좋을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거  
의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직은 시인도 포함  
하여 누구도 그것을 알수 없기때문이다. 통일의  
날에는 뜻밖의 감격적인 사변들이 얼마나 많을것

인가, 기쁨우에 기쁨이 겹치고 경사우에 경사가  
겹칠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시인의 몫은 어디있는가. 그  
것은 그의 감정, 그의 사색, 그의 심오하고 정서  
적인 체험세계에 있다. 이 시를 독자들이 흥미있  
게 읽을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기에 통일의 날  
에 느낄수 있는 이 시인의 감명깊은 체험세계가  
있기때문일것이다.

시인은 이 시의 마감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노  
래하고있다.

우리 수령님 이날을 위해  
단 하루 한순간도  
편히 쉬신적 없었거니  
오늘은 우리 수령님  
만시름 잊으시고 편히 쉬실게다!  
꿈에서도 웃으시며 편히 쉬실게다!

우리의 지향은 그날을 향하여 달리고있다.  
그날을 기다리라, 그리고 믿으라.

아직은 난관도 시련도 있을것이다. 기쁨도 슬  
픔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날은 오고야  
말것이다.

어둠을 뚫고 폭풍을 뚫고 기관차는 돌진한다.  
그날을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저기 앞에서 통일되고 평화로운 2000년대가  
우리를 기다린다.

## 하나가 좋아

(총련)김광숙

파-란  
통일기의 수풀속에서  
하나된 응원소리  
세찬 파도가  
밀려가고 밀려오며  
대회장을 뒤흔들어요

이겨라 코리아  
코리아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코리아 야!

좋다-  
이겨라  
계-속 전진, 야!  
히야,  
말소리도 하나  
가락도 하나

분명 하나의 피줄  
둘로는 될수 없는  
하나의 민족  
하나된 응원속에  
선수들 신나  
큰 나라에 이겼단다

강팀에 이겼단다  
7천만의 눈앞에서  
세계의 눈앞에서

종구나 좋아  
하나가 좋아  
정말정말 하나된  
통일이 좋지

## 피더운 땅에 부치며

리승일

사람들이여  
남녘의 이 땅 흙 한줌 떠보라  
아직도 식지 않은 한창 나이 그네들의  
진붉은 피가 똑똑 떨어질것이다

시선 모아 살펴보라  
순진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한같은 이 땅을  
그리도 마음 모진 이 나라 너인들이  
눈물을 못참고 가슴처럼 쥐어뜯는  
상처 깊은 그 흔적을

김주열이 묻히고  
그리고 박종철, 리한렬, 조성만, 귀정이...  
젊으디젊은 우리 경대,  
유구한 지질사의 그 무슨 지층처럼  
그렇게 허빈 방이다, 그렇게 묻은 땅이다

조국의 남단이어  
너를 두드리며 묻고싶은 말이 있다  
너를 두드리며 듣고싶은 대답이 있다  
가슴치며 가슴치며 할 말이 있다

미제식인종의 피문은 걸음들이 네우에 찍힐 때  
현대 반역의 가증스런 무리들이  
이 반도의 허리를 백주에 동강낼 때  
어이하여 지각의 노호를 일으켜  
땅이여, 화산을 터뜨리지 못했느냐

오, 강토의 허리지른 장벽을 다 보기엔  
살점 같은 이 땅이 너무도 넓었다  
수많은 젊음들을 이렇게 묻기엔  
이 땅이 너무도 좁았다

땅이여  
너는 흘러간 력사만이 아닌  
민족의 가슴 모아 꿈을 모아 기원하는  
질푸른 미래가 무성할 보금자리

땅이여, 땅이여  
하나로 우리 살고  
후손들 모여살 삶의 터전이어  
아까운 청춘들을 여기에 다 붙고  
겨레가 만난들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울것인가  
통일연의 축배 선뜻 들 사람 있겠는가

아, 상복을 벗고 갑옷을 떨치라  
상여채를 놓고 날창을 잡으라  
이제는 까부셔야 할 장벽이다  
이제는 열어야 할 통일문이다

정녕 남녘땅이여  
아들갈고 딸같은 꽃나이들을  
이제 더 묻을 자리 있거든  
통일전의 참호를 펼치라  
징벌의 보복을 안기라

## 스승이여

스승이여  
우리를 용서하리라  
어제도 당신의 고대사 강의에 결석한  
이 제자들을 용서하리라

책보 아닌 돌을 들고  
론쟁아닌 통일을 부르짖으며  
당신이 텅빈 강실에 들어설 때  
우리는 항쟁의 스크랏을 짜고있었나이다

가르치지 않았나이가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의 비화를  
포박된 삶에 순종만을 순리로 믿었던

대륙과 제도의 수백년 노예사를

외면할수 있으리라  
당신의 전공이 아니라고  
분계선 가시줄이 조국을 동여매고  
남단의 젊은 미래들이 결박당한 현대사를

스승이여  
우리를 용서하시라  
당신의 교단앞엔 결석할진대  
통일의 대문앞엔 지각 못할 우리들을  
용서하시라, 스승이여  
당신의 자랑스런 결석생들을

## 목숨바쳐 고백할 내 사랑입니다

통일,  
통일!... 하며 눈도 못감고  
꿈처럼 숨이 진 이 처녀가  
이 처녀가 나의 사랑입니다

통일,  
통일!... 하며 화염병을 그러쥐고  
내 가슴에 불안긴 아름다운 이 처녀가  
사람들이여, 이 처녀가 나의 사랑입니다

못가  
이렇게는 못가

쇠몽둥이에 열백번 쓰러진들 이렇게는 못보내  
오열을 터뜨려도 대답없는 이 처녀가  
아, 아직은 고백조차 아껴왔던 나의 사랑입니다  
피에 젖은, 피에 젖은 내 사랑입니다

아아-피배인 이 손으로 두눈을 감겨주며  
그러친 화염병을 받아쥐고 틀어쥐며  
사람들이여,  
이제야 고백을 아껴선 무엇합니까

통일, 우리의 통일은  
목숨바쳐 고백할 나의 사랑입니다!

## 분신리유서

어머니시여  
당신이 대학입학기념으로 지어주신  
하얀 옷옷을 찢었습니다  
그우에 한자한자 피로 씹니다

분신리유서입니다  
리유래야 무엇을 더 쓰겠습니까  
통일없는 삼천리가 말해주는데  
이렇게는 못살 땅이 다 말해주는데

아, 가난을 유산처럼 물려받은 당신은  
앞서가는 이 아들을 축복해주십시오  
분렬을 유산처럼 후세월에 넘겨주는

민족의 불효로는 되지 않고저  
살고싶은 청춘을 폭탄처럼 던지렵니다

어머니시여  
옷옷의 피문은 천조각은  
통일계단에 드리는 나의 선물입니다  
당신께 드리는 이 아들의 유일한 효도입니다

받아 통일의 항쟁대오앞에  
기발처럼 자랑차게 펼쳐주십시오  
축복해주십시오, 하얀 천을 찢어  
분렬앞에 흰기를 들지 않은 이 아들을

## 사랑하는 법을 배워주라

한떨기 붉은 들장미를 꺾어서  
눈물마냥 하염없는 땀기로 싸안고  
누구보다 억함에 한가슴 터치려고  
처녀는 렬사의 사랑이 되었던가  
7천만이 조객이 된 영결의 로제앞에  
귀중하던 사나이의 사진을 받쳐들고  
온 겨례가 다 듣도록 통분을 쏘자고  
고이고이 남몰래 사랑도 아꼈던가

갈라진 조국이여  
향학의 벼를 잃은 학우의 가슴들에  
착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

준엄한 선고처럼 처녀의 절규가 울린다

듣느냐  
우리의 함성이 그대로 폭탄인  
분단의 남녘일지라도  
불타는 두마음 한뼉이 되어  
꿈에라도 오라고 미래를 불렀다면,

사무치던 통일의 날 첫 설이 오면  
평양의 할아버지, 할머니앞에  
오손도손 달려가 세배도 올리자면,  
원하던 그날에 방학이 오면  
백두로, 금강으로 수학여행도 하리라던,

오, 새벽 별이 지도록 그리고싶던  
 황홀한 미래도 못가진 사랑앞에  
 영결의 꽃송이를 축복처럼 엮어야 할  
 조국이며, 그대의 분단은  
 이다지도 절통한것인가  
 이다지도 모질도록 무정한것인가

허리 잘려 반세기 몸부림치는 조국이며도  
 살아서는 못버릴것 사랑이라고  
 한떨기의 사랑마저 지켜 못준 사랑이여도  
 그대의 아픔만은 목숨으로 덜어보자던

아, 이렇게 간 아들들의 귀한 사랑만은  
 그대의 이름으로 아껴주라, 지켜주라  
 산자의 노도앞에 기발같은 처녀에게

그대의 이름으로 배워주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주라  
 분단의 형틀에 칭칭 얹매어서도  
 그대의 청춘들이 사랑할수 있다면  
 아, 돌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증오의 몽둥이를 총기처럼 펼쳐들고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주라

조국이며  
 비둘에 새긴 석자 이름엔  
 세월의 풍상에 이끼가 덮인대도  
 부디 새겨주라  
 그대의 대지에 만리장천에  
 그리도 사랑을 아끼던 청춘들이  
 그리도 사랑을 아끼지 않고 갔노라고!

## 아들에게

정중철 (남조선)

아들아  
 이른아침부터 등록금을 조르다가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는 풀기 없는 애비의 말에  
 아침 한술도 채 뜨지 못하고 일어나는 아들아  
 오늘따라 좁다란 네 어깨 너머 녹슨 형광등이  
 뿌연기만 한것이 별스럽게 처량하구나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도 모르는  
 아득한 이 가난이  
 애비에게 이르러 더욱 찌들어  
 때마다 너와 네 애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무 말 못하고 애써 외면해버리며  
 애꿎은 담배만 태우는  
 이 애비의 가슴도 찢어놓지만  
 근로기준법 명시된 일일작업시간의  
 수배나 되는 시간을  
 그것도 모자라 특근이다 야근이다 휴일도 없이  
 흐릿한 불빛아래 피발선 눈을 비벼가며

온갖 소음에 가는귀마저 먹어버린 애비의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해야 하는지  
 네 어린 나이로는 이해할수 없겠지만  
 이른아침 한술도 못뜨고  
 학교로 나서는 네 모습은  
 그토록 아프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구나

아들아  
 남들처럼 잘먹이고 잘 입히지 못해  
 마음 하나밖에 줄것이 없는 사랑하는 아들아  
 흔히들 말하는 직업애는 귀천이 없다는 소리가  
 배울것 다 배우고 가진것 다 가진 후에야  
 먹혀드는  
 점잖은분네들의 입바른 소리일뿐이라고  
 믿는 애비가  
 오직 하나 네게 바라는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나 판사가 되라는것이 아니라  
 자가용 서너대 가진  
 사장님이 되라는것이 아니라  
 못난 애비처럼  
 비록 새끼 가슴에 피멍들린 죄책감으로 눈물  
 흘러

남의 몫 가로채지 않는  
 남아있는것마저 앗아가지 않는  
 땀뻑한 로동자가 되라는것이다

아들아  
 마음 하나밖에 줄것이 없는 내 아들아

# 조국떠나 멀리에서

-한 대외일군의 수기-

리용래

교묘한 달빛이  
내 머리말을 어루만져요  
아마 우리 집 창가에도  
비치겠지요 저 달빛이...

아니, 착각했군요  
여기는 지구의 서반구  
만리로 아득한 나의 조국은  
해빛밝은 대낮이겠는걸요

어머니! 보고싶어요  
그리워 달을 쳐다보니  
그속에 다 비쳐오는듯  
다심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잊지 못할 다정한 얼굴들이

또 삼삼히 떠오르는군요  
두고온 나의 정든 집  
방안의 손때묻은 세간들  
저녁이면 일가식술들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나날들이

조국에 있을 때에는  
무심히 지나다니던 거리며 골목들도  
까맣게 잊고있던 하찮은 일들도  
새삼스레 자꾸만 떠올라  
마음을 걸잡을수 없군요

며칠전에는  
이름난 공원엘 구경갔었어요  
술도 우거지고 꽃들도 곱더군요  
그런데 왜서일가요  
늘 오르내리던 모란봉의 푸른 숲이며  
지금 한창일 살구꽃, 진달래가 자꾸  
떠오르는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좋다는 음식을 먹어봐도  
세상에 이름난 요리를 맛보아도

나는 별로 좋은줄 모르겠어요  
쌀밥에 구수한 장국내가 풍기는  
푸짐한 우리 음식만 못해요

왜 그럴가요 어머니!  
일을 하면서도 조국생각  
꿈에 보이는것도 조국의 모습  
왜 이다지도 조국이 그리울까요

조국이 이리도 그리운줄은  
그 품을 떠나봐야 아는가봐요  
남의 땅에 피눈물 뿌려본  
그런 동포들을 만나볼 때도  
가슴에 사무치도록 새긴답니다  
더더욱 조국이 귀중한줄을,

그 품을 떠나서는  
살아도 참다운 삶이 아니고  
그 품을 잃으면  
인생의 전부를 다 잃는  
그처럼 귀중하고  
그처럼 신성한것이  
조국인가봐요

나의 넋이고 생명인 조국!  
나의 행복이고 희망인 조국!  
나는 안답니다  
그 조국이 나에게 있어  
그 품속에 영원히 살며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  
여기 먼 이국에 와있는줄,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는 달빛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밤도 껍 깊었나봐요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어릴적 이 딸의 걸음마를 익혀주시던  
해빛밝은 대동강반을 걸어가고있답니다

## 고향 풍경 외 1편

량광순

옥이야  
그림을 그려라  
살구꽃, 사과꽃 그리던 손에  
크레용 쥐고  
그리도 그리고싶던 고향마을  
  
저길 좀 보렴  
푸른 하늘과 잇닿은 언덕위로  
행복이 실려 뻗어온  
드넓은 동구길  
아버지의 손목잡고  
학교길 처음 걷던 그 길이 아니냐

미역을 감으며  
살갓 태우며  
해저물도록 뛰놀던  
애원천기슭에  
잉어떼 꼬리치고  
물오리떼 노을에 물들어라  
  
나비리봉 나풀대며  
아버지 어머니 찾아  
노래춤 안고가던 포전마다엔  
풍년이삭 구슬지게 영글어  
황금바다 물결우에 백학이 춤추고

흐르는 양무리 염소무리  
그 영각소리도  
유정한 노래로 넘치는 산촌  
과일따는 처녀들의 그 모습도

만풍년의 웃음꽃으로 떨기졌구나

그림을 그리자  
옥이야  
우리 자란 그전날 유치원  
오늘은 행복한 지붕아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새로 일떠선 2층집  
해빛 넘치는 창가마다에  
주렁진 행복  
너의 집, 우리 집도 다 담아보자

그리고 그러도  
놓친것 있는것만 같구나  
고향의 모든것  
그리고 그러도 빈자리 있는것만 같구나

우리 다 그리지 못해도 좋다  
우리 가진 색감이 모자라도 좋다  
네가 살고 내가 살며  
한생 가꾸고 가꾸어갈 모든것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으려니

그리자꾸나  
대를 이어 꽃피워가는 고향땅에  
주인된 성실한 땀을 바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고향의 풍경을 그리자꾸나!

## 사둔재의 새 전설

지나가던 길손들이

길가에서 물어도

나는 대답한다  
내 고향 여기는 만석동이라고

어떤이는 이름이 좋다고  
어떤이는 이름이 부럽다고...

그럴 때면  
나는 생각한다  
고향의 어제와 오늘을

오막살이 가난이  
버섯같은 이영속에 쌓이고 쌓여  
그래서 이름도 버섯동네  
정해놓은 혼사길 너무도 기가 막혀  
눈물속에 장인장모 넘었다는  
사둔재의 그 전설...

허나 오늘은 보아라  
키돋움하며 솟아오른 집집마다에  
해빛이 아롱진 창가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흐르고  
철새마저 깃들지 않던 앞내벌에선  
물결치는 이삭우에 두루미떼 춤추고

눈물속에 넘었다면 사둔재 언덕엔  
도시쳐너 시집온다 경사가 나  
덩실덩실 춤추는 고개  
그 이름도 새로 지은 선녀고개

알았더나  
그 옛날에는  
부르기조차 부끄러워 대답 못하던  
이고장 사람들  
오늘은 이렇듯 자랑에 넘쳐  
텔레비죤무대에까지 나서서  
그 이름 소리높이 부를줄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고싶다  
이런 락원에서 사는 행복  
저 하늘에 한폭의 그림을 그려  
내 고향 이름 빛내고싶다

우리 수령님 한없는 사랑에  
우리 당의 고마운 은덕에  
만석동으로 살아가는 고향사람들  
그 가슴에 영원히 안고 사는  
내 고향 그 이름을 자랑하고싶다

## 숲속의 아침 외 1 편

럼형미

간밤에 누가  
술술 쥐여뿌렸나  
아, 눈이 부시네  
숲속에 황홀히 내려앉은  
아침이슬

휘잉킨 덩굴들마다에  
령롱히 반짝이는 이슬의 께미들  
머루송이 잣송이 오미자송이 ...  
좋아라 나를 반겨  
이슬보라 뿌려주네

반가워라  
푸드득 깃을 치는 산꿩아  
쁘르르 기여내린 다람쥐아  
그래 우리 아침인사를 나누자  
내 정든 산아  
꺼지게 황금을 주렁지은  
이런 가을날  
열매의 단 향기에 가슴들먹이며  
옷자락 당기는 덤불들과 손잡으며

싱그런 보화의 숲속을 헤쳐감은  
그 얼마나 좋은것이나

이 아침  
나처럼 행복한 처녀 어디 있을까  
밤새 살오른 풍요한 몸을  
맑은 이슬 털어 치장하는 숲  
보화의 그속으로 맘껏 웃으며  
새 아침의 출근길 비좁아 하는  
그런 처녀 어디에 또 있을까

불타는 단풍잎은  
밭밀에 주단처럼 깔리고  
머루 다래 오미자...  
오색빛 산열매는 주렁주렁  
사열식 대렬처럼 늘어서  
황금산의 주인 이 처녀를 반겨맞는데

아, 가귀온 행복 기쁨이 비좁아  
이 아침 나는 두팔 벌려  
황금산을 한껏 끌어안네

## 처녀의 바구니

봄내 여름내  
처녀의 바구니 빌새 없어요  
도라지씨 잣나무도 벌레잡이약...  
부지런한 처녀의 옆구리에 매달려  
황금산을 기르는 짜리바구니

새움 퇴우고  
꽃을 피우고  
비바람 막는  
처녀의 사랑  
산마다 골마다 달콤히 먹여주며  
아, 복대봉 온 숲을 담아키우는  
처녀의 큰 바구니예요

가으내  
처녀의 바구니 빌새 없어요  
송이버섯 오미자 도토리...  
부지런한 처녀의 옆구리에 매달려  
만짐실은 비행기처럼  
황금산을 나르는 바구니

기쁨을 주고  
운택을 주고  
환희를 더해줄  
풍년든 산열매 인민의 채부  
아, 처녀의 크나큰 행복을 통채로 담기엔  
너무도 작은 짜리바구니예요